

유현종 장편소설

# 심청전

유현종 장편소설

# 심청전

차 례

작가의 말 \_ 6

짜지어 오는 불행 \_ 13

관음보살의 성덕聖德 \_ 23

청이 탄생과 괘씨 부인의 비극 \_ 33

먼저 떠난 괘씨 부인 \_ 45

거렁뱅이 봉사와 딸 \_ 57

따뜻한 이웃사촌 \_ 67

그 어머니에 그 딸 \_ 81

아름다운 우리 옷, 반회장저고리 \_ 97

승상 부인이 탐낸 심청이 \_ 111

심봉사 부녀 혼담 \_ 125

심봉사 연정 \_ 141

말없이 사라진 과수덕 \_ 155

지키지 못할 부처님과 의약속 \_ 175

저는 가요, 바닷속 저승길 \_ 193

인당수에 떨어진 한 송이 꽃 \_ 213

국모가 된 심청 왕후 \_ 233

전국 맹인잔치를 열라 \_ 251

어디 보자 내 딸, 눈을 뜬 심봉사 \_ 269

## 심청전의 고향은 어디인가

유현중

### 1.

『심청전』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말들이 많아 왔다. 물론 두 가지가 다르다. 『심청전』이라 하면 소설이거나 판소리 사설 등을 말하고 주인공 심청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작품과는 서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적지原籍地가 어디이며 성장지가 어디인가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심청의 원적지는 대략 두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황해도 황주라는 설이고 또 하나는 충청도 대흥현 설이다. 황해도 황주설은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판소리 <심청가>에 적힌 것이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또 다른 충청도 대흥현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충청도 대흥현이란 땅에 홍장洪莊이라는 장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인 원량元良은 소년에 그만 눈이 멀었으나 양반의 후예로…….”(곡성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 『효녀 원홍장』의 시작 부분)

판소리 <심청가>에 나오는 심청의 원적지는 황해도 황주인데 성장지가 어디인가 하는 건 확실히 밝혀진 부분이 없다. 이에 비하여 성덕산 관음사 설화에 나오는 원홍장이란 효녀는 낱기는 충청 대흥현이지만 어려서부터 살기는 곡성 땅 오곡면 천덕산 아래 금천 주변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홍장이 아버지가 약조한 화주승과 금강불사金剛佛事를 위함 몸을 희생하는 모든 과정이 흥법사란 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흥법사는 성덕산 관음사를 설화 속에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가명假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심청가>보다는 『원홍장전』이 훨씬 사실성이 돋보이고 그래서 『심청전』의 원형으로 보이는 증거 중 하나이다.

『원홍장전』이 『심청전』의 원형이며 <심청가>는 『원홍장전』의 윤색潤色이라 보는 또 다른 증거는 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경의 연대이다.

<심청가>의 배경 연대를 보면 AD950년. ‘중국 송宋나라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홍장전』은 그보다 훨씬 앞선 AD267년. 중국 진쯤나라 때의 사건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그렇게 보면 『원홍장전』이 판소리 사설 <심청가>보다 연대가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홍장전』은 『심청전』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두 작품이 서로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름이다. 원은 성이고 이름이 홍장인 데 반하여 『심청전』은 심씨이고 봉사 심학규이다. 이름이 완전히 서로 다르지만 작품화하는 데 창작되는 이름은 원작 작가의 임의대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로 다른 점은 『심청전』에서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눈을 뜨게 해 주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남경 선원들에게 치녀 공신제물供身祭物로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홍장전』에서는 제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진나라 황후로 점지되어 아버지를 위해 많은 금은보화를 받고 황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효녀임을 강조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가게 만들고 인당수에 빠지고 서해용왕을 만나 인도 환생하여 조선국의 왕비가 되고 맹인 잔치를 벌여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게 한다는 줄거리가 『심청전』이다. 극적 효과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스토리이다.

『원홍장전』에서는 인당수와 용궁 스토리는 없다. 장님인 아버지가 눈을 뜨는 대목도 맹인잔치 현장에서가 아니라 딸과의 이별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극적 반전이나 효과가 없다. 그런 사건을 최대한 각색 효과를 고조시킨 것이 『심청전』인 셈이다.

서양의 문학작품은 작가가 무명인인 경우가 드물다. 작가가 있고 작품이 뒤에 있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이며 괴테의 『파우스트』이다. 하지만 동양의 문학작품은 작가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

국의 고전들인 『서유기』, 『수호지』, 『금병매』 등이 그렇고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이나 『홍부전』, 『심청전』, 『별주부전』 등 거의 다 무명씨이다.

왜 그럴까. 서양의 작품들은 개인의 서재에서 탄생되었지만 동양의 고전은 사랑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동네 저 동네 사랑방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해 주는 ‘이야기꾼’이 있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창작된 것이다.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민중들의 창작물로 보아야 한다. 『심청전』도 전부터 전래되어 온 원형 원작 설화(『원홍장전』)가 있었다. ‘이야기꾼’이 동네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마을로 가면서 ‘이야기꾼’은 재미를 만들어 붙이기 위해 극적 상황과 스토리를 개작해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재미있고 “효녀란 말을 들으려면 심청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감탄들을 했다. 거기에 힘을 얻으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대목을 만들어 청중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다. 원작보다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맹인잔치를 열어 부녀 상봉 끝에 번쩍 눈을 뜨는 장면을 집어넣은 것이다. 원작 『원홍장전』이 『심청전』으로 재탄생된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성덕산의 관음사는 우리나라 관음사상의 탄생지이며 곡성의 오곡은 심청이인 원홍장의 성장지이며 그래서 『원홍장전』은 바로 『심청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심청전



## 짜지어 오는 불행

조선의 영조대왕 연간에 전라도 곡성<sup>곡성</sup> 금천<sup>錦川</sup> 도화동<sup>桃花洞</sup>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래 그의 집안은 양반가였지만 양반도 당대에 걸쳐 집안에서 벼슬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민이나 마찬가지여서 행세를 못하였다.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 선조들이 많이 있었던 집안이었지만 조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고 원래부터 심학규 집안사람들은 청빈한 사람들이라 재산도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심학규 대에 이르러서는 농사지어 먹을 땅 한 뼨도 없을 만큼 가난해져 있었다.

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일찍 여윈 심학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그의 나이 열일곱 살에 혼인을 하고 아내를 얻게 되었다. 열다섯 살에 시집온 아내, 꺾이는 부지런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시어머니를 잘 모실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집안 살림을 다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여 식구들을 봉양했다.

머느리 때문에 언제나 밥상머리에서나 집 안팎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 건 심학규가 결혼한 지 2년 만인 열아홉 살 때였다. 몸이 허약하여 병을 달고 살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 버렸던 것이다. 그리되니 심학규는 한순간에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행운은 혼자 다니지만 불행은 언제나 짝지어 다닌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채 일 년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심학규가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눕게 되었던 것이다. 여름인데도 춥다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었다.

“안되겠어요. 초시 어른을 모셔 와야겠어요.”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의원 어른이 오면 그게 다 돈인데 어찌려구 그래요? 하, 하룻밤만 아프고 나면 괜찮을 테니 그냥 있어요.”

심학규가 떨면서 고개를 흔들고 부인을 가지 못하게 했다.

“아니에요. 나 얼른 모시고 올게요.”

아내가 더 잡기 전에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동네 유일의 의원인 이 초시를 모시고 왔다. 이 초시는 자세한 진맥도 안 해 보고 심각한 얼굴로 고개부터 흔들었다.

“왜 그러세요?”

불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아내가 물었다.

“돌림병 괴질인 염병염病에 걸렸구먼.”

“돌림병이라구요? 어르신, 약을 쓰면 고칠 수 있겠지요?”

“염병은 약이 없다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것 참, 별

교교 쪽에 그 괴질이 나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 그 염병 괴질이 우리 곡성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어르신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살려 주세요.”

“나 좀 보시게.”

이 초시는 심학규 아내에게 밖으로 나오라 하더니 소곤거렸다.

“어쩔 수 없는 괴질이고 지금으로서는 고칠 약이 없다네.”

“그럼 죽기만 기다려야 한단 말예요?”

“아니지. 제명이 길면 살아날 테구 짧으면 어쩔 수 없지. 사립문에 새 끼줄로 금줄을 치고 자네 외에는 집 안에, 특히 환자가 누워 있는 안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염병 환자가 있는데 금줄을 치고 격리하지 않은 걸 알면 관가에서 가만있지 않을 테니 알려 주는 거야.”

이 의원은 남편이 괴질인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 돌림병은 약도 없었다. 한번 휩쓸고 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없이 희생되었다. 환자가 생기면 관가에서는 환자 주변을 철저히 격리시킨다.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걸 어기면 관에서는 환자들만 모아 놓은 시체 방치장放屍場에 추방하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한다. 삼칠일(21일간)이 고비이다. 그 기일 안에 죽으면 하는 수 없고 그 기일을 버티면 살아난다. 버티고 살아나기만 빌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는 자기도 전염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병간호에 전심을 다 쏟았다.

고열에 들며 죽 한 수저 넘기지 못하던 남편은 보름이 넘어가자 열이 좀 내리기 시작했다.

“사셔야 돼요. 독하게 맘먹으세요. 난 꼭 산다구 말예요.”



이런 것을 두고 하늘이 돕는다[祐神助]고 했던가. 아내의 지극한 간호 덕이었는지 심학규는 죽도 먹고 미음도 먹으며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부인, 고맙소.”

그는 누운 채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선뜻 잡지 못하고 더듬었다.

“왜 이러세요? 잘 안 보이세요? 내 손이?”

“어어, 왜 그런지 모르겠소. 물속에 빠진 거울조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얼보이고 있어요. 부엌에 안개가 낀 것 같애.”

일어나 앉은 심학규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두 손을 더듬거렸다.

“이 손가락이 모두 몇 개예요?”

아내가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며 남편에게 물었다.

“한 갠지 두 갠지 잘 모르겠어.”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정말로 눈이 나빠졌나 봐요. 염병은 열병이라더니 날마다 열에 시달려 그렇게 됐나 봐요. 하지만 다 나오면 눈은 다시 좋아지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는 애써 남편을 위로했다. 그 위로는 자기 자신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돌이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행여 장님이라도 되면 큰일 중에 큰일 아닌가. 마침내 앓아누운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그 괴질에서 살아남아 일어서게 되었다. 병 때문에 허약해진 몸도 추슬러 건강도 좋아졌는데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되지 않아 아내의 속마음을 태웠다.

“백일기도나 드립시다. 아무래도 부처님께 눈병 낫게 해 달라고 빌어

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소원을 들어주실까?”

“그럼요. 성한 눈으로 돌려 달라 빌구, 거기다 한 가지 소원을 더 빌어 봅시다.”

“어떤 소원을 빌구 싶은데?”

“당신하구 내가 만난 지 벌써 몇 년이예요? 슬하에 아들 하나 낳아드리지 못했으니 조상님네 뵈기두 죄송하죠.”

“욕심 부리지 마시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하나만 두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처님 전에 빌어 봅시다.”

“내일 새벽부터 옥과玉果에 있는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에 가기로 해요.”

성덕산은 도화촌에서 두 개의 재를 넘어야 나오는 산이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후덕한 산이 성덕산이고 그 안 깊은 골에 관음사가 있다. 관음사는 서기 302년 백제 분서왕 3년에 성덕보살이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2천여 년의 장구한 역사가 서려 있는 고찰刹이고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이며 독특한 불교신앙인 관음사상이 생겨난 절이기도 하다.

삶이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부르면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내려주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해 준다는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 그렇게 현실적이며 현세적現世的인 부처의 화신이라 한다면, 미륵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언젠가 이 세상에 온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백제인들은 것처럼 대자대비하여 모든 번뇌에서 해방시켜 주고 기원

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음신앙과 미래에 미륵불이 오면 중생은 모두 극락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미륵신앙을 믿었는데 관음신앙은 바로 이 성덕산 관음사에서부터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결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제인들은 관음신앙보다는 미륵신앙을 더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음신앙은 백제인들이 왜국에 전파하여 왜국에서 꽃을 피웠고 미륵사상은 백제 본국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 의자왕의 부왕이었던 무왕<sup>武王</sup>은 미륵사상에 경도되어 익산 금마에 동양 천지에서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사찰을 세웠던 것이다.

금마 미륵사였다. 미륵사를 짓기 위해 국고를 다 털어 대 토목공사를 벌였고 무왕은 미륵사가 완공되면 부여에 있던 백제의 수도를 금마로 옮겨 올 심산이었다. 중생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미륵불은 분명 이 땅, 백제의 금마에 있는 미륵사에 내려오시며 그 부처가 오시면 동서남북, 사해지내<sup>四海之內</sup> 모든 이웃나라들은 백제에 머리를 조아리고 상국<sup>上國</sup>으로 모실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밀려 망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엄청난 대 토목공사에 국고를 완전히 탕진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었다.

“자, 어서 가요. 해 뜨기 전에 가야만 영험이 있다니까요.”

작정한 날이 되자 심학규의 아내는 꼭두새벽부터 남편을 깨웠다. 그 날부터 내외는 손을 잡고 밭길 산길을 넘어 성덕산 관음사를 찾았다.

“어서 내 손을 잡아요.”

“나 혼자 가도 된대니까. 그런대로 앞이 보여요.”

“위험해서 안 돼요. 거 봐요. 밭을 헛딛고 있잖아요? 잡으세요. 안전하

게.”

혼자 갈 수 있다고 우겼지만 얼보이는 눈앞은 분간이 잘 안 되어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심학규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녔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소원과 더불어 자식을 얻게 해 달라는 소원을 간절하게 빌곤 했다. 그렇게 백일을 작정하고 다닌 기도가 50일이 되었다.

“여보, 부인. 내일 새벽은 백일의 절반이 되는 날이오. 가고 오는 길은 그만하면 이제 익숙하게 밭에 익었으니 내일은 나 혼자 한번 시험 삼아 다녀와 보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보이지 않는데 왜 고집부리세요?”

아내는 필쩍 뛰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이튿날 남편을 깨우려고 보았을 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꺾까 봐 혼자 나간 게 틀림없었다. 아내는 부랴부랴 남편 뒤를 쫓아 뛰듯이 쟁걸음을 놓았다.

“아니 이 양반이 어디루 간 거야?”

겁이 덜컥 났다. 언제나 다니던 길 어디에도 남편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대로 내쳐 관음사까지 줄달음을 쳐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새벽에 나간 남편이 돌아온 것은 점심 때가 훨씬 지나서였다. 자기 밭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동네 청년의 등에 업혀서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죠?”

아내가 놀라서 남편을 안방에 누이고 엮고 온 청년에게 물었다. 남편은 그제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검장산에 나무를 하러 가느라 여우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바위 밑에 쓰러져 있더라구요. 가까이 가 보니 이 양반이었어요. 아마 벼랑에서 떨어지며 굴렀던 거 같아요.”

동네 사는 아는 청년이었다. 남편은 팔다리를 주무르고 물을 뿌리며 몸을 흔들며 대자 겨우 눈을 떴다.

“여보,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미안하오. 임자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대충은 보인다는 생각에 혼자 나섰다가 그만 산길을 잊어먹고 비틀대다가 아차 순간 깔끄막 뒷길에서 굴러 이 지경이 되었지 뭐요?”

“뼈를 다친 건 아니구요? 팔다리를 오므리고 펴 보세요. 무사한지?”

“엉덩이가 좀 아플 뿐이오. 헌데 어떤 고마운 분이 날 집에까지 데려다주었지?”

그러자 아내가 누운 남편의 발치에 앉아 있던 청년을 가리켰다.

“이 총각이에요. 나무하러 가다가 쓰러진 당신을 보고 엮구 왔어요.”

“고맙네.”

아픔을 참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청년은 발치에 앉아 있는데 자기 머리 위쪽을 더듬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이 어디여?”

“안 보여요?”

놀라서 아내가 외쳤다.

“으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상해. 희미하게라도 얼보였었는데……. 이상해! 전혀 안 보인다구.”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당황한 아내가 부엌으로 가더니 베수건에 물을 적셔 그걸 가지고 들어와 남편의 눈자위를 깨끗이 씻어 주고 냉수로 눈을 씻어내 주었다.

“자아, 이제 눈을 번쩍 떠 보세요. 보이죠? 내 얼굴 보이죠?”

“…….”

“왜 말이 없어요? 네?”

“……안 보여. 나 완전히 봉사가 된 것 같어.”

“자 장님! 봉사?”

울부짖듯 아내가 외치더니 남편의 몸을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당신이 봉사가 되다니! 그럴 수는 없어요. 아아으흑!”

아내는 통곡을 시작했다.

## 관음보살의 성덕<sup>聖德</sup>

남편은 그 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되찾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 버렸다. 아내는 누구보다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운명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체념하고 말았다.

장님이 된 심학규는 아내가 별어 오는 것으로 생활했지만 그렇게 궁색하게,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다. 아내인 광씨 부인은 부지런하고 남편 잘 받들고 온갖 샅일을 다 하여 동네 안팎에서는 반듯한 부인으로 소문이 났다.

광씨는 마을 이웃의 굶은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품을 팔았고 농사철이 되면 밭일 논일 가리지 않고 나다녔으며 샅빨래며 떡치기며 술 빚기 등등에 샅바느질까지 못 하는 게 없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혼수로 만들어 가는 그 많은 혼사 집 옷들도 잘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었다. 광씨 부인은 그 같은 일을 하루 한 날 쉬지 않고 얻어다가 했으며 품삯을 받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여 조상

제사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고 남편을 잘 받들었다.

특히 남편인 심봉사가 장님이라 하여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보아 한 번도 매 절고 구겨지거나 해진 옷을 입혀 내보낸 적이 없었다. 깨끗한 동정이 달린 하얀 두루마기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양태 접시갓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를 두드려 가며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고 손끝 야무진 그녀의 소문은 동네 안은 물론이고 먼 동네에까지 소문이 나서 일 맡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비록 두 내외만 살고 있는 외로운 집안이라도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어느덧 심학규는 40이 넘어갔다. 아내에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심봉사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소리가 간단없이 흘러 나오곤 했다. 아내가 눈치를 채고 남편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근심이 생겼는데 자주 한숨을 쉬고 그러지요? 오늘은 꼭 사연을 들어야겠으니 말씀해 주세요.”

“근심은 무슨 근심이 있다고 그러시나? 아무 일도 없어요.”

“얘기하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투전판 들락이며 화투짝 만지고 도박에 미쳐 허리가 휠 만큼 노름빚을 진 것도 아닐 터인데 대체 왜 그러느냐구요?”

아내의 채근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지 심봉사는 또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여보게 부인! 나야말로 당신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지.”

“무슨 말을 하시려구 그러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게. 장님이 된 나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밥

만 축내며 당신 신세만 지고 살기는 해도 정말 나처럼 내지덕(內子之德)을 입어 행복 누리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해. 세상에 많은 부부가 살고 있지만 우리 내외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목구비 멀쩡하고 밝은 두 눈 가지고 살면 뭐하는가? 쌍가마 속에 불행은 더 있다는데. 헌데 마누라는 무슨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에 나처럼 앞 못 보는 봉사와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해 가며 살아 주는가. 나야 당신 덕에 편하지만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네그려.”

“새삼스럽게 왜 이러세요? 부끄럽게.”

“편하게 살면 그러나 보지? 말 타면 견마(緇馬)잡이 하인을 부리고 싶다고. 복이 터지니 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요. 더 큰 복이라면 슬하에 자식 하나 달라는 것이요. 내 나이 벌써 부러진 팔십인데 아직도 혈육 한 점 없으니 조상님 대할 면목이 없구려. 조상님 제삿날이 되어도 밥 한 그릇 물 한 대접 떠 놓을 자식이 없으니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혀 한숨만 나오는 구려.”

심봉사의 자탄하는 소리가 계속되자 부인은 말을 받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장님 남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른 것이 없어 아픈 가슴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왜 말이 없소? 응?”

심봉사는 아내의 거친 손을 더듬어 잡았다. 손등이 축축했다.

“울고 있었구먼? 눈물 씻어 낸 손등이여.”

“울긴 누가 울었다구 그래요?”

“아이고 주책이지. 내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 가지고 당신 마

음만 상하게 했나 보네.”

“아니에요 나 역시 편할 리 없지요. 남의 소중스런 가문에 들어와 대를 이어 주지 못해 조상님들이 봉제사奉祭祀 져밥도 못 얻어 자시게 하니 머느리로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요 쫓겨나도 썩 칠거지악七去之惡 중 하나인 걸요.”

“너무 그러지 마소. 자식 못 낳는 게 어찌 자네 혼자 책임인가? 나에게도 절반 책임은 있는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말게. 아랫말 칠복이 마누라는 오십에 아들 낳았다고 동네잔치 했잖는가? 자네가 어디 오십인가 육십인가? 노력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낳을 수 있으니 희망을 가져 보세. 그러구 아들 점지하는 영험한 곳이면 금강산 팔만구암자八萬九庵子라도 찾아다니며 간절히 빌어 보세.”

“그래요 까짓 팔만구암자인들 못 가겠어요? 빌자구요.”

두 내외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처를 찾아 자식 낳기를 빌기로 했다. 심봉사야 남는 것이 시간이지만 부인은 하루가 항상 모자랐다. 온갖 샅 일을 얻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을 몰아서 하고 틈을 내어 남편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다녀야 했다.

장님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심봉사는 과거시험이라도 보아 퇴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워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여 글 줄이나 알고 세상 견문見聞이 좀 있었다.

“성덕산 관음사에 가서 불공을 드릴까요?”

아내의 말이었다.

“그러세. 옛날 성덕聖德이란 처녀가 있었는데 낙안포樂安浦에 갔다가 홀연히 자기 앞으로 바다를 가르며 다가온 배 안에서 금동金銅으로 된

관세음보살상을 얻게 되었다지 뭐가. 그래서 성덕 처녀는 이거야말로 부처님 공덕으로 백제 땅, 거기서도 곡성 옥과 일대의 중생들을 제도濟度하시라는 큰 뜻으로 알고 관음상을 모시고 성덕산 골짜기로 들어와 절을 세웠다네. 그게 관음사야.”

“처녀가 소원하니 관세음보살이 현신하고 소원을 들어주셨네요. 영험한 절이네요. 우리도 가서 빌고 소원하면 자식을 점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유식해요? 모르시는 게 없이!”

“어허, 흐흠. 한 군데에만 가서 빌지 말고 영험이 있다면 가리지 말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보세.”

“여러 곳이라니요?”

“우리 고향 곡성에도 좋은 절이 여럿 있지. 월봉리에 가면 오래된 도림사道林寺란 절이 있지. 신라 진평왕 왕비였던 선덕왕후가 창건한 절인데 화엄사에 있던 원효대사가 오자 온 산에 갑자기 풍악이 울려 그때부터 산이름을 동락산動樂山이라 했다네. 그뿐이 아니지. 죽곡에 가면 신라 경덕왕 때 세 사람 신승神僧이 창건했던 태안사泰安寺가 있네. 우리나라 불교에는 선禪·교宗 양종兩宗이 있지. 쉽게 얘기하자면 선종은 참선과 고행수도修行修道를 앞세우는 종파인 반면 교종은 교리를 중히 여기고 중생제도를 앞세우는 종파라네. 태안사는 우리나라 선종불교가 처음 탄생한 유서 깊은 절이야. 이 절에 가면 보물이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사바라가 있네. 바라는 징처럼 생긴 건데 그걸 들고 쨍쨍 치면 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는데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 말씀이 온 천

지에 올려 퍼지기를 소원하는 춤일세. 그 대바라는 조선조 태종 때, 효령대군이 세종대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제작하여 하사한 것이라네. 그 바라 앞에서 빌면 다 소원 성취된다는구먼.”

“에구머니나, 그럼 거기 가서도 빌어야겠네요.”

“그뿐 아니야. 구례 화엄사에도 한번 가 보세. 화엄사는 백제 성왕 때 연기조사란 분이 세운 절인데 절 앞에 108계단이 있고 계단 꼭대기에 네 사자가 네 귀퉁이를 떠받치고 있는 3층 석탑과 석등石燈이 있는데 이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네. 거기 가서 빌어도 만사 성취된다는구먼. 영암에도 영험한 절이 있지. 월출산 밑에 있는 도갑사道甲寺란 절이지.”

“아이구 인제 됐어요. 조선 팔도 이름난 절을 다 가자는 거예요?”

“어허! 말이 그렇다 그거지. 그래도 그중에서는 성덕산 관음사 관음보살님이 제일 영험하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관음사에 가서 매달려 보세. 관음보살을 모신 절은 유사 이래 그 절이 최초이고, 관세음보살은 우리나라 모든 중생들이 제일 의지하고 따르며 제일 많이 도와 달라고 이름을 부르는 보살님이시. 너그러우셔서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닌가? 우리한테도 틀림없이 자식을 점지해 주실 걸세.”

심봉사 내외는 마침내 관음사에 가서 일단 3칠일 기도를 올리기로 하고 준비를 한 후에 성덕산으로 향했다. 부부는 관음보살 앞에 엎드렸다. 이들이 왜 기도를 하러 왔는지 주지인 지공스님이 진지하게 듣더니 알려주었다.

“하루 일천 배부터 올리시오. 삼 일간 삼천 배를 쉬지 말고 올리면 보살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오.”

“알겠습니다.”

삼천 번의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빌라는 것이었다. 온갖 일을 다 맡아 해 온 부인 꺾이는 몸이 단련되어 쉬지 않고 절을 올리는데 심봉사는 열 번도 못 하고 나 좀 살려 달라며 혈떡였다. 심봉사는 지천을 먹으면서 다시 절을 올렸다. 어찌되었던 삼 일째 되던 날은 밤을 꼬박 새우며 삼천 번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서 부부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잠이 쏟아지고 온몸 마디마디가 아프고 지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다. 잠 속에 빨려들어 갔다. 비몽사몽,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었다. 구름 속에 들어온 듯 사방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눈앞이 밝아지며 오색무지개가 떴다.

“오오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대체 여기가 어딘가? 말로만 듣던 극락인가? 도솔천인가?”

갖가지 기기묘묘한 나무와 꽃들이 들어서 있는데 수정처럼 맑은 물이 그 밑을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광이 비치더니 빛나는 화관을 머리에 쓰고 하얀 너울을 쓰고 순백의 비단 옷자락을 펴리며 다가오는 미인이 있었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 같기도 한 여인이었다.

“아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이 아니십니까?”

그녀의 눈앞에 현신한 여인은 관음보살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보살의 발아래 엎드리며 절을 올렸다.

“보살님!”  
 그녀가 부르자 쟁반 위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여기까지 오다니 힘들었겠다. 네가 원하는 게 이것이나?”  
 선녀로 환생한 관음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깊고 깊은 바닷속 같은  
 색깔의 아름다운 청옥 구슬을 품에서 꺼내어 건네주었다.  
 “어찌 이렇게 고귀한 구슬을 저같이 미천한 계집이 품속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 구슬을 받지 못하겠다고 사양하고 또 사양했는데 그 구슬  
 은 저절로 자기 품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보살님, 고맙습니다요.”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 그 선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선녀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품속에 든 구  
 슬이 빠져 땅에 떨어지려 하자 그 구슬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다가 눈을  
 떴다.  
 “아아, 꿈이었구나. 내 구슬!”  
 구슬을 찾아도 없었다. 쓰러진 채 깊은 잠에 떨어져서 꿈을 꾸 그녀  
 는 역시 자고 있던 심봉사를 흔들어 깨웠다.  
 “히! 아깝다. 아깝다!”  
 잠에서 깬 심봉사도 뭔가 모르게 몹시 아쉬워하며 두 팔을 벌리고 어  
 린애를 받아 안은 듯 껴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이 든 뒤에 이상한 꿈  
 을 꾸었다고 서로 말했다.  
 “무슨 꿈인데요? 먼저 말해 보세요.”  
 “아니야. 당신 꿈 얘기부터 해 봐. 궁금하구먼.”

그러자 부인 곽씨는 도솔천 극락에 갔다가 선녀로 환생한 관세음보  
 살 부처님을 만났다는 걸 이야기했다.  
 “선녀? 선녀라구? 그래 그 선녀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나 하면  
 서 커다란…….”  
 “아니, 당신두 나하구 똑같은 꿈을 꾸셨단 말예요?”  
 부인이 놀라서 부르짖었다.  
 “똑같다구? 그 선녀님한테 뭘 받았지?”  
 “커다란——”  
 “청옥?”  
 “맞아요. 그 청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응답 주셨네요. 태몽 같  
 애요.”  
 “태몽! 그렇지. 관음보살님이 선녀가 되어 아기를 안겨 주셨구먼. 감  
 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심봉사는 아내의 두 손을 찾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말을 전해들은 지공스님도 그건 분명 태몽이라 해 주었  
 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태기가 찾아와 두 내외를 더욱 기쁘게 해 주  
 었다.  
 “임신 초기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라고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  
 네. 제발 샅일은 반으로 줄이고 힘든 일은 애 낳을 때까지 하지 마소. 끼  
 니때 밥도 내가 함세.”  
 심봉사의 말에 부인이 웃었다.  
 “아무것도 못 보시는 소경이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한다구요? 마당에



있는 닭들이 웃어요.”

“이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구먼. 내 두 손이 내 두 눈이여.”

“염려 마시고 진정하세요. 애를 가졌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가벼운 일도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오히려 산부나 애기한테 안 좋대요. 하던 대로 일도 하고 몸을 움직여 줘야 애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답니다. 그건 그렇구 전 걱정이예요.”

“뭐가 또?”

“딸이면 어찌지요? 늦게라도 자식을 보려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어야 하잖아요?”

“에헤 이 사람아. 애만 생기게 해 주면 감지덕지한다구 해 놓고서 아들타령만 허구 있으면 삼시랑 할머니가 좋아할 듯싶은가? 아들이면 어떻게 딸이면 또 어떤가? 순산하기만 하소 제발.”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다는 것이 심봉사의 진심이었다.

## 청이 탄생과 곱씨 부인의 비극

그토록 무뎠던 늦여름이 가고 처서<sup>處暑</sup>가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초가를 빛이 완연해졌다. 곱씨 부인이 임신한 지도 어느덧 육개월이 넘어가 아랫배가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애를 가지기 전에는 온갖 힘든 일을 다하면서도 심하게 앓아누워 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임신한 뒤부터는 맥을 못 추고 눕는 날이 많아졌다.

“제발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많은 샅일은 좀 그만두라구. 일을 너무 하니까 자꾸 기운 없어 쓰러지는 게 아니냐구?”

심봉사는 아내를 원망하면서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애 낳으면 그게 다아 돈이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 놓아야 잘 키우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 되겠소. 의원님을 내가 모셔 오리다. 약을 써서 고칠 병이라면 당장 약을 지어 와야지?”

심봉사는 만류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와 마루 귀퉁이

에 세워 놓은 지팡이를 찾아 들고 의원인 이 초시 집을 찾아갔다.

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금천 시냇가이고 냇가 위에는 흙다리가 놓여 있었다. 소나무로 된 기둥들을 물속에 열기설기 세우고 그 위에는 다져진 흙으로 덮어 길을 내어 만든 다리였다. 심봉사가 사는 도화촌에서 안마울로 들어가려면 건너야 하는 다리이기도 했다.

“심 거사께서는 어디 출타 중이신가?”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목소리만 듣고도 심봉사는 그게 누군지 알았다. 깜짝 놀란 심봉사가 뒤돌아섰다.

“아이고 이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급히 모시려고 나선 길인데 여기서 뵙는군요.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요?”

“목사동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 다녀오는 길일세. 헌데 무슨 일로 날 기다렸나?”

“저희 집에 가주시지요. 마누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봉사는 의원을 데리고 뒤뚱거리며 앞장서 집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간신히 일어나 앉은 심봉사 처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다.

“주, 중병은 아니겠지요? 의원님.”

애가 타서 심봉사가 물었다.

“으음, 맥이 안 잡히는구먼. 맥 뛰는 게 느리고 약해. 몸도 차갑고. 어떠신가, 평소에도 어지럽고 쉽게 피곤하고 자꾸 까부라지고 그러잖는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애 갖기 전에는 덜 그랬는데…….”

심봉사 처는 간신히 대답을 했다.

“저혈증(低血症)일세. 이진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유전병이라 할 수

있지. 집안 내력이야. 고혈증 환자는 심장이 마구 뛰니까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많아져 얼굴이 붉고 숨이 차고 그러다 혈관이 막히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혼절하기도 하는 병일세. 저혈증은 그 반대야. 심장이 약하니까 저혈증세가 나타나 원활하게 피 순환이 못 돼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나중에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력증에 빠지는 무서운 병일세. 임신하기 전에는 젊으니까 굶은일을 많이 하여 고단해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만 임신한 뒤에는 버티 낼 힘이 없어 그러는 걸세.”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처 좀 살려 주십시오.”

“심폐(心肺)를 보충해야 하니 약을 지어 줘세.”

마침내 이 의원이 지어 주는 약을 달여 먹고 심봉사 처는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의원이 말한 그 저혈증이 나온 건 아니었다.

이윽고 눈보라가 치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야에는 봄기운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종종 함박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이른 아침 심봉사는 측간에 가기 위해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구석에 세워 둔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쟁이에 측간이 있었다.

소피를 보고 나서 골마리를 추키고 바지를 바로 입은 다음 부엌 쪽으로 더듬거리며 부엌 정지문 앞에 서서 귀를 세웠다.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났나? 이상하네?”

이맘때쯤에는 언제나 달그락거리며 처가 아침밥을 해야 하는데 조용하기만 했던 것이다.

“어디 또 아파서 못 일어난 거 아닐까?”

급한 마음에 마루로 올라 기어가서 방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갔다.

“왜 그러지? 왜 못 일어났어? 어디가 아픈 거요? 응? 어디 손 좀 쥐 봐.”

처의 손을 더듬어 잡은 심봉사는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운가? 단단히 고장 났구먼. 그러게 새 밥을 지어 먹어야 한대구 일렸거늘 말을 안 듣고 엿저녁에 서그럭거리리는 찬밥뎡 이를 꾸역꾸역 다 먹을 때부터 내 알아봤네. 급체를 했구먼그러. 급체에는 왕소금 한 주먹만 입안에 털어 넣으면 쇠악 내려가는 건디 왕소금이 있어야 말이지? 옹거니 바늘로 엄지손톱 밑을 따면 되겠구먼. 예헤! 내가 당달봉사라는 게 한이로구나. 앞을 볼 수 없으니 바늘로 딸 수도 없네.”

“정신 사나워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구 얼른 윗집에 가셔서 딸고만이 엄마 좀 불러다 주세요. 급한 일이라구요.”

“뭐가 그렇게 급헌디?”

“암만해도 애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뭐이라? 해산기가 있다구? 벌써 그렇게 되었나? 그러닌께…….”

심봉사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듯 두 손 바닥을 짹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며 셈을 했다.

“아이고 이 달이 산달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관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자식이 나온다네요. 고맙습니다.”

심봉사가 기뻐서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구 나 죽네. 뭐하는 거래요? 빨리 다녀오지 못하구서?”

“가네, 암. 지금 가네.”

“가실 때는 부엌 아궁이에 뜨끈하게 불 좀 지피세요. 장작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울안 굴뚝 옆에 쌓아 놓았어요. 밑에서 빼면 와그르 무너지니까 조심해서 윗단부터 하나씩 내려서 옮기세요.”

“알았네. 다녀옵세. 진통이 심해도 참고 있어.”

심봉사는 혼이 나가서 안방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게 윗방 문을 열고 나갔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너무 좋기도 하구 불안하기도 해서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는구나.”

심봉사는 마당으로 내려서서 겨우 지팡이를 찾아 들고 사립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 다음 윗집으로 오르는 골목길을 가다가 급한 김에 큰 소리로 불렀다.

“딸고만네 애기 어머니! 딸고만네요! 기신가요?”

그러자 짙신 끄는 소리와 함께 딸고만네가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쩐 일이세요? 왜 날 찾지요?”

“나온답니다.”

“누가요?”

“애가 나오려구 한답니다.”

“에그머니나! 해산 기미가 있나 보네. 바로 갈 테니 거사님은 부엌에 불 좀 지피고 더운물 좀 데워 놓으세요. 그러시구요 깨끗한 짚을 추려서 안방 윗목에 놓으시고 정화수 올리고 삼신할머니께 순산을 비세요.”

“예.”

심봉사는 급히 그 부인네보다 먼저 오느라 자빠지기도 했지만 집 안

으로 들어오자 나무청에 쌓인 벚단에서 짚을 빼내어 지지분한 껌테기를 훑어 내고 잘 추려서 엮구리에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지 그의 처는 비명소리를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딸고만네 댁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좀 참아요. 아궁이에 붙은 지뽕고 물도 데우고 있네.”

심봉사는 다시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를 떠서 엮지름까봐 조심하며 안방으로 들어왔다. 뒷목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절을 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 전에 비나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좋으니 무사히 순산하게만 하여 주십시오. 비나이다. 관음보살님 전에 비나이다. 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식이니 보살님이 지켜 주시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만 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비손이 끝나자 애를 곧 낳을 것 같으니 어서 안방에서 나가라고 딸고만네가 말했다. 심봉사는 뒷방으로 건너가 방문을 닫고 처가 애 낳기만 빌고 기다렸다.

숨넘어가는 듯한 아내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덩달아 심봉사의 심장도 쿵쾅거리며 커졌다.

‘아이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나을 것 같다. 일각<sup>一</sup>이<sup>二</sup>여삼추<sup>三</sup>如<sup>四</sup>秋라더니 이걸 두고 생긴 말이로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간단없이 이어지고, 조산<sup>助産</sup>하는 딸고만네가 함께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조금만 더, 더 더 힘을 쓰면 돼! 더, 옹지!”

그러자 애기 울음소리가 뒤를 이었다.

“으양!”

“아이고 욱봤네.”

땀줄을 가르고 산후 처리를 하고 나자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아내가 묻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이쁘게 생긴 공주님일세. 공주님이 나왔어.”

“딸이라구요?”

실망했는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낙담의 빛이 실렸다. 그때 심봉사가 큰기침을 두어 번 하고 나서 뒷방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가? 첫 딸은 살림밋천이라 하지 않던가? 정말 욱봤네. 그러구 고맙고. 아이고 뒷집 댁도 욱보셨네요. 고맙습니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사립문에 삼줄을 매야 하는구먼.”

심봉사는 안방을 나와 부엌 옆에 딸린 작은 헛간으로 들어갔다. 짚더미에서 짚을 골라 새끼줄을 꼬면서 붉은 고추를 찾다가 스스로 이마를 쳤다.

“내 정신 좀 봐라. 붉은 고추는 아들 낳았을 때나 매다는 거지 딸이든 그게 아니지. 숯덩이를 매다는 거지. 그러구 새끼줄도 바른쪽이 아니라 왼쪽 새끼줄을 꼬면서 숯덩이를 꿰어 매다는 것이렷다?”

부엌에 들어가 타고 남은 숯덩어리 몇 개를 골라 새끼줄에 매달았다. 그런 다음 그걸 들고 사립문 앞에 나와서 줄을 가로지기로 매달려 했지만 앞이 안 보이는 장님으로서는 힘들기 이를 데 없었다. 어디에 걸어

야 될지 몰라 한동안 껴켜거리고 있는데 마침 누군가 지나가다가 다가왔다.

“봉사님 댁에 경사 났나 보네요?”

“누구신가?”

“복실이 애비예요. 줄을 놓으세요. 내가 달아 드릴 테니까.”

간단하고 손쉽게 삼줄을 매달아 주었다.

“되있는가?”

“그럼은요. 보기 좋습니다. 저 같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치사를 한 뒤에 보이지도 않는 두 눈을 크게 뜨고서 매달린 삼줄을 대견하게 쳐다보며 병짓거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이 점지해 주셔서 딸자식이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에 받아 주는 일을 다 끝낸 딸고만네가 자기 집으로 가려고 마당으로 나왔다.

“삼줄 매달았구만요? 그렇게 좋으세요? 입을 못 다무시니?”

“늦발에 딸자식을 얻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소?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첫 국밥은 내가 지어서 안방에 삼신상은 차려 놓았고 산모한테도 국밥상을 가져다주었으니 들어가셔서 먹는 거 챙겨 주세요.”

“고마워요. 살피 가세요.”

심봉사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미역국물 떠먹는 소리가 들렸다. 심봉사는 그 앞에 바투 앉았다.

“많이 먹어야 기운 차릴 수 있고 빨리 젖도 나온다네. 욱봤어. 얼마나 힘들었는가. 가만있자, 우리 애기 어디 있지?”

심봉사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뻗어 애기가 싸여 있는 강보를 어루만졌다. 쥐면 깨질세라 볼면 날아갈세라 얼굴을 건드려 보고 고사리 같은 손을 만지며 자기 뺨에 가져다 댔다.

“내가 장님이라는 게 천추의 한 중에 한이로구나. 금쪽같은 내 새끼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쁜 얼굴을 보지 못하니 말이야.”

심봉사가 한숨을 내쉬자 기운 없는 목소리로 처가 받았다.

“아들이라면 몰라도 그까짓 기집에 얼굴은 봐서 뭘 하세요?”

“어허, 죄받을 소리. 저래서 옛말 그른 게 없다는 거야. 칙간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 맘 틀리고 일 보고 나서 칙간 나올 때 맘 다르다구 말야. 관음보살님 전에 기도 드릴 때는 뭐라 했나?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으니 그저 점지만 해 주시면 여한이 없겠다고 빌어 놓고 놓아 놓으니 딸이라 섭섭하다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쁘고 조신한 딸 하나만 있어도 불효자 아들 열보다 낫다고 하대. 마누라, 애비가 장님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떡하면 그래 애비는 장님인데 저렇게 반듯하고 잘난 절세미인이 그 슬하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우리 딸은 잘 가르치고 잘 길러 보세.”

“그래야죠.”

치는 소리 없이 맺힌 눈물을 짖어 내고 다시 누웠다. 그런데 문제는 심봉사의 처였다. 미역국도 간신히 몇 모금 마시고 밥은 넘기지 못한

채 자리보전을 했던 것이다.

애를 낳은 지 3일이 지나도록 콧수레 부인은 온전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우는 아이에게 겨우 젖을 물릴 정도이고 본인은 음식을 먹지 못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정신 좀 차려 봐. 미음 한 숟갈도 못 넘겨서야 되나? 아이 생각도 좀 해야지? 못 먹으면 젖도 안 나올 게 아닌가. 아이 생각해서 떠먹어 봐.”

“그냥…… 거기 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때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아이가 칭얼거리며 또 울기 시작했다. 심봉사는 깜짝 놀라 강보에 싸인 아기를 들어 안고 흔들며 달랬다.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면 좋으냐? 울지 마라. 아가야. 은자동아, 금자동아 이 예쁜 무남독녀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이구, 신통방통하기두 허지. 울음을 그쳤네.”

그러자 아내가 신음소리를 삼키며 겨우 남편에게 말했다.

“애는 내려놓으시고 어서 한술 뜨세요. 잊지년부터 아침까지 거르시니 그러다 쓰러질까 걱정이예요.”

“무슨 소릴 하구 있나? 삼 일 동안이나 자네가 미음도 못 넘기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먹으라는 건가? 오늘은 의원님을 다시 모셔 오겠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 군불이나 더 때 주세요.”

“알겠네. 부기는 다 빠졌는가? 어디 한번 만져 보세요.”

일어나기 전 심봉사는 아내의 얼굴을 더듬어 찾고 세수 시키듯 쓸어 내리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부어 올랐잖어? 약 한 첩만 달여 먹으면 부기가 짜악 빠지고 입맛이 돌아올 거라고 해서 지어다 먹였거늘 더 붓다니 내 요놈에 가짜의원을 가만두지 않겠어. 몸뚱이도 통통 부었는가? 정말 그 런 거여?”

“…….”

아무 말이 없었다.

“이봐! 이봐! 말 좀 해 봐.”

심봉사가 아내의 몸을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심봉사는 덜컥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못했다.

“어허, 이 사람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네. 이러다 큰일 나는 거야냐? 응? 이보게, 정신 좀 차려 봐.”

갑자기 고열이 생겨 괴롭히자 아내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몽롱하여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거렸다. 당황해진 심봉사는 의원을 모시고 오겠다며 급히 밖으로 나왔다.

심봉사는 뒷집으로 가서 딸고만이네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 청했다.

“알았어요. 제가 산모하구 애기는 지키고 있을 테니 의원을 모셔 오세요.”

“고맙습니다.”

심봉사는 마음이 급하여 몇 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흠다리를 건너 안골로 쟁걸음을 걸어 의원집 앞에 이르렀다.

“사람 살리시오. 의원 나리! 사람이 죽어 갑니다요.”

의원댁 대문 앞에서 소리치자 이 의원이 밖으로 나왔다.

“심맹인 아니시오? 부인이 위급해졌다는 거요?”

“예, 어서 가 주시오. 침약을 달여 먹으면 부기도 빠지고 쾌성한다 했는데 더 부어서 지금 인사불성입니다.”

“어허, 그럴 리가.”

의원과 함께 심봉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아내는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윗집 부인네는 그새 정순이네 엄마를 불러다가 보채는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정순이네도 애 낳은지 초이레밖에 안 되어 젖이 잘 나오고 있었다. 심봉사는 돌아앉아 젖을 먹이고 있는 정순이네 등 뒤에 대고 고맙다고 치사했다.

## 먼저 떠난 곱씨 부인

진맥을 다하고 나서 이 의원은 가지고 온 비상약을 꺼내 주고 입을 열었다.

“붓는 건 일시적인 증상이고 내일쯤이면 다 가라앉을 걸세. 이 환약을 세 번에 나누어 먹이도록 하게. 정신이 돌아올 거야. 그렇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푹 쉬도록 해야 하네. 저녁에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면 내가 탕약을 지어서 보내 줄 거여. 먼저 기운을 차려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네. 원래부터 저혈증 증세가 있는데 출산을 하느라고 기와 힘이 다 쇠진되는 바람에 인사불성이 된 거여. 내일이 고비일 걸세. 잘 견디고 버텨서 힘을 찾으면 점점 좋아지겠지만 힘을 찾지 못해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네.”

이 의원은 돌아갔다. 그런데 이튿날 밤이 되었는데도 심봉사 처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부인과 함께 사흘 동안 심봉사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지쳐 쓰러질 법도 한데 사정이 급박해서인지 버티고 있었다. 의

원 말대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심봉사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했다.

“마누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라고! 마누라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자네가 죽고 나면 나는 하늘 아래 혼자가 되는 거여. 혈혈단신, 친척 하나도 없으니 나 혼자 이제 세상에 나온 우리 딸아이하고 둘만 살아가야 하네. 앞을 보지 못하여 마누라 덕에 연명하고 살아온 난데 자네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돈 벌고 살림하고 짓먹이 딸을 키운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지 심봉사는 그만 아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 흐느낌은 곧바로 통곡으로 변했다. 얼마 후 심봉사는 안고 있는 아내의 몸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놀라서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애기 아버지!”

“어? 깨어났어?”

“숨이 가쁘고 막히니까 그냥…… 뉘어…… 놓으세요.”

“그러지. 그럼.”

편안하게 눕자 심봉사 치는 가쁜 숨을 길게 쉬었다.

“지금도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사지가 늘어지고 그러나?”

“네. 죄송해요. 어린 저를 만나 이날 입때 고생만 시켜드리고 먼저 가야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무슨 고생을 했어? 마누라 자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았지. 마누라만큼 착한 아내가 세상천지 어디 있는가? 앞 못 보는 병신 만나 나 하나 거두느라고 온 동네 샅바느질에 온 동네 이

불 빨래 다 해 주고 힘든 일 곳은 일,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그뿐인가? 여름이면 덥다고 안동삼베 잠뱅이로, 겨울이면 춥다고 솜바지 솜저고리 입혀 지팽이 들려 내보내 주고 먹고 입고 쓰는데 불편이 없게 해 준 건 내가지덕인 임자 덕이 아니고 누구 덕이겠나? 게다가 사십 넘어 관음사 보살전에 빌어 그토록 두고 싶어하던 청옥 같은 딸도 얻었는데 죽다니 말이나 되나? 딸아이 크는 것을 오래오래 보면서 천정배필 사위 만나 오순도순 사는 걸 보고 살아야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게 아닌가?”

“정말 눈이 안 감겨 죽을 수 없어요. 나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 그만이겠지만 앞 못 보는 당신 일가친척 하나 없는데 누가 있어 조석진지 챙겨 주며 철철이 옷인들 챙겨 입혀드리겠어요? 오직 천지간에 의지할 건 지팽이 하나밖에 없는 팔자이니 보이지 않아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구렁이에도 빠지고 시냇가 흙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란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자기 한 몸 가누지도 못하면서 어린것 포대기에 싸서 안고 배고픔에 못 견뎌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밥 한술 달라고 사정하고 동냥젓 좀 먹여 달라고 거지 중에 상거지 신세가 되어 구걸하는 모습이 선연해서 눈을 못 감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야 해요.”

“왜 이러나? 죽는 사람처럼.”

“당신 말대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앞 못 보는 봉사 남편에 핏뎅이 어린 자식 놈두



고 떠난다니? 말 같은 소릴 허라구.”

심봉사는 화가 나서 외쳤다.

“내가 잠시 잠깐 정신이 들었지요?”

아이가 울자 그녀가 힘겹게 젖을 물리며 말을 이었다.

“저승에 가서라도 우리 딸 잘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꿈속에 청옥을 주셔서 점지된 딸이니 이름은 청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심봉사는 대답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청이 아버지! 내 말 새겨들으세요. 건넌말 서당 댁에 돈 열 냥 맡겨 두었으니 나 죽으면 찾아다가 초상비용으로 쓰시고 그러구도 남으면 용돈으로 쓰세요. 헛간에 있는 항아리 열어 보면 쌀 서 말도 있어요. 출상할 때 상두꾼들 밥이나 해 주고 남으면 아껴서 양식이나 하세요. 그러구 안방 농 속에 보면 천덕산 밑 아래뜸에 사시는 박진사 댁 어른 관대<sup>관대</sup> 바느질 맡은 것이 있어요. 그 옷 흥배<sup>흥배</sup>에는 학을 수놓는 것이라 수를 놓았는데 미처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것 가져다 드리고 죄송스럽다고 사죄하세요.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니 바느질값은 받지 마세요. 그러구 뒷골에 사는 양님이 어머니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니 당신이 찾아가도 흘대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청이 배고파 보채면 안고 가서 양님이 어머니께 맡기세요. 그 집 아이도 인제 돌이 조금 지났으니 젖은 잘 나올 거예요. 아아 그러구. 그러구…….”

숨이 차서 괴로워했다.

“힘들어하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릴 하는가? 미음이나 드쇼.”

“그러구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농 안 왼쪽에 보면 배넛저고리가 두

벌 있을 거예요. 이틀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입히세요. 그 옆에는 기저귀가 여남은 개 쌓여 있을 거예요. 수시로 만져 보고 오줌을 누었는지 변을 보았는지 살펴서 제 때 제 때 갈아 채우세요.”

“숨차 하면서 뭘 말이 그리 많은가? 어렵히 알아서 할라구.”

그때 어린애가 또 보채자 심봉사 처는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물리며 뺨을 비볐다.

“아이구, 불쌍한 것. 이걸 두구 내가 어떻게 눈을 감는단 말인가? 청아, 청아, 불쌍한 우리 아가. 에미를 잘못 만나 세상천지 짓도 못 얻어먹고 천대받고 크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청이 아버지!”

흐느껴 울다가 심봉사를 불렀다.

“왜 그러나?”

“반달이 문 열고 속에 보면 옷이 두 벌 있을 거예요. 한 벌은 설빔으로 만들어 놓은 사내아이 옷이구요. 또 한 벌은 치마저고리에 배자를 붙인 여자에 옷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어 각 한 벌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청이가 자라서 아장아장 걷게 되면 제가 만든 한복을 곱게 입혀 그 아이 손을 잡고 제가 묻힌 무덤으로 데리고 와 모녀상봉하게 해 주세요. 죽어서라도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지 보아야 하니까요. 그러구 청이 아버지. 우리 청이 장님이 아버지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본데 있고 반듯하게 잘 자란 처녀라고 칭찬을 받게 잘 키워 주어야 해요. 아아 더는 힘에 부쳐 말을 못하겠어요.”

심봉사 처는 다시 기진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괴로워했다.

“안 되겠어. 의원을 다시 모셔 와야겠어.”

다급해진 심봉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의 처가 가랑이를 잡았다.

“가지…… 마세요.”

“얼른 다녀오리다.”

“마지막 같어요.”

처의 눈이 감졌다. 보이지는 않아도 뭔가 섬뜩함을 느꼈는지 심봉사가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임자! 왜 이래? 응?”

그때 아내는 막았던 숨을 길게 내쉬고 혈떡였다.

“처, 청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기 무릉촌에 사…… 사시는 장승상덕 대부인에게 찾아가 내 맡겨 놓은 돈을 달래면 언제라도 내줄 거예요. 십 년 넘게 모은 돈이랍니다. 배…… 백 냥이에요.”

“백 냥?”

심봉사는 잘못 들은 것처럼 놀랐다. 백 냥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물정에 어두운 그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돈인지 계산할 수가 없었다.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다.

“이 사람아, 빈 짓이라도 물리게. 청이가 울잖아?”

그런데도 조용했다. 심봉사는 갑자기 무서움증이 씨늘하게 덮쳐 몸을 느끼고 떨리는 손으로 누워 있는 처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애가 울잖아?”

“…….”

“왜 이렇게 손이 차지?”

얼굴을 만져 보려고 손을 놓자 손이 아래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서서히 그녀의 몸이 굳어 가고 있었고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마누라, 왜 이러는가? 어린 우리 청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가? 대답 좀 해 보게. 빈 짓이라도 물려서 달래 보라구, 나 혼자 어찌라구 말이 없나? 마누라야!”

심봉사는 아이를 뉘어 놓고 처의 몸을 흔들며 통곡을 했다. 조용하기만 한 산골마을이라 그 통곡소리는 멀리 퍼져 나갔다.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은 윗집에 사는 딸고만네였다.

“왜 그러세요? 애기 아버지?”

“아 글썄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숨을 안 쉬네요.”

“에그머니나. 일 났군요. 불쌍해서 어떡해? 아가, 아가, 울지 마라.”

그녀는 아이를 빨리 들어 안고 달래며 울먹거렸다.

“이 일을 어찌? 어린 아기 불쌍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부인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애기 엄마 착하게 사신 분이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윽고 얼마 되지 않아 초상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모두 문상을 왔다. 마을 안의 부인네 칠팔 명과 남자 십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변고래? 후덕하고 마음씨 고운 분이었는데……. 짚어 가다니.”

“부지런해서 남 게으른 것도 못 보던 사람이었지. 그나저나 아직 핏덩이 어린것하고 눈먼 아버지 둘이 남아 살아가야 하다니 참 딱하게 되었네.”

“심봉사는 일가친척이 없는 혈혈단신이야. 초상 일을 거들어 줄 만한 친척도 없네. 어이 이씨! 우리가 맡아서 초상은 치러 주세요.”

“그러지요.”

몇몇 남자들과 딸고만네 등 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상 치를 계획을 의논했다. 그들은 우선 문상 온 동네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십시일반으로 초상 일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달라 했다.

“삼베 남은 거 있으면 삼베를 가져오시구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가져 오시구 반찬이 있으면 반찬도 가져오시고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초상은 잘 치를 것 같습니다.”

심봉사 내외는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동네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주었다. 심봉사는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남기고 간 닭 냥을 장례비용으로 내놓고 쌀 한 말도 내놓았다. 그리고 심봉사가 특히 고마워한 사람은 뒷골에 사는 양남이네였다. 어린 청이를 아예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지내겠다고 했던 것이다.

심봉사는 눈감은 아내에 대한 복받치는 설움과 어린 딸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아파 출상하기 전날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실신하여 누워 있었다. 마침내 3일장(三日葬)으로 치르기로 하여 동네 청년들인 상두꾼들은 마을 공동으로 쓰는 상여를 가져다가 마당에서 짜 맞추기 시작했다.

“창석이!”

초상 일을 다 해 주고 있던 이씨가 창석이란 청년을 불렀다.

“예.”

“산일하러 간 사람은 모두 몇이지?”

“세 명이 갔지요. 이른 아침에 갔으니까 하마 묘자리 구덩이는 다 파 놓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밥은 먹여야 할 텐데?”

“아침 일찍 먹는 대로 지가 지게에다가 아침밥 얻어 가지고 가져다줄 려구요.”

“그러면 되겠구먼. 자, 자. 서두릅시다. 출상(出喪)을 서두릅시다.”

사람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윗목에 누워 있는 심봉사를 일으켜 앉혔다.

“봉사님, 정신 차리세요. 상여도 왔고 입관(入棺)을 해야 출상하지요?”

“헌데 계속 굶으셨는데 힘이 있을까 모르겠네. 한술 뜨시구 입관하실 래요?”

“.....”

“마지막으로 망자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입관(入棺)이라던데 봉사님은 안 보시게요?”

“무슨 말인가? 인사는 해야지.”

심봉사가 힘을 내 보였다.

“밥일랑 그만두구 약주나 한 대접 가져다주게.”

잠시 후 심봉사는 가지고 온 약주 한 대접을 다 마셨다.

“내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가는 마누라는 내 손으로 보내고 싶네. 시신이 어디 있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시신은 아랫목에 누워 있네요.”

심봉사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서 시신을 더듬어 확인했다.

“마누라, 날세.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나?”

시신은 흠이불로 덮여 있었다. 심봉사는 흠이불 자락을 잡아다니며 천천히 울면서 벗겨 냈다.

“우리 청이 에미 몸뚱이를 누가 이렇게 헝겊줄로 칭칭 동여매어 묶어 놓았을까. 어허, 불쌍한 사람아. 마누라, 일어나 보게. 왜 말이 없느냐고!”

심봉사는 아내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그만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입관을 못 하잖아요?”

도와주려고 곁에 서 있던 청년 둘이 심봉사를 말리고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으려 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내 손으로 해야 해.”

심봉사는 울면서 아내의 묶여진 시신을 들어 안아 관 속에 안치시켰다. 관 뚜껑이 덮이고 곧장 마당에 놓인 상여로 운구되었다.

기다리고 있던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일어섰다. 요령소리가 찌렁거리며 출발을 알렸다. 상여는 곧 마당에서 사립문 밖으로 나갔다.

“어히! 어화!”

상두꾼들이 발을 맞추고 요령잡이가 상여 메기소리를 했다.

전라도 곡성땅 도화동에 심봉사 꺾씨 부인

팔팔한 젊은 나이 아깝게 죽었구나.

어히! 어화!

이레밖에 안 된 어린 핏덩이가 잊혀지지 않아 눈도 못 감았네.

어히! 어화!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마누라! 젓맥이 어린 우리 청이는 어떡하랴구 이리 무정하게 떠난단 말인가? 안 돼! 가면 안 돼!”

상여채를 부여잡고 심봉사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상여가 움직이지 못했다. 그 광경을 보고 서 있던 동네사람들이 너나없이 함께 울었다.

“봉사님, 그만 하세요. 상여가 가야지요.”

“안 돼, 나도 함께 데려가주소. 이렇게 눈먼 병신으로 핏덩이 어린것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나도 죽어서 함께 황천에 가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봉사님마저 죽으면 어린 딸 혼자 어떻게 삼니까? 아직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어린것은 어디 가서 젓 얻어먹고 자라겠소? 자, 인제 상여채를 놓으시오.”

심봉사는 그 말에 더 슬피 울다가 겨우 손을 놓았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 험한 길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우리 인생 허무하긴 풀잎 위에 이슬일세  
몇 백 년을 살 줄 알고 걱정 없이 지내다가  
오늘 일을 당해 보니 허망하기 그지없네.

어히, 어화! 어어허 어화!

백년 친구 울지 말고 내말 잠깐 들어주오  
우리 부부 인연 맺고 백년해로하잖더니

인연이 끊어져서 나 먼저 가려니와  
후세상에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살아 보세.

어히, 어화! 어어히 어화!

가오 가오 나는 가오 남을 두고 나는 가오  
가오 가오 나는 가오 동네 여러 어른네들  
오늘 하직하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어히, 어화! 어어히 어화!

## 거렁뱅이 봉사와 딸

아내를 산자락에 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는 얼이 빠지고 하  
도 울어서 목이 쉬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해 기진맥진하여 방 안에 쓰러  
졌다. 얼마 후 누군가 왔는지 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칭이 아버님 돌아오셨어요?”

뒷골에 사는 양님이네 어머니 목소리였다. 심봉사는 마지못해 겨우  
일어나 앉았다.

“예,”

“저 들어가 볼게요.”

양님이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릿한 젖 냄새가 코끝에 전해  
졌다.

“저어 칭이 데려왔어요. 자구 있어요.”

“아이구 고맙습니다. 신세를 저서 어떡하지요?”

“지가 칭이는 잘 돌봐 주겠다고 생전에 칭이 엄마하구 약조를 한 걸

요. 자아, 애기 받으세요.”

“아, 예.”

심봉사가 두 팔을 벌리고 내밀자 양님이네는 포대기에 싸인 아기를 건넸다. 아이는 세상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심봉사는 포대기째 들어 안고 마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동안 내려다보고 아기 손을 잡아 까칠한 자기 얼굴에 비볐다.

“아이구 불쌍한 것!”

심봉사는 다시 흐느꼈다.

“너무 슬퍼 마세요.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황천길인데 조금 먼저 갔다 생각하시구 힘내세요.”

“아참, 죽은 마누리가 양님이 어머니가 오시면 부탁을 하라구 한 게 있습니다요.”

“뭔데요?”

“다 마치지 못해 가지고 있던 싹바느질 옷가지들이 두 개 있습니다. 반닫이 속에 들어 있다고 했소이다만.”

양님이네는 곧 윗목에 있던 반닫이 앞으로 가서 문짝을 열었다.

“찾았어요. 이걸 두고 하는 말 같네요. 벼슬아치 관복인가 봐요. 관대에 학 두 마리를 수놓다 못 끝냈네요.”

“맞아요. 그건 천덕산 밑 아래뜸에 사시는 박 진사댁에서 맡긴 것이라 했어요. 그걸 좀 전해 달라 했구면요. 수를 다아 놓지 못했으니 바느질값은 받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

“아이구 정말 안됐네요. 수놓는 것도 거반 다 끝냈구면. 마누리가 안

됐다고 샅전을 받지 않겠다니 아까워서 어찌나?”

“매사 언제나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 때로는 손해 보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 보내 놓고 보니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청이가 어미 대신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양님이네는 옷가지 두 개를 싸 들고 주인들에게 전해 주겠다고 떠나 갔다. 갑자기 집 안이 텅 빈 향아리 속처럼 되어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왔다. 심봉사는 그 밤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늦잠을 잤다. 애기 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마누라. 뭘 하구 있나? 청이가 울잖아? 젖 좀 먹여!”

“.....”

“어허! 내 정신 좀 봐라. 황천길 떠난 마누라를 왜 찾나?”

심봉사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 애기를 찾아 끌어안고 일어섰다.

“울지 마라. 청아, 착하기두 허지. 뚜욱.”

어르고 달래며 흔들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디 아픈가?”

겹이 덜컥 났다. 내려서 누이고 기저귀를 만져 보았다. 축축했다.

“자, 일단은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겠구나. 이걸 해 봤어가지?”

심봉사는 킁킁거리며 새 기저귀를 겨우 찾아 놓고 냄새를 맡아 가며 젖은 기저귀를 빼내 주었다.

“잘 건 다 썼구나. 우리 딸 냄새도 고소하다. 자, 새 걸 한번 차 보자.”

새 기저귀를 채워 놓고 들어 안자 청이는 울음을 그쳤다. 심봉사는 곧바로 부엌에 나가 늦은 아침을 지어 먹어 볼까 하고 일어섰다. 그리

자 아이가 또 보겠다.

“기저귀 갈아 주어서 개운하다고 울던 걸 멈춘 건 알겠는데 이번엔 또 무어나?”

심봉사는 다시 아이를 들어 안고 다독거렸다.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 칭얼댔다.

“어쩌라고 그러느냐? 답답도 하다. 말을 해 보아라. 내 눈은 보이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 오웬야. 그래 이제야 알겠다.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어젯밤 늦게 젓 얻어먹고 와서 잤으니 다시 배고플 때도 됐지.”

심봉사는 어쩔 줄 모르다가 애기가 배고파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던 뒷골 사는 양님이네 생각이 났다. 심봉사는 거길 찾아가야겠다 마음먹고 야기를 들어 품에 안고서 포대기를 찾아 대고 띠로 묶었다.

이윽고 심봉사는 지팡이를 찾아 들고 사립문을 나섰다. 뒷골을 가자면 뒷산을 돌아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좀 떨어진 곳이었다.

“안 되겠다. 언제 거기까지 가서 젓을 얻어먹는단 말이나? 안마을로 가면 젓동냥을 주는 부인네가 있겠지.”

급한 마음에 심봉사는 가던 길을 버리고 안마을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심봉사가 사는 도화동은 산비탈에 있었는데 모두 다섯 집이 살고 있었다. 거기에 비하여 안마을은 오십여 채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심봉사 집에서 안마을로 가자면 흠다리를 건너야 했다.

개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깊고 큰 내는 아니었지만 징검돌을 놓아 건너다니기에는 깊은 편이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은 것이다. 다리는 소나무 기둥을 ㅂ자로 여러 개 군데군데 세워서 물속에 박아 놓은 다음 다리 위에 갈대를 덮고 흙으로 다져 길을 만든 것

이었다. 그래서인지 다리 위에는 난간이 없었다.

장님이 다니기에는 위험한 다리였지만 심봉사는 눈멀기 전부터 건너다닌 다리라 언제나 잘 건너고 있었다. 심봉사는 흠다리 앞에 이르자 지팡이로 발밑을 두드려 가야 할 길을 작정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는 아직도 보채고 있었다.

“마누라 죽으면 이 신세 이 꼴이 되리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남보기에 창피하게 되었구나. 젓먹이는 배고프다 울고 젓 줄 테니 오라는 데는 없고……. 낫선 데에 가서 입이 떨어질까? 우리 애기 젓동냥 좀 주시오 하는 말이?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이나? 처음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 이제는 날마다 해야 한다.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술만 주십시오. 우리 애기 배고프니 젓 한 모금만 적신하십시오.”

심봉사는 혼자 뇌까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걸하는 일은 바로 코앞에 닥친 사실이란 걸 실감한 것이다.

“그래. 입에서 술술 잘 나오게 연습이나 해 두자. 밥 한술만 주쇼. 젓 한 모금만 주쇼. 배고파서 그러니 밥 한술만 주쇼. 젓 한 모금만 줘쇼.”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수십 번 외웠다. 그만하면 첫 번째 만나는 집으로 들어가 심봉사 말대로 뻥뻥스럽게, 맡겨 놓은 것 내놓으란 것처럼 요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리를 다 건너게 된 심봉사는 큰길을 내쳐 걸었다. 아이는 아직도 칭얼대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착하지 우리 칭이.”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도 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어 거기 신경이 다가 있는 바람에 지금 어디만큼 어느 곳을 지나고 있는지 잊어먹게 되었다.

문득 귤가에 여자와 남자가 웃고 떠드는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가만있자.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구나. 아이구 그걸 따지면 뭘 하는가? 급한데.”

길가 집이어서 뭔가 파는 집같이 느껴졌다. 심봉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웃거렸다.

“저어…….”

다리 건너올 때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닥치고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물어물했다.

“뭘지라?”

남자 앞에서 웃고 있던 여자가 물었다.

“저기요…….”

“저기 어디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했고만요.”

아이를 안고 있어 인사를 했지만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다.

“봉사 같은디? 에이그 꼴딱서니 하구는. 젓맥이를 제대로 엮구 댕기지 어찌케 동자루 안구 가드키 앞에다 매달구 있디냐? 하하하.”

그러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매, 저 양반 심봉사 아녀? 마누라 죽었다더니 당장 티가 나는고만 잉? 애기 붙잡혀서 어찌야 쓰까? 잉? 여보쇼 봉স্য양반!”

심봉사를 불렀다. 그제야 그 목소리 주인을 알아차렸다. 주막을 차리고 있는 주모, 칠성이네였다. 주모도 십 수년을 같은 주막에 살고 있어서 심봉사도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왜요?”

“지금 어디 가시는 게라? 애기가 핏덩이고만 젓은 백였소?”

듣느니 반가운 소리였다. 심봉사는 큰소리로 먹일 데가 없어 아직 굶었다고 말해 버렸다.

“오매 오매, 불쌍한 것. 잠시 들어와 보시오. 여긴 주막이라 해장술에 안주거리밖에는 없답니다. 여자는 나하고 이번에 해남에서 와서 여기 나와 함께 있게 된 뺨덕이네하구 돌이 있소만 애기한테 젓 맥이던 시절은 옛날이라 젓이 안 나오는구만요. 잠시만 지달리면 뒷집에 애기 어매가 한나 있음께 내가 싸게 가서 데려올 것이요.”

주모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갔던 그녀가 금방 다른 여자까지 데리고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숨차! 어떤 애기가 있다고 그 난리래요? 오매 저 애어?”

뒷집 애기 어미인 듯했다.

“적선한다 생각하시고 젓 한 모금만 주십쇼.”

심봉사가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매고 있던 띠 안에서 포대기째 아이가 쑥 빠져나갔다.

“아가 먹어 보자. 그렇게 디려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찌케 젓을 물린단 말인가요? 챙피시러워서? 남녀가 유별헌디.”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봉삽니다요.”

심봉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아이 목구멍에서 젓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났다.

“어따메, 애기가 을매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그걸 보고 있던 주모 칠성이네와 뺨덕이네 두 사람이 혀를 찼다.



“봉사님도 아침 굶으셨었구면.”

“아 아니요, 나는 먹었습니다요.”

차마 자기까지 남은 밥 있으면 한술 달라 할 만큼 염치가 없어서 심봉사는 젓을 다 먹고 난 아이를 안고 서둘러 일어섰다.

“애기를 안고 다니지 말고 업어요. 잘못하면 앞으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애를 업혀 주었다.

“고맙습니다.”

“애기 어매가 언제 갔지요?”

칠성이네가 물었다.

“나흘 지났소. 헨디 그건 왜 묻나요?”

“걱정스러워서 그러지요. 밥해 주는 사람은 있고?”

“나하고 내 어린 딸 하고 단 두 식구뿐이오.”

“시상에, 앞도 못 보는 양반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맵길고 그런다 그 말인가요?”

“그래야 될 팔잡니다요.”

“애기 젓은? 시시때때로 동냥질해서 뵈어야 허구?”

“그게 큰일이오.”

“오매, 장차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거지 중에 상거지요 동냥아치 중에 상동냥아치네요.”

옆에 있던 뺨덕이네가 또 깃을 달았다.

“말 좀 가려서 혀! 동냥아치가 뭐가?”

“신세가 그렇잖에?”

“봉사님, 죽은 봉사님 부인네는 정말로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못하는 일 없고 양전하다고 소문난 부인네 아니었소?”

“그랬지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십 년을 동네사람 일해 주고 모은 재물이 상당히 남아 있을 텐데 그 돈 뵈다가 뵈하려고 애낀다요? 집안일 해 주고 밥해 주고 살림해 주는 행랑어머니라도 들이지?”

“그동안 먹고사는 데 다 썼지요. 좀 남아 있다 한들 마누라가 어떻게 모아둔 돈인데 내가 손을 댄단 말이오? 그런 돈이 있으면 아끼고 잘 묻어 두어야지요.”

“애끼다 누렇게 변하게 되는 거구먼요.”

“나 같은 봉사는 한 푼 벌어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 청이가 자라서 시집이라도 간다 하면 무슨 돈이 있어 보내겠소?”

“딸 뵈이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갑니다. 고마웠습니다.”

심봉사는 청이를 업고 주막을 벗어났다.

## 따뜻한 이웃사촌

헛간에 들어간 심봉사는 쌀독 뚜껑을 열고 깨진 바가지를 밀어 넣었다. 죽은 부인이 마련해 둔 쌀 서 말이 들어 있는 독이었다. 밥을 지어 먹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들락이며 한 주먹씩 퍼냈었다.

“허어.”

바가지에 쌀을 담으려던 심봉사가 흠칫 놀라며 깊숙이 팔을 집어 넣고 남은 쌀을 만져 보는데 쌀보다 독 바닥이 더 많이 만져지는 것이었다.

“벌써 이렇게 다 먹었나? 초상 때 한 말을 내놓았었지? 그럼 두 말이 남았겠다? 나 혼자 벌써 두 말 쌀을 다 먹었던 말인가?”

망연했다. 당장 내일부터가 문제였다. 어린 딸 칭이만 젓동냥해서 먹이느라 동네를 헤집고 다녔지 자기 먹을 건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빈 쌀독을 보니 이제는 자기도 동냥을 얻어 연명해 가야 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나는 인제 굶어 죽는구나.”

덜컹 겁이 났다. 그다음 순간 심봉사는 까맣게 잇고 있었다는 듯 바지 골마리 안쪽에 붙어 있는 주머니를 생각했다. 치가 붙여 준 주머니였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나?”

주머니 속에는 닳 낡이 들어 있었다. 마누리가 남겨 준 열 냥 가운데 닳 낡은 초상 비용으로 썼기 때문이었다. 심봉사는 닳 낡을 꺼내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좌우를 살피고 재빠르게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보는 사람 없었는지? 우리 집 헛간에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그러구 저러구 닳 낡이면 쌀이 몇 말일까?”

평생 쌀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아온 심봉사이고 보면 닳 낡이면 쌀이 몇 말인지 몇 가마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돈으로 쌀을 팔아다가 쌀독이나 채우자. 그럼 동냥질하러 다니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청이 모습이 생각났다.

“지금은 병 안 나고 하루하루 잘 크고 있지만 사람 일, 아니 애기 장래 일을 어떻게 무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청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장 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으로 나 먹자고 식량을 산단 말인가? 차라리 그냥 저금하고 구차하겠지만 내가 돌아다니며 구걸해서 먹고살자.”

쌀독을 털어서 마지막 밥을 해 먹고 심봉사는 아예 빌어먹기로 작정

했다. 그때 토방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기세요? 청이 아버지 기세요?”

뒷골에 사는 양님이네 어머니였다. 안방 문을 열며 심봉사가 반가워했다.

“어서 오시오.”

방 안으로 들어온 양님이네는 청이부터 찾았다.

“아이구 잘도 자네? 청이 아버지,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게 뭐지요?”

“죽이에요. 암죽.”

“쌀가루로 만든 죽?”

“청이는 백일이 가까워졌으니까 죽을 먹여도 될 거예요. 젓 나오는 부인 만나면 가끔 젓 얻어먹이고 없을 때는 죽을 쑤어 먹이세요. 내가 집에서 쌀가루를 곱게 빻아 왔어요. 빻기만 한 게 아니라 채로 치고 퐁것이라 아주 고운 가루랍니다. 자루는 작아 보이지만 이 자루 하나면 잊어버리고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우리 청이를 살리시는군요.”

“죽을 끓일 줄은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가르쳐 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님이네는 심봉사에게 죽 끓이는 법을 열심히 설명했다. 죽은 밥하고 달라서 계속 저어 주어야 하고 다 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봉사는 장님이라 어렵기 이를 데 없었다.

“끓이다가 못하면 뒷집 딸고만네 어머니를 불러 쓸 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양님이네가 돌아갔다. 아이가 깨어나면 암죽을 먹여 보기로 하고 틈을 이용하여 동냥그릇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한술 줍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끼나를 때우기 정도에 불과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작은 자루를 두 개 만들어 양어깨에 가위표로 매달아 메고 다니며 자루 하나에는 밥을 얻고 다른 쪽 자루에는 쌀이나 보리 등등 곡식을 얻어다가 밥을 해 먹어 보자는 것이었다.

심봉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농작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한동안 그는 이 옷 저 옷 뒤적거리다가 무명 훌바지를 꺼내 놓았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다.”

방바닥에 벌여 놓고 심봉사는 처가 평소에 바느질할 때 쓰던 반질고리를 꺼내 왔다. 무언가를 꿰매려고 바늘을 찾은 그는 곧 후회했다. 실과 바늘이 있다 한들 장님이니 그걸 쫓 수 없다는 걸 알고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성한 두 눈 가지구도 바늘귀 꿰기가 힘들다던데 나처럼 장님인 주제에 바늘귀를 꿰 보겠단 하다니 지나가는 도야지가 웃을 일이다.”

심봉사는 말뚝에 매 놓은 조랑말처럼 혼자 웃다가 반진고리 안에서 가위를 찾아냈다.

“우선 자르고 보자.”

훌바지 아래 붙은 두 개의 가랑이 끝을 잡고 중동을 잘라 버렸다. 그런 다음에는 바지 엉덩이 부근을 잘라 냈다. 그렇게 해 놓으니 마치 밀터진 자루 두 개가 생긴 셈이 되었다. 남은 것은 터진 바짓가랑이 밑을 막아야 자루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늘과 실을 꺼내 보았

던 것인데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니 바늘을 쫓 수 없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에라, 봉 대신 꿩이고 꿩 대신 닭이라 했다. 막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는 바짓가랑이 끝을 잡고 매듭을 쳐서 묶어 버렸다.

“꼭 바늘로 박아야 막히는 건 아니지. 곡식을 집어넣어도, 동냥밥을 집어넣어도 자루처럼 새지 않을 게 아닌가?”

심봉사는 혼자 만족해하며 이번에는 허리끈을 찾아다가 주둥이에 구멍을 뚫어 묶었다. 그런 다음 양 어깨에 자루 두 개를 가위표로 매달았다.

“한쪽 자루에는 동냥밥, 한쪽 자루에는 동냥한 곡식을 담으면 되는 거지. 어허. 이걸 두고 궁즉통(窮即通)이라 했겠다?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렸다.”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더니 울었다. 심봉사는 황급히 아랫도리를 만져 보고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금방 울음을 그친 아이가 방싯거렸다.

“오늘 처음이지? 젓 대신 죽을 한번 먹어 보자. 잠시만 기다려 봐라.”

심봉사는 일어나서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나갔다. 솥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만져 보니 물을 채운 커다란 그릇에 죽그릇이 담겨 있었다. 끓인 죽은 식혀서 먹이면 되지만 끓여 놓은 죽은 식었을 테니 그렇게 중탕(重湯)해서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된다고 뒷골의 양님이네가 시범을 보이고 갔던 것이다.

심봉사는 삭정이 가지를 꺾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냥 때지 마시고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세요. 백이십 번만 세고 나

면 더 때지 말고 죽그릇을 꺼내고 애기한테 먹일 때는 먼저 죽에 혀를 대 보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을 때 먹이세요. 어른 수저로는 안 되고 애기 수저가 따로 있어야 하거든요. 마침 우리 양님이 죽 먹을 때 쓰던 수저가 있어서 가져다 놓았어요. 우리 집 양반이 감나무로 정성들여 깎아서 만든 숟가락이에요. 그러구요, 죽을 먹이면 애기는 받아먹을 거예요. 양이 찻는지 안 찻는지 알아서 더 먹이거나 그만 먹이거나 해야 하거든요. 젓 먹을 때도 그러지만 애기는 양이 차서 배가 부르면 헛바닥으로 수저 끝을 밀어낸답니다. 그게 안 보이시니 좀 걱정이지만 몇 번 먹이다 보면 느낌으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심봉사는 다시 한 번 양님이네가 알려 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적당히 데워진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우리 칭이 죽 한번 먹어 보자. 안 먹으면 어찌지?”

칭이를 들어 안고 무릎 위에 비스듬히 눕어 놓고 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죽 든 숟가락을 입에 대어 주자 처음에는 혀로 밀어내는가 싶더니 빨아 먹기 시작했다.

“아이구 이쁜 것. 우리 칭이 잘 먹네. 고맙기도 하지.”

심봉사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는 한참을 받아먹더니 수저 끝을 밀어냈다.

“인제 배가 부르구나? 오냐. 그만 먹자.”

심봉사는 아이를 세워 등을 두드려 준 후 자리에 눕었다. 그런 다음 죽그릇을 치우고 아기 옆에 누웠다.

“나도 잠깐 눈을 붙이고 쉬었다가 구걸이나 갔다 오자.”

심봉사가 잠깐 자다가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이제는

아이 우는 소리나 보채는 소리로 뭘 원하는지 웬만큼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냐, 기저귀를 바꿔 달란 소리로구나.”

기저귀를 갈아 주고 심봉사는 마당으로 나가 그동안 빨지 못하고 그냥 쌓아 두었던 기저귀를 꺼내어 대충 빨아서 빨랫줄에 걸었다. 여덟 개나 되는 기저귀를 다 빨아 던 다음 심봉사는 허리를 두드리며 목을 뒤로 제쳤다.

“어허. 벌써 저녁때가 다 되었구나.”

심봉사는 해질녘이 되면 산그림자가 내려오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오른다는 걸 볼 수는 없어 모르지만 얼굴에 와닿는 기온의 변화와 느낌으로 동이 트는지 저녁이 되어 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심봉사는 마을 한 바퀴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자루 두 개를 가위표로 양쪽 어깨에 하나씩 걸쳐 메고 어린 딸을 포대기를 대서 업고 집을 나섰다.

그는 이 집 저 집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면서 구걸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돌아서기만 했다. 그렇게 다니던 심봉사는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도 사립문이 아니고 대문이 달린 집이라면 동네에서는 잘사는 집에 속했다.

심봉사는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밥을 달라던가 아니면 곡식이라도 적선해 달라 말하겠다고 다짐하고 대문턱을 넘자마자 밥 한술 달라고 외쳤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개 한 마리가 왕왕 짖어 댔다. 심봉사는 달려들며 짖어 대는 개 앞에 놀라서 풀썩 주저앉아 떨어졌다.

그 바람에 애까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누군데 들어와서 이 소란이래요? 이놈에 개! 시끄러! 저리 못 가냐?”

누군가 부엌에서 나온 부인네가 짚어 대는 개를 쫓아냈다.

“고 고맙습니다요.”

“갓난쟁이까지 업었네? 이봐요. 일어나요.”

“예.”

“이게 누구여? 도화동 사는 심봉사 아니에요? 부인까지 졸지에 죽었다더니 이 어린것만 남기고 갔군요? 쫓쫓쫓. 내 손 잡으시고 일어나세요. 날 따라오세요.”

부인네는 심봉사 지팡이 끝을 잡고 앞장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개다리소반에 밥 한 그릇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고 먹으라 했다.

“고맙습니다.”

심봉사는 인사를 하면서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애기는 빼놔야 편하게 앉아 잡술 것 같네요.”

부인네는 청이를 심봉사 등 뒤에서 뽑아내어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랬다. 부인네가 마침 심부름 갔다 오는 행랑아이를 불렀다.

“왜요?”

“너 지금 뒷집에 가서 쟁비 엄마한테 급한 일이니까 빨리 왔다 가라고 전해라.”

아이가 대답을 하더니 뛰어나갔다. 잠시 후 아이는 젊은 엄마를 데리

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뭘가 급한데 북 치드키 불리요? 금방 밥 안쳤는데?”

“잘했구먼. 이 애 젓이나 좀 먹여 주라구 불렀어.”

부인네가 안고 있던 청이를 건네주었다.

“아가 누군데요?”

“저 봉사님 딸이잖아?”

“이 애기가 그 불쌍한 청이래요? 가엾기도 해라. 아가야, 마침 젓이 붙었으니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어린 걸 두고 어떻게 눈이 감겼을까? 하늘도 무심하지.”

그녀는 청이에게 젓을 물렸다. 젓을 다 먹고 난 쟁비 엄마는 치마 말기에 젓을 대충 밀어 넣고 심봉사에게 말을 던지고는 재빨리 부엌에서 나갔다.

“우리 집 밥 타겼어요. 봉사님, 나중에라도 애기가 배고파 보채면 또 찾아와요.”

“고맙습니다.”

심봉사가 고개를 숙였다. 배부르게 밥을 다 먹은 심봉사가 애기를 업고 일어섰다.

“이것두 가지고 가요.”

자루 두 개를 내밀었다. 심봉사가 가지고 온 자루였다.

“봉사님이 딱해 보여서 한쪽 자루에는 쌀 한 되박 넣어드렸구 또 다른 자루 속에는 보리쌀 한 되박을 넣어드렸으니 가지구 가서 양식이나 하세요.”

“아이구 고맙습니다요.”

“어여 가세요. 주인댁 부인이 오시면 안 되니까 어서 가세요. 그러구 나중이라도 급하시면 찾아오세요.”

심봉사는 얘기를 업고 자루 두 개를 양 어깨 밑으로 내려뜨린 채 지팡이를 찾아 들고 그 집에서 큰길을 찾아 나왔다.

“세상에 맘씨 고운 부인네도 있다. 우리 청이 배부르게 얻어먹고 나까지 잘 얻어먹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 청아, 어서어서 자라서 나중에는 신세를 다 갚아야지? 신세 진 걸 잊어먹으면 안 돼.”

집을 향해 지팡이를 두드려 가며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금천 시냇가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느꼈다.

“잠깐만요! 봉사님!”

그런데 누군가 앞으로 급히 다가오며 외쳤다. 심봉사가 흠칫하며 섰다.

“누구신데 왜 그러시오?”

“다 흘리고 땀기잖어요?”

“땀 흘렸다는 거요?”

“형 놀부한테 쫓겨난 흥부가 이사를 할 때 자식이 너무 많아 질질 흘리고 다니다더니만 봉사님이 그 짝이요. 안 되겠소. 잠깐 들어와 보시오.”

수다를 떨던 여인이 심봉사를 끌고 길가에 있던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왜 그러는데요?”

“매고 있는 자루에서 곡식이 새고 있단 말이요. 자루 끝 미자발을 꼭 꼭 막아놔야 쓰겠소.”

“허허 그럴 리가?”

“벗어 보시오.”

자루 두 개를 벗었다. 자루를 만져 본 심봉사가 흠칫 놀랐다. 분명 얻은 것은 쌀 한 되에 보리쌀 한 되인데 그 반절이 새 나갔던 것이다.

“분명히 자루 끝을 제대로 묶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웬일이지?”

“홀쳐 매각고 되야요? 바늘로 촘촘하게 박아야 안 새지. 내가 막아 줄 틈께 안심하시오.”

그녀는 반질고리를 가지고 와 바늘에 실을 꿰더니 자루 끝을 막았다.

“고맙소. 앞 못 보는 병신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는 분은 대체 뉘시오?”

“난 주모라요.”

“주모? 옛날부터 있던 주모 목소리가 아닌데?”

“그 성님은 나한테 이 술집 맡기고 여시 잡으러 여수로 갔네요.”

“그래요? 그럼 임자는 성함이 어찌 되는지?”

“퇴물 기생 되어 이 꼴짜기까지 굴러들어 온 술집 년이 뭐 성함까지 있겠소? 남들이 그저 부르는 이름은 팽덕이네, 혹은 팽파!라 하기도 한대요.”

“팽덕이네? 팽파?”

재밌는 이름이라는 듯 심봉사는 미소를 지었다.

“다 되었소.”

“고맙소. 저녁손님 들어올 시각에 이렇게 바느질까지 시켜 미안하요.”

“미안하면 술이나 한 잔 사 주구 가요.”

“오죽하면 여북하겠소? 빌어먹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술을 사 마신데요?”

“엄살은……. 마누라가 돈 모아서 주고 간 거 소문이 파다하든디 오리발 내민다고 누가 믿어요? 장독대 밑에 파묻은 그 돈 꺼내어 젓먹이 어린 딸허구 잘 먹고 잘살지 왜 궁상 떨구 댕겨요?”

“파묻은 돈 있으면 빌어먹지 않아도 배부르겠소. 마누라가 주구 간 돈은 열 냥이었는데 초상 비용으로 닷 냥 쓰고 그동안 남은 거 다 쓰고 딱 한 냥 남았소.”

“한 냥? 내놔 봐요. 남으면 거실러 줄 텅께.”

팽덕어멈은 벌써 심봉사가 앉아 있는 목로 위에 막걸리가 넘치는 독배기 두 개를 가져다 놓았다.

“드시오. 안주는 짐치 한 가지밖에는 없소.”

그녀가 심봉사의 손을 잡더니 독배기에 대 주었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입맛만 다시지 마시고 어서 들기나 하쇼.”

팽덕어멈이 재촉하는 바람에 심봉사는 나도 모르겠다는 듯 독배기를 들고 시원하게 마셨다. 그녀도 따라서 독배기를 비웠다.

“봉사님, 원래 술깨나 하시는 양반이었네요? 한 잔 더 하실까?”

“아니 아니요. 애까지 엮고 앞도 못 보는 주제에 흠다리까지 건너가야 하는데 취해서야 되겠소? 가뜩이나 그 다리는 난간이 없어 우리 같은 봉사들에게는 위험천만한테……. 인제 그만 가 봐야겠소.”

심봉사는 일어나서 행장을 차리고 바지 골마리를 뒤집어 그 안에 붙

은 주머니에서 돈 한 냥을 꺼내어 팽덕어멈한테 내밀었다.

“술값이나 받으쇼.”

“아이그, 말이 그렇다 그거지 내가 어떻게 지지리 궁상인 봉사님 주머니를 털 것이오? 내 비록 술집이나 하는 싸구려 술집 년이기는 혀도 그렇게 몰인정한 지집은 아닙니다요. 내 어찌 봉사님 같은 양반한테 공짜 술 한 잔 못 드리겠소? 한 잔 생각나면 가끔 들르세요.”

팽덕어멈은 심봉사를 밖으로 밀어 냈다. 심봉사는 고맙다고 몇 번씩이나 치사하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기분 좋다. 마누라 죽구 이렇게 기분 좋긴 처음일세. 어허, 우리 청이 배부르게 젓 얻어먹었고 나 또한 배부르게 먹었고 술 한 잔까지 얻어먹었으니 오늘 같은 날이 또 올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전라도 땅 끝

우뚝 솟은 월출산 밑에

자리나 깔고 놀아나 보세.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 일장춘몽이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눈물 같은 쇠주를 놓고

뜨물 같은 막걸리 바람에

높은 놉 신세가 녹초난다.



심봉사는 흥에 겨워 노랫가락을 뽑으며 지팡이도 두들기지 않고  
흙다리 위를 걸어갔다. 한 잔 술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 그 어머니에 그 딸

항상 조용하고 적막하기만 하던 청이네집 부엌이 오늘따라 시끌썩했다. 오늘이 청이의 열네 번째 맞이하는 생일 아침이었던 것이다. 지금 와서 부엌일을 도와주고 있는 부인네는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뒷골 사는 청이 엄마 친구인 양님이네. 그리고 또 한 부인은 청이네 뒷집에 사는 딸고만네였다. 생일상을 차린다고 부산했다.

그때 청이가 물동이를 이고 마당에서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야야, 너처럼 어린애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다니 물 쏟겠다. 내가 들어 줄게.”

양님이네가 청이의 머리 위에서 물동이를 들어내어 물독에 부었다.

“절반씩만 담아 갖구 다니지 오다가 었어지면 어찌려고 그러냐? 철 철 넘치느고만. 었지르지는 않았어?”

“자는 즈그 어매 닦아서 아무지다구. 어른 하는 일을 다 한다니께?”

딸고만네가 혀를 찼다.

“심들지 않아?”

양님이네가 묻자 청이는 발갛게 상기된 두 볼 위에 웃음을 띠우고 아직도 머리 위에 얹은 또아리 꼬리를 입에 문 채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부엌일은 없구, 가만있자. 넌 방에 들어가 상을 퍼라.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청이는 대답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심봉사는 걸레를 들고 옆드려서 방바닥을 훑치고 있었다.

“아버지, 그냥 두세요. 내가 다 쓸구 닦았어요. 아침 다 됐다고 상 보래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다. 네 생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 상까지 채려주시니 죽은 네 어미가 알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아버지는 벌써부터 의관은 다 갖추고 계셨네요?”

“암만! 너두 입어라.”

심봉사는 망건을 고쳐 쓰고 벽에 걸린 접시갓까지 내려 쓰고 있었다. 새 옷은 아니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손질한 하얀 바지저고리에 짧은 두루마기인 중치막까지 입고 있었다. 남 보기에 아버지 의복 입은 것이 구질구질하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보아 청이는 열한 살 때부터 제 손으로 빨아서 손질하여 입고 나서게 만들었다.

“다 입었냐?”

“지금 입고 있어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청이 옷은 명절 때 양님이네 어머니가 해 준 것이었다. 이윽고 조촐한 생일상이 차려졌다. 상 위에 뜨끈한 미역국 두

그릇을 올려 주고 두 부인네는 집에 가겠다 했다.

“많이 드세요. 청이 아버지.”

“같이 한술 뜨구 가지지. 미안해서 어찌지요?”

“괜찮아요. 청아! 설거지는 네가 해라. 알았지?”

“예.”

두 부인네가 사라졌다. 청이는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맛보게 하고 새로 담은 김치며 메밀 부침개며 못 먹어 본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여 주자 심봉사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어머니 살았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런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 보는 음식이냐? 너를 업구 이 집 저 집 동냥 얻어 비빔밥이 돼 버린 바가지 밥만 멕이고 나도 먹고 살아온 것이 십 년 하구도 사 년이구나. 청아, 애비가 면목 없다. 용서해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무병하게 튼실하게 잘 자란 게 누구 은덕인데요? 절 키운다고 온갖 고생 다 하셨잖아요? 어디 그뿐이예요? 양가집 규수가 되려면 살림 시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글을 알아야 면무식無識한대며 제 손을 쥐시고 가가거겨를 다 가르치시고 하늘천 따지를 가르쳐서 언문하고 천자문은 떼었어요. 동네 내 또래 계집애들이 글 아는 애가 없어요. 나밖에는. 이만큼 키우신 건 아버지세요.”

“무슨 말이나? 우리 딸이 영민해서 그런 거지. 네 어머니가 사랑할 만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 자, 식기 전에 먹자.”

부녀는 오순도순 모처럼 식사다운 식사를 행복하게 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아니다. 많이 먹었다.”

마지막 손갈을 놓으면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불렀다.

“왜 그래? 혈 말 있냐?”

“예, 내일 아침부터는 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동냥 얻으러 나가시지 마시라구요.”

“어떻게 살라구?”

“아버지 대신 제가 다닐 테니까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버지, 제 나이 열네 살이 되었어요. 까마귀도 알을 깨고 나와 한 달만 지나면 노부모를 봉양한다 했어요. 먹이를 물어 오면 어미 입에 넣어 주고 효도한다는데 저는 열네 살인데 여태껏 불효만 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다니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두 말아라. 아직도 어린 너를 길거리 골목에 내보내어 동냥질을 해 오라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마라.”

심봉사가 화를 내며 청이를 나무랐다. 그런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바람 좀 쏘이고 싶어 그런다. 벌써 춘분이 지났으니 봄 아니겠느냐? 밖은 따뜻할 것이다.”

방문을 열려다 말고 심봉사가 돌아섰다.

“두 번 다시 아까 같은 말 꺼내지도 마라? 또 그러면 이 애비 못 볼 줄

알어?”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심봉사는 비로소 안심한 듯 마루 귀퉁이에 세워 둔 지팡이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봄볕이 아지랑이처럼 오르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 봄이구나.”

흙다리 위를 건너서 한길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심봉사에게 알은체를 했다.

“봉স্য반, 어디 가신데요?”

분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며 스쳐 간다.

“팽덕이네, 팽파가 아니신가?”

“오늘은 행색이 괜찮아 보이는뎁쇼? 양쪽 어깨를 가로질러 메고 다니는 동냥 똥자루가 안 보이니 웬일이래요?”

“에키 순! 똥자루라니? 봉사 지팡이 맛이 얼마나 매운지 한 대 맞아 볼 거여?”

심봉사가 지팡이를 머리 높이 치켜들었다.

“똥 하는 거여? 왜 잡아?”

팽덕이네는 심봉사의 지팡이 꼭대기를 잡더니 앞장서서 끌고 갔다.

“이거 놔. 어디루 끌고 가는 거여? 이 이런, 주막 안에는 왜 데리고 들어오냐? 응?”

팽덕이네는 심봉사를 목로 걸상 위에 주저앉혔다.

“대체 왜 이러시냐?”

심봉사가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니까 주모 팽덕이네가 먼저

술병을 가져다 놓았다.

“이 화창한 봄날 화전(花前)놀이는 못 갈망정 맛있는 술 한 잔 없어서야 쓰것소? 한 잔 드시고 나도 한 잔 취보시쇼.”

팽덕이네는 심봉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 술잔을 권했다. 마지못해 얼결에 심봉사는 술 대접을 들어 올렸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소리 나게 대접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빌어먹고 댕기는 봉사 주제에 술을 마시다니 당키나 한가? 나가네.”

“언제 내가 돈 내고 먹으라고 잡았수? 불쌍해서 한 잔씩 거저 주곤 했지. 아이그 꼴에 퇴물 양반이라고 티 내내그려?”

주모가 비아냥거리자 심봉사는 자존심이 상한 듯 선 채로 술 한 대접을 단숨에 벌컥거리며 비워 냈다.

“카아, 좋다.”

“한 잔만 더 하시구랴?”

주모가 다시 술을 채웠다. 잠시 망설이던 심봉사는 호기 있게 주저 않았다.

“까짓 거 내일 삼수갑산에 갈망정, 좋아 마셔 보지. 그동안 어린 딸 매 달고 댕기느라 술 한 잔 못 먹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아 자랐어. 그러니 이렇게 마음 놓고 한 잔 하구 싶다구.”

심봉사는 바지 속 골마리 뒤를 헤집어 돈 두 냇을 꺼내어 소리 나게 목로 위에 놓았다.

“돈만큼만 마셔 보세.”

“심봉사 속주머니에서 돈도 나오네? 죽은 마나님이 묻어 둔 돈이 백 냇이나 된다더니 드디어 꺼내셨네?”

“까짓 거 백 냇이 대순가?”

심봉사는 거꾸 술대접을 비워 냈다. 거나해지자 담이 배 밖으로 나왔다.

“어디다가 묻어 놓았습디까?”

팽덕이네가 자꾸 캐묻자 심봉사는 귀찮은 듯 말했다.

“돈을 왜 땅에 묻어? 믿을 만한 데다가 맡겨 놓고 장리(長利)를 받으면 되는 걸?”

“부인이 알뜰해서 시집와 집안 일으켰다는 건 들었지만 돈 모아서 이 자까지 놓은 건 모르고 있었네요 잉? 그럼 그걸 어디에,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지요?”

팽덕이네가 눈을 빛내며 소곤거리듯 물었다. 그러자 심봉사는 여러 번 헛기침을 하고 나서 팽덕이네한테 역시 소곤거렸다.

“나 이 날 입때껏 누구한테도 알려 준 적이 없네.”

“믿을 만한 집에 맡겼을꺼 아니우? 무릉촌에 장 승상댁 같은 부잣집 같은 데에 맡겨야 원금 안 떼이고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디?”

그녀의 말을 듣자 심봉사가 흠칫 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요?”

“아니 내가 언제 임지한테 말한 적이 있나 보지?”

“오오라, 바로 그 맥이었구먼?”

그러자 심봉사는 팽덕이네 얼굴을 더듬어서 콧바퀴를 잡아당기고 소곤거렸다.

“자네만 알게. 승상댁 대부인에게 맡겼었거든.”

“돈은 얼마나요?”

“백 냥.”

“백 냥? 큰돈이네. 그럼 그 돈은 부인 죽은 뒤에 찾아왔겠네요?”

“그냥 맡겨 두었네. 나중 우리 청이 시집보낼려면 혼사 비용이 있어야 하잖는가?”

“사람 일은 귀신도 모르데요. 나이 든 그 승상댁 대부인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다가 죽을지 아니면 비명에 횡사를 당할지 누가 아나구요? 그렇게 죽어 버리면 봉사님 돈은 어디 가서 찾지요? 늙은 승상 보고 내놓으라면 내놓을까? 남편인 승상은 마누라가 백 냥 돈 받아 놓은 걸 까맣게 모를 텐디? 그 돈 날리지 마시고 찾아다가 집 안에 잘 숨겨 두세요. 알았어요?”

“그,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마누라는 그 댁에 뽕뽕 숨겨 놓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죽었네. 그걸 찾아오면 되겠는가?”

“나중이라도 후회하지나 마슈. 죄송시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널 아침에 느닷없이 승상댁 대부인 마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올지도 모를께. 그럼 그 돈은 날개 달고 날아가요. 오늘이라도 찾아다가 딴 곳에 숨기는 게 상책 중에 상책이고요. 아셨어?”

“으음, 생각은 해 보겠네. 암.”

이윽고 심봉사는 집에 가야 한다며 지팡이를 찾았다.

“취하신 것 같은디 괜찮을까요? 여기 있다가 술 깨면 가세요.”

팽덕이네가 잡았다.

“막걸리 몇 잔 먹었는데 취하긴. 그저 기분이 삼삼할 정동세. 그럼 나가네.”

심봉사는 지팡이를 찾아 들고 주막을 나섰다. 흥겨운 타령이 안 나

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흙다리 위로 올라섰다. 심봉사는 갈지자 걸음을 놓으면서 흥에 겨워 앞으로 걸었다. 다리는 난간이 없는데 취한 심봉사는 아슬아슬하게 난간 가까이 가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회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나나노, 날리리야. 나나노

얼씨구 좋다. 저절씨구

별 나비는 이리저리 날고

노래 끝에 비명소리가 섞이며 심봉사가 비틀거렸다.

“어어어, 억!”

다음 순간 심봉사는 지팡이를 놓치고 다리 위에서 한 발을 헛디터 시 냇물 속으로 곤두박질을 치며 떨어졌다. 물속으로 떨어진 심봉사는 자기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라고 외쳤다.

“사, 사람 살려! 봉사 살려! 사람 살려요.”

한순간에 먹은 술이 확 깨면서 겁이 덜컥 났다.

“퀘익! 퀘익!”

떨어질 때 물속까지 처박혔기 때문에 그는 생물을 켜게 되었던 것이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구해 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다.

“사람 살려어! 거기 누구 없소? 봉사 죽네!”

물장구를 치면서 악을 썼다. 순식간에 서너 명의 동네사람들이 다리 위로 다가와 냇물을 내려다보며 구하지도 못하고 저런, 저런 하며 안타까워하기만 했다.

그때 건너편 강둑길에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오는 농부 하나가 있었다.

“어랍쇼?”

그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심봉사를 보았다. 그는 쟁기 엮은 지체를 받치고 소도 놔둔 채 시냇가로 급히 내려왔다.

“심봉사님이구면, 왜 그러구 있어요?”

“보 보면 모르시나? 나 나 좀 살려 주게. 아이구 사람 사람 살려!”

“주저앉으시면 안 되지. 봉사님, 거긴 얇은 데라구요. 가슴패기까지도 안 차요. 안 빠져 죽는단 말이요. 뺏뺏하게 서서 걸어 나오면 돼요.”

“나 개해엄도 칠 줄 몰라.”

“해엄칠 필요가 없는 곳이라니께요. 그냥 걸어 나오면 돼요.”

“고맙소. 거 걸어 나갈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구요. 그쪽은 시냇물 한복판이라구요. 거 왜 거꾸로 들어가요? 내 목소리 들리지요?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그렇게 알려 주는데도 심봉사는 헤메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행인들은 진작부터 킁킁거리며 재미있게 구경만 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농부가 물속으로 침병거리며 들어가 심봉사를 데리고 개천가로 나왔다.

“아이고 나 죽네.”

풀밭에 큰대자로 누운 심봉사가 죽는소리를 했다. 접시갓은 찌그러

져 목 뒤에 매달려 있고 옷은 물에 젖어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다리는 황토가 묻어 얼룩이 져 있었다.

“어디 다친 데 있소?”

“아이고 나 죽겠소.”

“아주 높은 다리도 아니고 물에 떨어졌으니 허리나 뼈를 다치지는 않았을 거요.”

“모르시는 말씀, 아이고! 허리 다리 고개야.”

“자, 어서 일어나 집에 가야지요?”

“죽어도 못 일어나겠소. 미안시런 말씀이지만 우리 집에 좀 들러서 우리 딸 좀 오라고 하면 안 되겠소?”

“놀라서 그런 거니까 누워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요. 그럼 집에 가세요. 난 논갈이를 하러 가는 길이라 바쁘니까 그냥 가야 합니다.”

그는 쟁기를 메고 소를 앞세워 떠나가 버렸다.

“에에취!”

심봉사는 연달아 재채기를 해 댔다. 얼마가 지났을까. 심봉사가 그때 까지도 풀밭에 누워 끙끙거리고 있을 때 청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다리에서 떨어지시다니?”

“아이고 청아, 어떻게 알고 왔냐?”

“동네 애들이 찾아와서 전해 주었어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에요?”

“애비가 죽는다. 에에취! 쑤시고 결리지 않는 데가 없구나.”

심봉사는 딸을 잡고 딸보다도 더 서럽게 울었다.

“자, 어서 집으로 가세요.”

청이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했다. 심봉사의 물결은 그야말

로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다.

절룩거리며 잡으로 돌아온 심봉사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웠다. 청이는 부엌으로 나가 굴뚝 옆에 쌓아 둔 장작을 가지고 와서 군불을 지폈다. 금방 방이 뜨끈뜨끈해졌다.

“아프신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의원님 모셔 올게요.”

“돈이 어디 있어 의원이나? 뜨거운 방바닥에서 지지고 땀내면 괜찮아지지겠지. 에에취!”

그는 콧물을 훌쩍거렸다.

“고삐이 들어도 단단히 드셨네요.”

다행히 심봉사는 물속으로 떨어져서 부러지거나 부상당한 데는 없었다. 다만 찬물 속에 팽개쳐지는 바람에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끄끙 앓기만 했다.

이튿날부터 청이는 아버지 대신 직접 아침저녁을 구걸해 와야만 하게 되었다. 청이는 그릇 하나를 들고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기한테는 장님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흙다리를 건너 안골마을로 들어갔다.

“청이야!”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콩나물 소쿠리를 든 친구 연분이었다.

“어디 가니?”

친구가 물었다.

“아버지가 아프셔. 그래 내가 대신 나왔단다.”

“많이 아프시니?”

“응, 근데 넌 어디 가니?”

“어머니가 콩나물 씻어 오라고 해서 동네 우물에 가고 있었어. 함께 가자.”

청이는 망설였다. 동냥을 하러 나왔으니 부지런히 이 집 저 집 다녀야 하는데 친구가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염려 마, 우리 집 가면 남은 밥도 있을 거야. 엄마가 아시면 빈손으로 보내겠나?”

청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분이를 따라 동네 우물로 갔다. 네댓 명 부인들이 채소를 씻고 물도 길며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청이가 아주머니들에게 인사를 했다.

“아니 재가 누구래?”

“심봉사 딸 청이 아냐?”

“아이구 그러네. 너희 아버지 다리에서 떨어졌다든디 안 다쳤어?”

“조금요.”

“청이 어매 죽고 저 아이 업고 동냥젓 먹이러 다닌 게 엇그제 같은데 저렇게 벌써 컸어. 이제는 샹썬 티가 나네.”

“즈그 어매 닳았구면. 이부구야무지게 생겼어.”

그러자 연분이가 대신 나섰다.

“아부지가 아프셔서 대신 밥 얻으러 나왔대요.”

“효녀구나.”

그때 생각난 듯 청이가 아주머니들에게 한마디 했다.

“먹을 걸 적선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하는 데 절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팔다리가 튼튼해서 농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애 봐주기, 빨래 빨아 주기, 청소해 주기, 잔칫상 도와주기, 콩밭 매기, 김매기. 불려만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데는 도화동이지만 이곳은 안골 마을이니 연분이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올게요. 샀은 어른 반만 받을게요.”

“지금 몇 살이지?”

누군가 물었다.

“열네 살이에요.”

“아직 어리지 않은가?”

다른 부인네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웃했다.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이팔청춘이 뭐야? 이팔은 16. 열여섯 살이지? 청이도 이팔청춘이 되려면 2년밖에 안 남았구먼.”

“가져다 붙이기도 잘한다. 청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우리 다 함께 도와주십시다. 즈히 어매 닦았으면 일은 똑 부러지게 잘해 낼 거여.”

뜻밖에도 소득이 컸다.

“고마워, 연분아.”

“너 그런 생각 계속 하구 있었어?”

“아버지 대신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지. 그래서 말인데 나 바느질도 배우고 싶어. 그런데 배울 데가 만만치 않아. 찾아가 볼 데가 없잖나? 너도 좀 알아봐 주라.”

“바느질까지?”

연분이는 놀라서 입을 닫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연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고 밥과 반찬을 챙겨서 청이에게 주었다. 조그만 단지도 하나 내밀었다.

“이건 뭐야?”

“새로 담은 김치야. 어머니 나오기 전에 어서 나가자.”

연분네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밥을 데우고 시금치 국을 끓여서 아버지 앞에 늦은 아침상을 놓았다.

“자아,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맛있는 김치가 있어요.”

청이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으켜 앉혔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몸살은 나지 않고 감기 기운만 있어서 힘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난다냐? 시금치 국이야?”

“딸고만네 어머니가 된장을 좀 주셔서 텃밭에 있는 시금치 캐다가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밥은 왜 이렇게 많냐?”

“제가 제 친구네 집에서 얻어 온 거예요. 자, 드셔 보세요.”

“국에 다 밥을 말아라. 뜨끈하게 먹으면 땀이 나겠지. 김치도 있대구 했지? 김치도 국 속에 넣고 말여. 아이구 그래도 니가 나보다 낫다. 어디서 이런 길 가져왔냐?”

심봉사는 입맛을 다셔 가면서 국밥을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요?”

“돌이 죽다가 하나가 먹어도 몰르겠다. 그건 그렇구 청아!”

“말씀하세요.”

“이레 뒤가 무신 날인 줄 아냐?”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삿날이지.”

“넌 낱구 이레 만에 뭐가 그리 비뻤는지 눈을 감았지. 제사 지내고 나면 모처럼 네 어미 무덤에나 찾아가 보자. 이렇게 이쁘게 자란 딸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좋아하겠느냐?”

## 아름다운 우리 옷, 반회장저고리

청이는 곧 제가 사는 오곡리의 도화동은 물론이고 안골 그리고 무릉촌에 이르기까지 장님 아버지를 지성껏 모시는 효녀 딸로 소문이 자자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이는 자기 어머니 께서 부인을 닮아서 바르고 똑똑하고 처신하는 게 예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청이는 돈 되는 일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었다. 다른 집 빨래 해 주기부터 김매기까지 논일 밭일도 잘했다. 심봉사야말로 동네사람 말대로 팔자가 퍼졌다.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소일하는 게 그의 일과였다. 장님 되기 전부터 원래 술을 좋아해서 그의 아내로부터 잔소리도 많이 들었었다.

마누라 죽고 핏덩이 딸 업고 동냥짓 얻어먹이러 다닐 때부터 술을 끊었다. 술 마실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얘기 업고 다니며 술 마실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손에서 청이가 그래도 떨어진 것은 네댓 살 되면서부터였다. 두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된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던 것이

다.

집에 두고 혼자 나다닐 수 있게 되자 심봉사는 술 한 잔 생각이 간절하게 되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구 안 들어오려면 가시구. 거 왜, 아까부터 주막 문지방 앞에서 뒤 마려운 강아지마냥 서성거리기만 해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구 안 마시구 싶으면 가 버리면 되지.”

하루면 몇 번씩 주막 문지방 앞에 와 서서 입맛만 다시는 심봉사를 보고 주모인 땡덕이네가 핀잔을 주곤 했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다.

“장사하는 집에 와서 봉사가 왜 휘방을 놓느냐 말요?”

“마시구는 싶지요. 허지만 돈이…….”

“술도 동냥 술이 있답디까? 들어와요. 그냥 한 잔 줄 테니.”

그렇게 되어 가끔 참기 힘들면 한 잔씩 얻어 마시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청이가 잔돈푼이라도 계속 벌여 오고 그걸 아버지인 심봉사 손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땡파! 날세!”

“웬일루 봉사님 기세가 이렇게 당당허까?”

“술 가져오게. 나두 있네.”

“뭘가요?”

“이거!”

허리춤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어 흔들었다.

“아이구 지러다가 우리 주막도 산다구 허겠네?”

“자네두 여기 와얏게.”

심봉사가 주모를 불렀다. 아양을 떨며 땡덕이네가 옆에 와서 붙어 앉

아 술을 따랐다.

“허, 이게 무슨 냄새지?”

심봉사가 코를 별름거리며 킁킁 거렸다. 그러자 땡덕이네가 분칠한 얼굴을 심봉사 볼에다 문질렀다.

“암사슴 분 냄새지요. 분 냄새 맡은 지도 까마득허지요?”

“허어 흠.”

심봉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고 헛기침을 여러 번 했다. 정말로 잃어버리고 산 냄새였던 것이다.

“봉사님.”

“왜?”

“어째서 내 말씀은 그렇게 안 듣지요? 뭘 놈에 고집이 그렇게 세냐구요?”

“내가 자네 말 안 들은 게 뭐 있나?”

심봉사는 자기 무릎에 와 있는 땡덕이네 손을 잡았다. 그렇게 보드라운 손은 만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승상댁에 맡겨 둔 돈, 찾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찾아다 집에 놔두었나요?”

“비밀일세. 그건 그렇구 도대체 자넨 그 돈이 왜 그렇게 궁금한가?”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크다면 큰돈인데 돈 임자가 장님이라 걱정돼서 그러지요. 증서도 없다면서요?”

“서로 믿고 맡긴 건데 뭘놈에 증서가 필요한가?”

“매사 부실해서 걱정되어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우?”

“걱정해 줘서 고맙네. 그 돈이 어딜 가겠는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거지. 자, 술이나 더 가져오시게. 기분 참 좋구먼.”

모처럼 여자 냄새에 빠진 심봉사는 점점 황홀해져 갔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모가 바빠지자 혼자 앉아서 술 잔을 비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봉사는 그제야 집에서 청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가시려우?”

“나중에 보세.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네.”

“내일 또 오시구려.”

허둥지둥 지팡이를 찾아 든 심봉사는 집으로 향해 떠났다. 심봉사가 늦도록 오지 않자 청이는 근심이 되어 다리 건너 편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제 오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 또 약주하셨네.”

“그저 마시는 시늉만 했다. 저녁은 먹었나?”

“아버지가 안 오시는데 어떻게 먹어요? 자, 시장하실 텐데 어서 가요.”

심봉사는 딸의 부축을 받고 걸으면서 혼자 다짐했다.

“다시는 주막 근처에도 가지 않으마.”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 심봉사는 딸에게 잘 추려 놓은 짚단을 가져다 달라 했다.

“뭘 하시려구요?”

“짚세기를 삼아 보려구 현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심심해서 동네 사랑방에 갔다가 딸고만네 아버지한테 좀 배웠다. 심심소일로 해 보려고. 누가 아냐? 기술이 늘어서 내가 삼은 짚신을 짤 지고 짚신장수로 나설지?”

“잘됐네요. 아무튼 앞도 못 보시니 나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짚신 삼거나 열심히 하세요. 저는 오늘 장 승상택에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저녁때나 돼야 올 것 같아요. 점심은 부뚜막에 차려 놓았으니 거르지 마시고 드시구요.”

“알었다. 청아, 그 댁에 가더라도 니 어매가 맡겨 두었다는 돈 얘기는 끄내지 마라?”

“네, 그럼 다녀올게요.”

청이는 이윽고 집에서 나왔다. 장 승상택은 성덕산 관음사 가는 쪽에 있었다. 십여 리 떨어진 곳이었고 무릉촌이라 불렀다. 승상(丞相)이라면 영의정급의 높은 고관을 부르는 이름이다.

현재 승상을 지냈던 분이 사는 건 아니고 지금의 장부지(張富地) 2대조 : 代祖 조부 되는 분이 영의정을 지내고 은퇴한 후 낙향하여 살던 집이 지금의 집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장 승상택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다. 부잣집이라 머슴도 많았고 몸종이나 하인들 그리고 식모, 찬모, 침모(衾母) 등도 있었다. 침모는 바느질하는 도우미 부인을 말한다.

오늘 청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은 승상택 침모였다. 청이는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돌아다니며 샅일을 했다. 장 승상택에 온 것은 작년 늦가을 때였다. 김장을 하는데 무, 배추 수백 포기를 담아야 하는 대사(大事)였다. 청이는 채소를 씻는 일을 해 주기로 하여 갔던 것인데 씻은 배추를 능숙하게 간하고 절이는 것을 본 승상택 부인이 기특하다며

김장김치도 담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뒷집 아주머니가 담으실 때 도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일하는 게 재빠르고 어른 못지않은데요? 죽은 저희 어머를 빼닮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칭이는 그 댁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오라 하여 왕래를 했었다. 그러다 한 달 전엔가 칭이는 그 댁 일을 해 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 마치고 돌아올 때 마침 방문이 열린 침방<sup>침방</sup> 앞을 지나다가 들여다보게 되었다.

오십여 세 나 보이는 침모가 다소곳하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단정하며 깔끔해 보이는 부인네였다. 들여다보던 칭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전 이 댁에 일하러 온 칭이랍니다.”

“칭이, 그래 알지. 일은 다 끝났니?”

“네.”

“왜 그러구 서 있어? 할 말 있니?”

“저어 저두 바느질을 배워 보면 잘할 수 있을까요?”

“바느질?”

침모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배우고 싶어?”

“네, 가르쳐만 주시면…….”

“네 어머니 닮았으면 잘할 게다. 네 어머니 솜씨가 아주 좋았거든. 아깝게도 일찍 죽었지만. 그래, 널 낳고 나서 초이레도 안 되어 죽었다지?”

“넌 엄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네.”

갑자기 울컥해서서 고개를 숙이자 침모는 다음에 날 집아서 한번 와 보라 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칭이는 부지런히 걸어서 무릉촌 비석거리 앞에 이르렀다.

침모는 여전히 바느질 방에 앉아 여자 저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 너 왔구나? 들어오너라.”

칭이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았다.

“정말 배워 볼 거야?”

“네, 심부름부터 할게요.”

“윗목에 화개장이 있지? 장문을 열고 보면 내가 만들어 둔 여자 저고리 두 서너 벌이 있을 게다. 꺼내 오너라.”

“네.”

칭이는 화개장 장문을 열고 그 안에 쌓아 둔 한복들을 가져다가 침모 옆에 놓았다.

“세 벌이지? 하나씩 펼쳐 놓아라.”

칭이는 시키는 대로 여자 저고리 세 벌을 차례대로 펼쳐 놓았다. 그러자 침모는 바느질감을 치우고 저고리 옆으로 고쳐 앉았다.

“옷을 하려면 우리 한복 중에 여자 저고리 종류가 뭐가 있으며 저고리는 어떻게 말<sup>말</sup>리고 어떻게 바느질<sup>바느질</sup>이 되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보아라, 저고리 색깔은 물론이고 모양새가 서로 다르지?”

“네,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저고리는 ‘민저고리’라 한단다. 민저고리는 모든 여자 저고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일상에 누구나 입고 있는 저고리란다. 애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적어 놔야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건 안다만 네가 어떻게 붓까지 꺼내 들고 있어?”

침모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청이는 선비들이 도포 소매 속에 넣어 다니는 휴대용 먹물통과 작은 붓을 꺼내어 민저고리라 적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봉사 되시기 전에 가지고 다니신 거래요.”

“그보다 네가 글을 안다고?”

“아버님한테 언문(한글)하고 천자문 정도 배웠어요.”

“정말 놀랍구나. 그보다 화개장 밑에 보면 긴 빼달이가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옷을 짓고 남아서 모아 놓은 천 조각들이 많이 있을 게다. 그걸 가져다가 글씨를 쓰면 되겠지.”

“고맙습니다.”

청이는 시키는 대로 천 조각을 앞에 두고 기록했다.

“민저고리 옆에 있는 저고리는 뭐가 다르냐?”

“하얀 동정 옆에 단 깃이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고 양 옆 저고리 소매 끝부분을 끝동이라 하나요? 끝동에도 화려한 색깔로 수놓아져 있어요.”

“잘 보았다. 그 저고리 이름은 ‘반회장저고리’이다. 보는 것처럼 민저고리가 그저 막사밭처럼 소박하고 꾸밈이 없어 보이는데 반회장저고리는 그에 비해 화려하고 멋스럽게 보이지? 그건 원래 저고리 원단과 다

르게 다른 천을 덧대어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예부터 반회장저고리의 배색(配色)은 정해져 있었다고 보면 된다. 원단 바탕색이 노랑색, 옥색, 연두색이라면 자주색 회장을 덧대어 만들었지.”

“마지막 저고리 이름은 뭐가요? 제일 화려해요.”

청이가 가리킨 저고리는 더 화려하고 예뻐다.

“색동저고리인가요?”

“그런 종류이지. 그건 ‘조끼저고리’라 한단다. 옛날엔 다른 한복들을 만들다가 남은 비단 천조각들을 모아서 색동으로 이용했단다. 몸통부분은 마치 조끼를 입은 것 같은 모양새지? 색동저고리 위에 다른 색 조끼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조끼저고리라 한단다. 그 밖에도 ‘삼회장저고리’도 있고 ‘깨끼저고리’도 있다만 실물이 없어 보여 주지 못하는구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고리 종류와 저고리 각 부분 이름 정도는 배우고 가야 할 것 같다.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민저고리를 네 앞에 펼쳐 놓아 보아라.”

“네.”

“목을 감싸고 내려온 하얀 부분은 알겠지?”

“동정이지요.”

“동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뭐라 하지?”

“깃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다. 깃이다. 깃 밑에 달려 있는 건?”

“두 짝 옷고름이지요.”

“깃하고 옷고름 사이에 네모난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겉섬이다. 겹쳐서 뒤쪽에 있는 부분은 안섬이라 한다. 저고리 가운데가 품이라 부르는 몸통 부분인데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 그 부분을 앞길이라 한다.”

“저고리 뒷부분도 앞길이라 하나요?”

“앞이니까 앞길이지만 뒤에 있으면 뒷길이라 한다. 그리고 몸통 부분이 좌우로 끝나는 부분을 진동이라 한단다. 진동이 어딘지 알겠지?”

“가운데 몸통과 양쪽 소매가 이어지는 곳을 진동이라 합니다.”

“그래 빨리 알아듣는구나. 몸통은 몸통대로, 소매는 소매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서로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몸통 끝부분을 도련이라 한다. 그리고 소매 밑부분, 그러니까 활처럼 굽어진 곳을 배레라 한다. 알겠나?”

“네.”

“그리고 저고리를 하려면 입을 사람에게 딱 맞는 치수의 크기로 만들어 줘야겠지?”

“당연하지요.”

“그래서 각 부분 이름을 잘 알아야 하는 거란다. 몸의 치수를 잴 때는 어찌해야 할까? 먼저 가슴둘레를 재야 한다. 둘째로는 앞길과 뒷길의 길이를 재야 한다. 셋째로는 화장 길이를 재야 한다.”

“화장은 뭐지요?”

“화장은 저고리의 정중앙에서 양쪽 소매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저고리의 길이이다. 저고리 길이는 뒤에서 재야 하

는데 정중앙 동정 꼭대기에서 몸통 밑 끝까지이다. 또 깃의 너비를 정해야 하고 깃의 너비 길이를 고대라 한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빠트렸는데 그게 뭐지 알겠느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품은 안 재나요?”

“역시 넌 영민하구나. 품이 제일 중요하지. 품이 작아도 커도 안 되니까.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집에 가서 헌 저고리 꺼내 놓고 오늘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날 받아서 오너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그로부터 청이는 여러 가지 샅일을 하면서도 틈이 나면 승상택을 찾아가서 침모에게 바느질을 배웠다. 바느질 보조로 일을 배운 청이는 마침내 1년이 채 안 되어 웬만한 옷은 잘 만들 줄 알아 승상택 침모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어려운 것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 지금 그 솜씨만 가지고도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게다.”

그만하면 샅바느질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청이는 우선 뒷집에 사는 딸고만네 어머니한테 찾아갔다.

“청이가 웬일이냐? 뭐 빌려 갈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자,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서 보세요.”

“얘가 왜 이런대?”

“벌리고 서 있어요.”

청이는 제가 손수 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가슴둘레를 잰다. 그런 다음에는 양쪽 팔길이를 잰다.

“뭘하는데 이러?”

“그동안 아주머니한테 신세만 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예쁜 저고리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몸 치수를 재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언제 니가 바느질을 배웠다고 저구리를 멩기다고 혀? 아이고 별일이네. 살다 보니 이런 호사도 하능구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밤에만 바느질을 해서 며칠 만에 저고리를 완성하여 딸고만네 어머니에게 가져다주었다.

“한번 입어 보세요.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옷을 입어 보고 난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농사꾼 아내들은 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딱 들어맞고 맵시 나는 한복은 입어 본 적이 없었다. 대충 자기가 만들어 입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내가 탄인물이 됐다.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날 몰라 보겠어. 아이구, 신통하고 고마워라. 니가 바느질 배우는 건 증말 몰랐는데 솜씨가 이 정도라니? 놀랍고 놀랍기만 혀다.”

“만족해하시니 다행이에요. 그럼 가 볼게요.”

“야, 야. 잠깐만 지달려라.”

그녀는 청이를 세워 두고 장독대로 가더니 쌀독 뚜껑을 열고 큰 그릇에 한 말이나 됴직하게 쌀을 퍼 담고 들고 가라 했다.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내가 천두 안 끊어 주었구 해 준 게 없는데 어찌케 공으로 받을 수 있다나? 여러 소리 말고 가지고 가져라.”

바느질해서 얻은 첫 소득이었다. 며칠 후 청이는 뒷골 양님이네 집을 찾아갔다. 딸고만네처럼 몸 치수를 재자 그녀 역시 이상하다며 손을 내

저었다.

“치수는 왜 재는 건디?”

“어머니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제가 그동안 바느질하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솜씨는 없지만 어머니 저고리라도 한 벌 지어 드리고 싶어서요.”

“니가 직접 멩긴다고?”

역시 양님이네 어머니도 놀라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청이는 양님이네 어머니 저고리도 며칠 만에 끝내어 가져다주었다.

“한번 입어 보세요.”

“벌써 혀어? 세상에! 정말이네.”

저고리를 입어 본 그녀 역시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상에 내 젓 얻어먹고 울음 그치던 때가 엇그제 같은디 아이고 우리 청이가 인자 처녀가 다 돼서 이런 옷까지 멩길 줄 알게 되다니. 느그 어매 땅속에서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고 대견해하겄냐?”

그렇게 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는 물론 뒷골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

“심청이 바느질 솜씨가 죽은 즈희 어매 뺨칠 만큼 좋다네. 못 멩기는 게 없다네.”

그런 소문이였다. 그 근원지는 딸고만네와 양님이네였다. 청이가 해 준 저고리를 입고 동네 우물에 나가 자랑을 한 바람에 그렇게 소문이 파다해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부탁하는 바느질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로소 심봉사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가세(家勢)가 나아지고 집안 실력도 죽은 아내가 있을 때만큼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다 딸 심청이 덕분이었다. 낮에는 온갖 돈 되는 일은 다 찾아서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맡아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기 때문이었다.

## 승상 부인이 탐낸 심청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가 청이네 집을 찾아왔다.

“넌 누구냐?”

“이 댁이 심 소저(沈小舍) 댁이 맞지요?”

“날 찾아온 모양이구나? 어디서 왔지?”

“저는 무릉촌 장 승상댁에서 대부인 심부름을 온 몸종이랍니다.”

“승상댁 대부인이 보내셨다구? 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오셨다가 가시랍니다.”

“알았다. 오늘은 내가 맡은 일이 있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뵙는다고 전하여라.”

“그럼 그렇게 알고 돌아갈게요.”

승상댁 부인이 청이를 직접 부른 적은 없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일할 때 필요하면 불러 갔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청이는 무릉촌으로 갔다.

“마님, 안녕하셨어요?”

마님은 안채에 있었다.

“그래 청이가 왔구나? 들어오너라.”

부인은 오십 초반쯤 되었는데 교양이 있고 기품도 있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렇게 다 가진 부인인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은 자식이었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첩실을 두었고 그 밑에서 아들 둘, 딸 하나를 얻었다.

청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묵향<sup>墨香</sup>이 그윽하게 풍겨나고 있었다. 부인은 난초를 치고 있었다. 완성이 되었는지 붓을 놓았다. 부인은 한동안 자기가 그린 난초를 감상하더니 청이에게 물었다.

“넌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처녀이니 그림을 보는데 선입견<sup>先入見</sup>이 없겠다. 네가 보기에 어떤지 말해 보아라.”

청이는 당황해서 두 손만 비볐다.

“부담 갖지 말고 네 생각만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잘…….”

“그림 보는 데는 유식 무식은 안 따진다.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게야.”

“예, 그렇다면 제 말씀에 홍보시지는 말아 주세요. 난초 그림은 거의 모두 땅 위에 살아 있는 것만 그리는데 저렇게 허공에 피어 있는 난은 처음 보는 것 같구 아주 아름답습니다. 허공에 있긴 해도 그 옆에는 벼랑 끝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피어 있는 난초 같어요. 비 온 뒤에 보는 경치처럼 선명하고 시원하고 앙증스럽습니다.”

부인은 놀랍다는 듯 청이를 보고 있다가 손을 잡았다.

“바느질도 곧잘 한다더니 그림 보는 눈도 좀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때 간단한 차상<sup>茶上</sup>이 들어왔다.

“마시자. 작년에 말린 모과로 만든 차란다. 향이 좋다.”

부자 양반택 부인이 허드렛일이나 하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마주 앉아 차까지 마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청이도 그것이 은근히 불안하였다.

“저어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요? 제가 헤드릴 일은 무엇이지요?”

먼저 청이가 물었다.

“오늘 널 부른 것은 네 의사가 어떤지 먼저 물어 보고 싶어 오라고 한 거란다.”

부인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뜸을 들이다가 비로소 말했다.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나이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단다.”

“외로우시겠어요.”

“네가 내 심정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난 네가 내 수양딸이 되어 주었으면 싶었다.”

“수양딸이라구요?”

청이는 깜짝 놀랐다.

“내 딸이 되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나?”

“…….”

청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내 딸이 되어 평생 나와 함께 살아 주면 난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의지해서 살면 되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서 놀란 것두 안다. 우리 집에 일하러 왔던 너희 어머니도 잘 알고 있지. 어린 네가 왔을 때도 너희 엄마와 아주 닮아 난 놀랐었다. 예쁘장한 얼굴에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고 나무랄 데 없어 내가 좋아했단다. 내 딸이 돼 주어라.”

“아닙니다. 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따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정말 죄송한데요. 전 안 되겠어요.”

“왜?”

“전 자격도 없지만 제 아버지 때문에 안 돼요. 제 아버지는 장님이세요. 제가 아버지 두 눈이지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염려 마라. 너만 좋다고 승낙하면 넌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네 아버지는 지금 사는 집에서 더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여 아버지가 사는 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살며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는 행랑어멈을 붙여 주기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예요.”

“서로 좋은 일인데 반대만 하시겠나? 그리되면 너희 부녀는 가난을 면하고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나는 늙어 가면서 외롭지 않게 되는 데?”

칭이는 마침내 돌아가서 아버지 의사를 들어 보고 아버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칭이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가는 무릉촌에서 재촉하는 심부름꾼이 올까 봐 불안했다.

출타했던 심봉사가 돌아왔다. 웬일인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아버지. 밖에 좋은 일이 있어요?”

“술 한 잔 먹은 것밖에 좋은 일이 뭐 있겠느냐?”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두 잔 이상은 안 돼요. 개천에 또 빠지실지 모르시니까요.”

“잘 안다. 너는 장 승상댁에 다녀온다고 아침부터 나갔잖아? 무슨 일을 해드리고 왔나?”

“아버지, 실은…….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뭘 말을 하려다 말아? 뭐야? 얘기해 봐.”

“아버지, 놀라지 않겠다고 약조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애가 오늘따라 왜 이리능 거여? 대체 뭔데 그러?”

“승상댁에 가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대부인 마님께서 절 수양딸 삼고 싶으시다구요.”

“넌 수양딸로? 허, 허, 허.”

“왜 웃으세요?”

“그렇게 부자시고 지체 높으신 마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비렁뱅이 봉사 딸을 수양딸로 삼는다는 거여? 농담도 참, 부인께서 넌 평소에 보시는 잘 봐주셨능갑다.”

“아버지, 이건 사실이raq구요.”

“수양딸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디?”

“절 친딸 삼아서 평생 옆에 두구 살고 싶으시고…….”

“이 애비는?”

“아버지는 큰 집으로 이사 시켜서 저 대신 행랑어멈을 행랑에 살게

하여 평생 아버님을 보살피게 해드리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사시게 하겠답니다.”

“뭐이가 어째? 그래서 너는 뭐라 했지?”

“싫다고 했어요. 수양딸 안 한다고.”

“싫다고 거절했어? 아니 팔자를 구자로 고치는 건데 왜 도리질을 혀? 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눈먼 애비 먹여 살릴라고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하며 세 빠지게 고생하는 거 징글징글혀지도 않냐? 마님이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이다. 니 그 효심을 보시고 흥복을 내려주신 거여. 그런데 왜 그런 복을 걷어차고 온 것이여?”

심봉사는 화를 내며 딸을 나무랐다. 일언지하,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떠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거절해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연 엉뚱한 아버지의 반응에 청이는 기가 막혔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없어도 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떠난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네요?”

“너와 헤어져 산다는데 어찌 가슴이 안 아프고 슬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너는 내 곁을 떠나야 한다. 좋은 배필 만나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시집가면 넌 이 애비와 헤어져야 하는 거여.”

“전 시집 안 가요.”

“이 애비 때문에?”

“시집을 가더라도 평생 아버지는 모시고 살 거예요.”

“말 같은 소릴 혀라. 찢어지게 가난한 봉사의 집에 데릴사위로 올 사

윗감이 세상천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소린 아예 말아라. 승상 마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 너를 수양딸로 삼으면 나나 내나 팔자가 피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아주 의절하고 살겠냐?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도 되고 네가 찾아와도 되는데 무슨 걱정이여? 당장 내일 아침에 승상댁에 가서 내가 궤히 승낙하더라고 전해 드리고 고맙다고 백배 치사하거라. 알겠지? 왜 대답이 없냐?”

“예, 알았어요.”

청이는 모기소리만 하게 대답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 너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떠나겠다니 그런 소리 하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 주기를 바랐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룻밤을 꼬박 뜯눈으로 새웠다. 어찌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이 되자 심봉사는 재촉했다.

“어서 무릉촌에 다녀오지 않고 뭐하느냐?”

“알았어요. 오늘은 말아 놓은 바느질감이 있어 그걸 끝내야 하니까 저녁때쯤 다녀올게요.”

“이른 아침 일찍 다녀와서 바느질을 하면 되겠구나. 먼저 무릉촌에 가봐.”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싫은 소리는커녕 화내 본 일이 없는 청이가 자기도 모르게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게 날 아버지 곁에서 쫓아내고 싶으세요?”

“어? 애가 왜 이래?”

“그렇잖아요?”

“내가 어쩔다고 안 부리던 승질을 내?”

“아버지 소원대로 할게요. 지금 다녀올게요.”

청이는 집을 나섰다.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져서 아침 새때가 안 되어 무릉촌 승상택에 도착했다. 부인은 늦은 아침을 먹고 막 상을 물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너라. 아침부터 일찍 왔구나.”

청이는 대답을 하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부인이 좋아하는 국화차를 만들어 쟁반에 받쳐 들고 화방龕房으로 들어갔다.

“그건 뭐냐?”

“국화차예요.”

“어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까? 국화차 한 잔 생각을 했는데 말하기 전에 가져왔으니. 청아!”

“네, 마님.”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으면 한 것이다. 알겠니?”

“.....”

“이렇게 아침 일찍 온 걸 보니 아버지 승낙을 받은 모양이구나? 좋다 구 그러시지? 어서 얘기해 보렴아.”

“마님! 실은.....”

청이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고 어물어물했다.

“왜 그러니?”

“저기, 너무 죄송해서요. 마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잘 전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화,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셨어요.”

“역정?”

입에 댄 찻잔의 차를 마시려다 말고 내려놓으며 되물었다.

“안 된다고 하시더냐?”

“세상천지에 누가 와서 아버님을 살피 준다 해도 저만큼 할 수 없으니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러구 아버님이 역정을 내신 것은 제가 마님이 말씀하실 때 감지덕지 고맙다고 해 놓고 아버지께 나중에 상의 드리는 줄 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 내 딸로 데려올 수 없게 되었던 말이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청이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다. 너와 네 아버지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나만 생각했어. 늘그막에 내 말벗이나 하고 내가 취미 삼아 그리는 그림에 옆에 앉아 먹이나 갈아 주고 차나 끓여 주는 딸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너 같은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얘기했던 것인데 내 생각이 짧았구나. 청아!”

“네?”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아버지가 싫다하신다니 어찌겠니? 모녀지간은 못 될망정 넌 자주 찾아와 날 도와줄 수는 있겠지? 내가 하는 일도 도와 주고 말동무도 돼 주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이 좀 있어 분주한 편이지만 틈 날 때마다 찾아뵙고 도와드릴게요.”

“아이구, 신통하기두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청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버지는 감사하다 인사하고 승낙하더라 전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한테 뭐라 또 변명해야 하지?’

청이는 지금껏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한테도 단 한 차례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이었다. 그래서 마음 구석이 쾅기고 떨리고 있었다.

‘앞질러진 물, 이제 와서 어찌 해 볼 수 없잖은가? 나에게 억만금이 온다 한들 아버지와 떨어져 살 수는 없어. 지하에 묻힌 어머니도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거짓말이야. 어서 이 거짓말을 끝내고 잊자.’

아버지는 뒷마루에 앉아서 청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소리가 나자 반갑게 불렀다.

“청이나?”

“네. 왜 나와 계세요?”

“네가 오지 않아서……. 그래 고맙다고 말씀 잘 드렸지?”

“네.”

“언제쯤 승상택으로 들어왔으면 하시데?”

“다 틀렸어요.”

“뭐가 틀려? 내가 좋다고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틀릴 게 뭐가 있어?”

심봉사가 놀라며 마루에서 일어섰다.

“승상택 마님 혼자 생각이었대요. 절 양녀로 들이는 게. 그런데 승상

택 바깥어른이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셨대요. 상의도 앵구 혼자 그랬다구. 그리고 양녀를 들이려면 친척들 중에도 많으니 친척 가운데서 찾아보라 하셨대요. 그래 제 애긴 없었던 일루 돼 버렸어요.”

“어이고, 나나 내나 무슨 복에 그런 홍복이 떨어지겠느냐? 좋다가 말았구나. 인생지사 다 그런 거지 뭐. 잊자. 싸악 잊어버려라. 굶게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가늘게 먹고 가늘게 싸며 살게 돼 있다. 욕심내지 말고 살자. 에이!”

심봉사는 소리 나게 바지저고리 위아래를 두 손으로 툐탈 툐어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향하는 청이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런 다음 바느질감을 찾아들고 마루로 나왔다.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온 심봉사는 중치막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마루 귀퉁이에 세워 둔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어디 가시려구요?”

“언제 내가 어디 간다고 일일이 말한 적 있더냐? 댕겨오마!”

괜히 심통이 나서 사립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런 아버지를 청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그런 태도는 청이가 승상택 부인 양녀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이는 애써 잊으려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나무 지계를 짚어지고 사립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스무 살이 아직 안 돼 보이는 앳된 청년이었다. 청년은 지계를 짚어지고 울안 뒤꼍으로 돌아갔다. 청이는 청치짐하게 뒤따라 울안 모퉁이에 서서 지계를 바치는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은 산에서 해 가지고 온 나무들을 지계에서 내려 굴뚝 옆에 쌓고 있었다.

“그냥 거기 부려 놓고 가면 내가 알아서 쌓을 텐데…….”

부끄러움에 기어드는 소리로 청이가 말했다.

“비가 올 거 같혀!”

나뭇단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청년이 동문서답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해 온 나무들을 다 쌓아 놓고 목에 걸고 있던 목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았다.

“물이나 한 그릇 줘.”

“어머, 내 정신!”

청이가 놀라더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 왔다. 청년은 빈 지게 멜빵 한쪽을 어깨에 걸치고 마당으로 돌아 나오고 있었다.

“여기 물!”

“아부지는 안 계신가 보네?”

“응.”

“그럼 나가 볼게.”

빈 물대접을 돌려주며 횡하니 나가려자 청이가 불렀다.

“칠성 오빠.”

“왜?”

“저녁때가 다 됐구면, 산에서 지금 내려왔으면 배고플 거 아냐? 내 얼른 이른 저녁밥 지을게 조금만 기다려.”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뭘 심들게 밥을 한다고 하나?”

“먹고 가. 얼른 할게.”

칠성이는 어정쩡하게 마루에 걸터앉았다. 심청이네 집에서 제일 곤란한 일이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는 일이었다. 나무가 있어야 밥

도 짓고 아궁이 불도 땔 수 있는데 그걸 해 올 남자가 없었다. 청이가 그 일까지 해 왔었다. 보다 못한 뒷골 양님이네 어머니가 나무를 해 대주는 일꾼으로 자기 집 뒤에 사는 칠성이를 소개해 주었던 것이다.

칠성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손바닥만 한 다랑이논과 산비탈에 일군 돌밭이 재산의 전부였지만 칠성이는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아직 스무 살은 안 됐지만 힘도 좋고 몸도 좋아 어른 일을 다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다.

나무해다 주는 조건으로 매월 새경을 주지만 칠성이는 제 손으로 받아 가지 않았다.

“가난하게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새경은 무슨 새경입니까? 날마다 해드리는 것도 아니구. 어찌다 한 짐씩 해다 드리는 건데, 절 불편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청이는 미안해서 양님이 어머니를 찾아가 몇 푼 돈이라도 쥐여 주고 칠성이 모르게 홀어머니께 전해 달라 하곤 했다.

“청이 네가 저고리 치마도 만들 줄 알아?”

마루에서 바느질감을 뒤적이던 칠성이 부엌에 대고 물었다.

“잘은 못 해.”

“저참 제법이네?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도 못 보았는데 열다섯 살짜리 애가 만든다고?”

“나 에 아니란 말야!”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부인했다.

칠성이는 찔끔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 심봉사 부녀 혼담

해가 바뀌어 심청이도 피어나기 직전의 모란 꽃봉오리 같은 열여섯 살 처녀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세상근심 없이 잘 지내며 복을 누리는 사람은 비록 앞 못 보는 장님이었지만 심봉사였다.

“팔자가 비편 사람은 심봉사일세. 딸 하나 잘 두어 고생 면하고 잘살게 되어 그 얼굴 번들번들 개기름 흐르는 거 보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개고생하며 사는데 봉사 장님이 우리보다 신세가 늘어졌으니 어이 구 내 신세야!”

동네사람들이 심봉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란 말이 있다. 심봉사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일 것이다.

핏덩이 같은 젖먹이 딸을 들쳐 업고 양 어깨에는 밭 터진 자루 두 개를 매달고 동냥젖 있으면 자기 딸한테 한 모금만 먹여 주고 앞 못 보는 병신한테 한술만 먹게 해 달라고 아침저녁으로 골목을 헤매며 구걸하고 온각 구박, 온갖 천대 다 받아 가며 살던 것이 엇그제인데 이제는 다

큰 딸 덕에 살 만해지니까 나오지도 않은 아랫배를 내밀며 조를 빼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주모인 뺨덕이네가 추겨 준 말이 괜히 그의 어깨를 으쓱거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장가 한 번 더 가요. 봉사님 나이 육십이 되었소? 칠십이 되었소? 이제 겨우 신일곱이라면서요? 남자 한창 때 아니요? 여자를 거느려도 열은 거느리겠구먼.”

“에키순! 장님 놀리는 거야 뭐야? 나 같은 눈 병신 뭐가 좋다고 여자가 시집을 온다는 거여?”

심봉사는 필쩍 뛰었다.

“봉사면서 딸은 어떻게 낳았소? 더듬더듬 더듬어서 낳았나?”

“우리 청이는 내 눈 멀쩡할 때 낳은 거여.”

“봉사는 남자 아니래요? 봉사님이 뭘 못 해요? 두 눈 번히 뜨고 사는 작자들 못 하는 것도 착착 해내지. 유식하긴 좀 유식혀? 여자 거느릴 충분한 자격 있소. 사람만 좋으면 장님도 상관없다는 과수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신을 한다고 한 거 아니요?”

“거 농담이래두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재산이라도 넉넉하고 잘사는 봉사라면 몰라도 그것도 저것도 아닌 비렁뱅이 봉사한테 시집오겠다 할 부인네가 어디 있겠는가?”

“속고만 사셨능가.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게 해 준다고 안 해요?”

처음에는 뺨덕이네가 놀리는 줄만 알았다가 여러 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 심봉사도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져서 은근히 속으로 기대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머니부터 열어요. 꾸쳐 넣은 돈이 많다는 소문인데 이럴 때 풀어야지 언제 풀어 보겠소?”

그쯤 되자 심봉사도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뺨덕이네 주막을 들러 술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청이는 남의 집 일 나가고 심봉사 혼자서 부뚜막에 앉아 점심 한술 뜨고 주막을 찾아왔다.

“어서오세요. 심 거사님.”

“봉사가 언제부터 거사가 되었나?”

“선비가 벼슬 못 하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며 살면 그걸 거사라 하지 뭐 암행어사라 한대요?”

“실없기는…….”

“때 맞춰서 잘 오셨네요. 뒷방으로 가 봐요. 거사님을 기다리는 여인네가 있을 테니.”

“여인네?”

심봉사가 놀라서 흠칫했다.

“내가 얘기했던 그 과수덕이 마침 찾아왔지 뭐요? 날 따라오시우.”

뺨덕이네는 심봉사 소맷자락을 끌고 앞장섰다. 이윽고 뒷방에 이르더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분 냄새 같은 게 코끝을 스치고 있었다. 까닭 없이 심봉사 가슴이 뛰었다.

“앉아요.”

심봉사는 헛기침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앉았다.

“난 나가서 간단한 술상을 봐다 드릴 테니 이야기 좀 나누세요. 두 사람한테 서로 간에 누구인지는 누누이 다 말해 주었음께 만나기는 처음이라도 서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얘기 나누쇼잉?”



두 사람만 남겨 놓고 땡덕이네는 술청으로 나가 버렸다. 방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이 눈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도 처음 겪어 보는 순간이 되었다. 땡덕이네는 분명 과수맥이 짙고 예쁘장하며 곱다고 했었다. 자기 두 눈이 잘 보인다면 그 곱고 예쁜 얼굴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렇다고 안 보이니 먼저 보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면 아마도 어디라고 생면부지 젊은 여친네 얼굴과 몸을 더듬느냐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심봉사가 안절부절못하자 과수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 나두 맥에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그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땡덕이네가 개다리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아주 천정배필이네.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 자아, 술 한잔하시면 야그가 잘 풀릴 거요. 한잔 허쇼.”

술을 권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심봉사가 술 대접을 비워 냈다. 그때 술청에서 손님이 들어왔는지 주모를 찾고 있었다. 땡덕이네가 급히 밖으로 나갔다. 다시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혼자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과수맥이 물었다.

“홀애비 생활 오래 했지요. 16년 되었네요.”

“저는 딱 4년 됐구먼요.”

“식구는?”

“봉사님처럼 외동으로 딸이 하나 있는데 재작년에 시집가서 지금 진도에 살고 있구먼요.”

“그럼 지금은 혼자 지내시겠네? 외로울 때가 많으시겠구먼?”

“봉사님두 처지가 비슷하니까 동병살인으루다가 공감하시겠구먼요.”

“동병살인이 아니고 동병상련(同情常憐)이지요.”

“봉사님은 새장가 드실 생각은 꼭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 같은 장님한테 누가 시집오겠소? 나 같은 병신한테 오면 남은 평생 고생일 텐데? 손 안 잡아 주면 아무것도 못하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거기다가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요? 집안이 왕왕해요 아니면 재산이 많아요? 그 모양이라 주모가 중신을 한다가에 난 손을 흔들었소이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두 말라고.”

“자격 따지면 누구 자격이 되나요? 그래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군요?”

“없었지요. 헌데 주모가 한긋하면 눈이 멀어서 그렇지 심봉사 어디가 빠지는 게 있느냐? 인물 흰하고 날씬하고 키도 후리후리하고 육십도 한참 전인디 홀애비로 늙기엔 너무나 아깝다.”

“저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봉사님 처음 뵈 게 아니고 나는 두어 번 주막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주모 말이 맞아요. 홀애비로 살다니 아깝지요.”

“그 바람에 용기가 나서 늦발에 팔자 좀 고쳐 볼까 했답니다. 비웃지는 마시오.”

“아이구 봉사님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 인연이 닿아서 좋은 일로 맺어진다  
면 얼마나 좋겠소? 내가 봉사라서 싫지만 않으면 가끔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 봅시다.”

“배우신 분이러더니 말씀도 잘하시네요. 그러겠습니다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물론 다음에 만날 약조를 한 것도 아니었다.  
과수택이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가 버리자 심봉사는 허전함을 느꼈다.

“다음에 만날 약조는 했나요?”

팽덕이네가 목로를 행주로 훑쳐 내며 물었다.

“인연 있으면 다시 만나자 했지.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지는 않았소.”

“개구리 수염 나졌네.”

“무슨 소리요?”

“잘되면 국수 한번 얻어먹을까 했더니 세월아 가거라요? 일은 뭐가  
됐던 빨랑빨랑 해치워야 되는 거요.”

심봉사는 멧쩍어서 우물우물하다가 주막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다.  
가슴속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아내 죽은 후 처음으로 아낙네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이렇게 기분을 들뜨게 할 줄은 몰랐던 것  
이다.

‘잘되었으면 좋겠구나.’

코끝에는 지금도 분 냄새가 남아 있었다.

며칠이 흘러갔다. 심봉사는 궁금해서 매일 주막을 찾아갔지만 과수  
택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초조해서 그래요? 누굴 기다리고 있나 봐요? 매일같이?”

팽덕이네가 지나가는 말로 던졌다.

“기다리기는 누굴 기다린다고 그래요?”

“호호호 이마에 짙어 있구면 뭘 그래요? 나는 과수택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요. 그렇게 말이지요.”

“어흠, 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 잠깐 봐요.”

심봉사더러 뒷방으로 잠시 오라 했다.

“혹시 과수택한테 안 좋은 소리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요?”

“이삼 일이면 한 번씩은 계속 들르더니 요새는 한 번도 오지 않으니  
말이에요? 뭐 다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주모도 참, 딱 한 번 만나 노루꼬리보다 더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뭔 상관있어 다툰단 말이요?”

“그럼 보성에 갔나? 다른 쪼간 때문에 못 오는갑소.”

“고명딸 하나 있는 거 시집보내고 혼자 산다든데 집안에 뭐 시끄러운  
일 있는 거는 아니겠지요?”

“내가 알기로 딱 한 가지 빼고는 집안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걱정거리인데요?”

“챙피하다고 누구한테도, 심지어는 시집간 딸이나 사위한테까지도  
야그를 안 했답디다. 그 집 서방님이 병들어 누워 살다가 죽는 바람에  
빛을 켜고 병들기 전에는 노름빚이 많았는데 그것도 탕감을 해 주었어  
도 못 갚았대요.”

“빛이 얼마나 되는데?”

“오십 냥쯤 된다고 합디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그 과수택 이쁜 얼굴

에 그들이 저 있곤 했어요.”

“거참 안됐구먼.”

심봉사는 혀를 차며 과수택을 동정했다.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 보세요.”

심봉사는 일부러 무심한 척 앞에 있는 술잔을 들었다.

한편 심청이는 새터에 사는 이 참봉 집 일을 해 주고 샅으로 찹쌀 몇 되를 얻어 들고 뒷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청이가 해 준 일은 디달방 아였다. 떡을 한다고 쌀가루를 빵아 달라 한 것이다.

오래된 감나무 옆 길을 돌아가는데 맞은편에서 빈 지게를 지고 걸어 오는 칠성이가 만나게 되었다.

“어디 갔다가 와?”

청이가 묻자 나무하러 검장산에 가는 길이라 했다.

“음식도 맛있게 잘하드라?”

지난번 나무를 해다 주었을 때 밥을 지어 준 걸 먹었기에 하는 말이 었다.

“맨밤에 김치밖에 더 먹었어?”

“국도 먹었는데 뭘 그려?”

“먹고 싶으면 언제든 들러.”

“고맙다. 그럼 내려가 봐라.”

칠성이가 청이를 지나쳐서 걸어갔다. 그때 청이가 급히 불렀다.

“칠성 오빠.”

“왜?”

“일루 와 봐요.”

뜨악하게 칠성이가 다가오자 청이는 그의 바지 허리춤 쪽을 건드 렸다.

“왜 그려?”

“응뎅이 나오겠네. 어떻게 한가운데가 찢어졌을까? 그 꼴을 하고 다 닌 거야?”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네. 어?”

칠성이는 엉덩이 쪽을 만져 보고 흠칫 했다. 한가운데가 찢어져 있었 던 것이다.

“조금만 더 찢어졌으면 개망신할 뻔했네. 내가 꺾매서 막아 줄 테니 까 날 따라와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칠성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휘적휘적 앞서 걸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청이 집에 도착했다.

“내가 여기 마루에서 꺾매 줄 테니까 바지를 벗어요.”

그러면서 청이는 반짚고리를 가지고 왔다.

“왜 안 벗어요?”

“.....”

“빨리 가야 한다면서요?”

“이거 그냥 벗을 수가 없어서 그런다.”

“왜요?”

“나 그냥 갈란다.”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요?”

“사정이 있어. 바지를 벗을 수 없는 사정이야. 벗으면 난 망신당하는 거야.”

그제야 청이는 칠성이가 왜 귀밑까지 붉히면서 그냥 간다고 버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오빠만 안방으로 들어갈래요? 들어가면 아랫목에 흠이불이 있으니 까이불로 좀 가리고 기다려요. 바지는 벗어서 마루로 내놓고, 알았죠?”

“괜찮은데…….”

계속 망설이며 그냥 일어나려 하자 청이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라 했다. 칠성이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빨리 내놔요.”

“누구 올 사람 없지?”

“아버지가 있지만 늦게 오시니까 염려 말아요.”

이윽고 칠성이는 알았다 하더니 벗은 바지를 방문 밖으로 밀어 내놓고 급히 문을 닫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청이는 비늘을 꿰고 터진 곳을 꿰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골목에서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심봉사의 지팡이 소리였다.

“어뭇, 아버지!”

사립문을 밀고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자 청이는 께매던 바지를 놓칠 뻔했다.

“청이가 들어와 있었구나.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바, 바느질을 좀 하고 있었어요.”

청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심봉사는 지팡이를 기대어 놓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 아버지. 안 돼요.”

“뭘이까?”

“어디 다녀오셨는데 발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요?”

“냄새?”

심봉사가 코를 별름별름했다.

“발 꼬랑내가 난단 말이나? 안 나는데?”

“마루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물 떠다 드릴 테니까 발부터 씻고 들어가세요.”

“엇저녁에 씻었구만 또 씻으라고 허네.”

청이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마당가에 놓았다. 심봉사는 알 수 없다는 듯이 버선을 벗고 물속에 발을 디밀었다. 그사이 청이는 방 안에 대고 칠성이에게 소곤거렸다.

“옷방으로 잠시 피신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꿰매니까.”

그러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했다. 흠이불로 가리고 윗방으로 옮겨 간 모양이었다. 청이는 부지런히 두 손을 놀렸다.

“수건은 쥐야 닦을 거 아니냐?”

“벌써 다 씻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랫줄에 널어놓은 수건 다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바지 꿰매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바꿨다. 심봉사는 마치 뒤집어진 개구리처럼 두 발을 하늘로 쳐들고 두 손은 뒤를 짚고 있었다.

“허허, 허리 다리 고개. 안 아픈 데가 없다. 두 다리에 쥐가 오른다. 아이구, 청아, 뭐 하나?”

심봉사는 하늘로 쳐든 두 다리를 버리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제

야 청이는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목수건을 찾아가져다주었다.

“오늘따라 이상하네. 발 씻칠라던 지가 씻쳐 주고 수건으로 물기까지 지가 다 닦아 주면서 왜 이러니?”

청이는 얼른 다가와서 심봉사의 물 묻은 두 발을 닦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칠성이 바지를 완전히 다 못 꿰맨 데 있었다. 심봉사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칠성은 이미 윗방에 피신해 있으니 들길 염려는 없어서 안심하고 마지막 손질을 했다. 그때 심봉사가 방 밖에 대고 말했다.

“누가 왔다 갔나?”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두 참.”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청아! 혹시 도적놈이 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 집 방에서는 이런 고약한 냄새는 안 난다. 메주 뜨는 냄새. 고약한 땀 냄새. 이건 송악한 사내놈 냄새여. 틀림없다. 도적놈이 들어온 거여. 이 놈을 잡아내야 한다.”

“대낮에 무슨 도적이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했다. 앞을 못 보는 대신 심봉사는 다른 사람 두 배 정도 미세한 후각嗅覺과 청각聽覺 그리고 촉각觸覺을 가지고 있었다. 칠성이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도적놈이 윗방에 숨은 것 같은데?”

윗방 문을 여는 것 같다.

‘어쩌면 좋아? 들키면?’

청이는 가슴을 조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행히도 아버지는 보지를 못하고 더듬어서 만져 보아야 실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잘만 숨어 있으

면 괜찮을 것 같았다.

“이놈이 이 방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마루 쪽으로 나 있는 윗방 문이 열리며 그 방에 숨어 있던 칠성이 아랫도리를 흠이불 자락으로 감은 채 고양이 걸음으로 나왔다. 다행히 청이는 그때쯤에는 터진 칠성이 바지를 다 꿰매고 난 다음이었다. 청이가 칠성에게 바지를 던져 주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서 갈아입으라고 턱짓을 했다. 칠성은 바지를 들고 부엌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아무도 없잖아요?”

청이가 방 안에 대고 큰 소리로 묻자 심봉사가 대꾸했다.

“이상도 하다. 냄새는 계속 나는데 도적놈은 안 보이니 말이다. 도둑 맞은 거나 없는지 와서 살펴보아라.”

“도적이 들어왔으면 가져갈 게 없는 집이라 되려 보태 주고 같걸요?”

심봉사가 마루로 나왔다.

“밥은 않냐?”

“해야지요. 그보다 먼저 물을 길어 와야겠어요. 밖은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오냐, 이진 또 뭐냐? 이거 허리끈 아니냐?”

마루구석에 놓여 있던 칠성이 바지 허리끈을 주워 들고 심봉사는 자기 것인 양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청이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칠성이 엉거주춤 서 있었다.

“허리끈이 없으니 갈 수가 없어.”

“내가 내일 가져다줄 테니까 괴춤을 말아서 움켜잡고 아신 대로 그냥

가면 안 돼?”

“말 같은 소릴 해라. 그럼 지게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한테 그 허리끈은 오빠 거니까 빨리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해. 내가 물 길어 오는 동안 오빠는 이 부엌에서 기다려. 다녀와서 허리끈 꺼내다 줄게.”

“나 이거야 원.”

칠성이는 쓴 입맛을 다시며 빨리 다녀오라 했다. 이윽고 청이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칠성이는 배가 아파 아랫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틀어잡고 태평스럽게 잠이 들어 있었다. 청이가 물독에 물을 붓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마루에서 주운 허리끈을 달라고 했다.

“왜?”

“그거 내 거예요. 물 길러 갔더니 치마가 자꾸 감기네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지. 그리고 칠성 오빠가 지나다가 들렀길래 장작 좀 패 주고 가달라 했어요.”

“너는 왜 만날 때마다 부러먹냐? 이따가 저녁이나 먹어서 보내라.”

“네.”

아버지가 내어준 허리끈을 가지고 부엌으로 왔다. 청이는 잠들어 있는 칠성이를 흔들어 깨웠다.

“히, 내가 잠들어 있었나?”

“이 마당에 잠이 올까?”

“자, 난 간다. 바지 막아 줘서 고맙다.”

“불이나 좀 때 줘요.”

“왜?”

“아버지한테 오빠가 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이라도 한 끼 먹어서 보내라 하셨네요. 얼른 할 테니까 저녁 먹고 가세요.”

“내가 온 걸 왜 얘기했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겠다는 듯 난처한 얼굴이 되어 있던 칠성이는 알았다며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어려서부터 보아 온 두 사람의 정이 들어 오누이 같았다.

“오빠 앞으로 장가도 못 갈 뻔했어.”

“무슨 소리야?”

“밑 터진 바지 입히는 애들은 아마 서너 네댓 살까지지?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못하니까 툭 터져서 갈라진 바지 입혀서 내보내잖아? 그런데 오빠는 나이 스물이 다 된 총각인데 애들처럼 밑 터진 바지 입고 돌아다녔으니 말이지. 그거 본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냐? 장가가기 틀렸다고.”

“산에 가서 일하는데 누가 보았겠냐? 노루가? 까치가? 삿꾸기가? 그 정도가 보았을 텐데 뭘. 너 내일도 디딜방앗간에 가냐?”

“보리쌀 짙어 주기로 했어.”

“너 올 때쯤 맞춰서 데릴러 갈게.”

“소문나요.”

“소문나면 또 어때서?”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청이를 바라보았다. 얼마 되지 않아 이른 저녁상이 차려졌다. 상은 칠성이가 들고 들어갔다.

“어르신 안녕하시지요? 저 칠성이입니다요.”

“왔구나. 때 되면 나무해 주고 힘든 집안일까지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 은공을 어떻게 갚는다냐?”  
 “별 말씀은요.”  
 “우리 청이도 근면하고 일 잘하고 어른 잘 모시는 너 같은 신랑감을  
 만나야 할 터인데.”  
 그러자 청이가 말을 막았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왜 시집타령이세요? 식어요. 어서 식  
 사나 하세요.”  
 “그래. 칠성아, 어여 먹자.”  
 맛있게 먹는 칠성과 눈을 마주치자 청이의 뺨이 붉어졌다.

## 심봉사 연정

한편 심봉사는 팽덕이네가 소개한 과수맥을 잊지 못하고 주막을 오  
 락가락했지만 진도에 다녀온다고 갔다며 소식이 끊기고 말아 심봉사의  
 속을 은근히 타게 만들었다. 초겨울이 지나면서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이런 날 어디 가시려고 차리고 나서세요? 눈이 오고 있잖아요?”  
 청이가 아버지의 외출을 만류하고 나섰다.  
 “아니다. 내가 꼭 다녀올 데가 있어서 그런다. 후딱 댕겨오마.”  
 “누구 만나시는데요?”  
 “너는 알 것 없고 추우니까 너도 오늘은 집에 있거라.”  
 지팡이를 찾아 들고 심봉사는 사립문을 나섰다.  
 “눈 쌓이면 위험하니까 얼른 다녀오셔야 해요?”  
 청이는 걱정스러워서 심봉사 등 뒤에 외쳤다. 이윽고 심봉사는 흙다  
 리를 건너갔다. 얼마 가지 않으면 삼거리가 나오고 그 길가에 주막이  
 있었다.

“주모 계신가?”  
 휘장을 걸으며 심봉사가 인사를 하자 땡덕이네가 반갑게 맞았다.  
 “오매, 봉사님. 봉사님도 양반은 못 되겠소.”  
 “무슨 소리야? 곧 죽어도 나 뼈대 있는 양반인데?”  
 “봉사님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랑께요. 왔어요.”  
 “누가? 누가 왔다는 거야?”  
 “일구월십 봉사님이 기다리던 과수택이 왔지 뭐요? 지금 마침 뒷방  
 에 있으니 들어가서 회포를 풀어 보시구랴.”  
 심봉사는 공연히 들떠서 뒷방 가는 방향을 못 찾고 더듬었다. 땡덕이  
 네가 킁킁거리며 뒷방 쪽으로 심봉사 팔을 끌고 갔다.  
 “과수택, 누가 오셨는가 잘 봐.”  
 “안녕하셨어요? 심봉사님.”  
 과수택 목소리가 들리자 심봉사는 반갑게 인사했다.  
 “앉으셔서 얘기 나누세요.”  
 주모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오랜만이지요?”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요.”  
 “뵈고 싶었어요. 봉사님은 안 보고 싶으셨겠지만요.”  
 “아이구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한데요? 나도 보구 싶었지요.  
 보구 싶어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헌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오지 못했지?”  
 “사실은 저희 복잡한 집안 일이 있어 못 왔어요.”  
 “뎌 일인지는 몰라도 해결은 되었나요?”

“…….”  
 과수택은 한숨만 내실 뿐 말이 없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땡덕이네  
 가 작은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눈이 오는구만. 이런 날은 펄펄 끓는 모주를 한 잔씩 마셔야 해. 그래  
 야 추위도 싸악 가시고 사지가 노글노글해서 기분 좋은 거여. 자, 두 양  
 반이 한 대접씩만 마셔. 겁나게 뜨거웁게 조심해서 마시더라고. 잘못하  
 면 입천장 홀랑 까징께. 식혀 가면서 마시는 게 좋아.”  
 심봉사는 대접을 들고 과수택한테도 권했다.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구만 한 잔 하고 잊어버리시오.”  
 “고마워요.”  
 술을 마셨다. 막걸리에 꿀을 타서 펄펄 끓인 술을 모주라 한다. 뜨거  
 운 술이라 마시면 당장 몸속에 불이 난 것처럼 화끈거린다. 술이 넘어  
 가자 소심한 심봉사도 조금은 대범함을 찾고 그녀를 불렀다.  
 “저어 과수택!”  
 “예.”  
 “난 앞을 못 보는 장님이요. 과수택이 얼마나 예쁜 분인지 알 수가 없  
 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요.”  
 “예쁘기는요 그저 그래요.”  
 “게다가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기두 하구요.”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군요.”  
 “그럼 제가 옆으로 갈까요?”  
 “그래 달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심봉사가 어물거리자 과수택이 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제 되셨어요?”

“아, 예. 몸 냄새도 나는 것 같구. 훨씬 가깝게 느껴지네요. 대체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는지 들려줄 수 있나요?”

“생면부지 잘 모르시는 분에게까지 말씀드려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허허, 아주 등 돌릴 남이 될지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 누구도 모르잖소? 혹시 압니까? 나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서서 도와드려도 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사실은요…….”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이러시오? 말을 하라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심봉사는 안타까워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의 손이 잡혔다. 뿌리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더 크게 오열했다. 심봉사는 자기도 모르게 잡은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상체가 심봉사의 옆구리에 기울어져 기대게 되었다.

“그만 우시오. 그만 울고 얘기를 해 보라니까 그러네.”

뜨거운 모주를 마셔서일까. 그녀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심봉사가 또닥이며 달래자 그녀는 겨우 울음을 그쳤다. 심봉사는 자기가 마시다 남긴 술을 권했다. 그녀는 목이 타는지 금세 비워 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인제 그 어려운 집안 일이 뭔지 들어 봅시다.”

“봉사님, 그만두세요.”

“왜요?”

“봉사님이 들으셔도 해결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날 무시하는 거 같소.”

그때 팽덕어머니 떡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방앗간 집 고사 지냈다고 가져온 것인데 맛이나 좀 보쇼.”

상 위에 떡접시를 올려놓고 과수택 눈치를 살피던 팽덕이네가 혀를 끌끌 찼다.

“에에이구, 또 눈물비람 했구먼? 운다고 해결될 일이당가? 쫓쫓.”

“무슨 어려운 일인지 얘기를 해 보라 해도 입을 다물고 도리질을 하네. 내가 듣는다 해도 해결방도가 없다는 거여.”

“과수택!”

팽덕이네가 불렀다.

“추워서 벌벌 떠는 냉골 방에서 자려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했네. 혹시 알어? 봉사님이 해결할 수 있을지?”

“암만요. 주모는 알고 있는 것 같구먼. 대체 뭐래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지요. 과수택이 된 거는 인제 3년 된 것 같은디 죽은 서방이 빚을 지고 갔지 뭐니까?”

“빚을?”

“원래부터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땅에다가 붙여먹고 농사지어서 근근이 살았던 모냥인디 쫓에 노름을 좋아해서 노름빚을 많이 졌었대요. 갚기도 엉간히 갚고 죽었는데도 아직도 50냥이 남아 있다지 뭐니까?”

“50냥? 제법 큰돈이네?”

“빚놀이하는 꿈지가 그 50냥 받아 내려고 온갖 험박을 다하다가 초

가삼간까지 잡고 과수택을 길거리에 내쫓는다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예다가 과수택인 처지에 어디 가서 돈을 벌 것ियो? 벌어 봐야 몸으로 허는 일이고 해 봐야 몇 푼 벌어도 못하는데?”

“허허, 정말 딱하게 되었구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봉사님이 빌려 주는 조건으루다 대신 50냥, 갚아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봉사한테 그런 거액이 어디 있나?”

“죽은 청이 어머니가 백 냥을 모아 장 승상택 부인한테 맡겨 두고 저승 갔다는 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시침을 떼슈?”

“내가 술 취해서 허장성세를 부려 본 걸 가지고 그걸 믿었더란 말인가? 딱하기도 하네.”

“나만 알고 있으라고 봉사님이 내 귀에 대고 속닥거렸잖소?”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청이 시집갈 때 쓰겠네.”

“왜 한 입으로 두말하실까?”

그러자 과수택이 한마디 했다.

“언니. 그만하세요. 설사 있다 해도 그 큰돈을 까닭 없이 왜 알몸뚱이인 나 같은 사람에게 내주시겠어요? 당장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봉사님이 있는 돈을 없다 하시겠어요?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 자꾸 하면 나 진도로 다시 갈래요.”

“안 할게. 암만! 그러니 간단 소리는 하릴 말어. 우리 주막일 도와주며 나하고 같이 고생허자고, 알았지?”

팽덕이네는 급히 이상해진 분위기를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손님 왔나 본다며 술청으로 나가 버렸다.

“죄송해요. 봉사님.”

“이상하게도 내가 자꾸 미안해지는구먼.”

심봉사는 다시 과수택 손을 잡아 꼭 쥐어 주었다.

“과수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소? 힘을 내요.”

“고마워요.”

과수택은 심봉사에게 기대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방구들 꺼지겠소. 한숨 좀 쉬지 말아요.”

“죄송해요.”

“과수택, 혹시 해서 하는 말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오. 주모한테 얼핏 듣자니 개가를 하고 싶어도 빗더미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팔자 좋게 무슨 재혼타령이나 그랬다던데 사실이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구요. 심봉사님이 비록 앞은 못 보는 분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묵은 신랑감이리구요. 넉넉한 재산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너무 따지지 않는 게 좋다고도 했어요.”

심봉사는 자기가 생각해도 주책없이 가슴이 뛰는 걸 누르며 되물었다.

“그, 그래서 뭐라 했지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좋은 분 같고 하지만 나에게서는 과분한 분이라고 했어요.”

“지, 진심인가요?”

“네, 하지만 나에게 개가 재혼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다. 빗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주제에 재혼이라니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싫다고 했

어요.”

“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심봉사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과수택의 태도로 보면 마음으로 는 심봉사에게 기울어져 있지만 빛 가리는 일이 앞을 막고 있어 곤란하 다는 말 아닌가.

‘미칠 일이구나. 왜 돈이 가로막아?’

시원하게 그 돈 내가 갚아 줄 테니 나와 합쳐 삼시다 한다면 간단할 일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까웠던 것이다. 물론 뺨덕어멈 말 대로 심봉사가 백 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돈은 생전 의 아내가 십 몇 년 동안 안 쓰고 모은 돈이었다.

아내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건 아니었 다. 믿을 만한 부잣집에 맡겨 놓고 급할 때 쓰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 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믿고 맡겨 둘 만한 곳은 장 승상택이었고 승상 택 마님이었다.

“참 신통하네. 어떻게 쓰지 않고 모았는가? 나한테 맡겨 두면 안심해 도 될 거야. 매년 연말이면 내가 원금에 대한 이자조(子條)로 해마다 더 붙여 주겠네.”

부인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청이야 어려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컸지만 심봉사 또한 아내가 돈을 모으고 승상택 부인에게 맡겨 두었다 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은 아내가 눈감을 때 마지막 유언을 들어서 알게 된 것 이다.

“승상택 마님께 돈 백 냥을 맡겨 둔 게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찾아가서 돈을 달라 하면 내주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청이가 자라서 시집을 보낼 때 혼사비용으로 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심봉사는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승상택으로 마 님을 찾아갔었다.

“저런 변이 있나? 산후병을 얻어 그리되었구먼? 초상이 났으면 사람 이라도 보내어 알려 줘야지 다 치르고 이제야 왔어요?”

“경황 중에 그리되었습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뒤늦게라도 마님 께는 꼭 알려드려야 인사가 될 것 같아 이제 왔습니다.”

승상택 마님은 심봉사가 돌아갈 때 쌀 서 말과 심봉사가 입을 만한 현웃 네 벌과 청이가 입을 만한 한복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등 세 벌을 싸 주었고 장롱 깊은 곳에서 맡겨 두었던 돈도 꺼내 주었다.

“아마 백이십 냥일 거예요. 스무 냥은 내가 생각해서 붙여 준 이자랍 니다.”

그냥 더 맡겨 뒤도 될 거란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님이 꺼내 주니 그 냥 받아 들 수밖에 없었다. 심봉사는 청이한테도 비밀에 붙이고 그 돈 120냥을 가져다가 작은 단지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 장독대 밑 꽃 발머리에 묻어 두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뺨덕어멈이 안 것이다.

물론 주모는 승상 부인에게서 심봉사가 돈을 찾아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캐내지 못해 모르고 있 었다.

술이 유죄지. 술 취하면 쥐뿔도 없으면서 호기를 부린단 말야. 조심

해야 돼. 까닥했으면 장독대 밑에 파묻었다고 실토를 할 뻔했잖은가?

“눈이 제법 오나 봐요.”

“허, 그래요? 쌓이면 안 되는데?”

“어서 돌아가세요. 따님이 걱정하겠어요.”

심봉사는 정신이 드는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또 만납시다. 힘을 내시오.”

심봉사가 주막 밖으로 나왔다. 주모가 조심해서 가라고 인사를 했다. 지팡이를 든 심봉사가 걸음을 옮겼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차갑게 달라붙고 있었다.

“안 되겠어요. 제가 모셔다드릴 게요.”

과수택이 심봉사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팔짱을 꼈다.

“험!”

심봉사는 갑자기 숨을 막았다. 포근한 여인의 체온이 자기 옆구리에 실렸기 때문이었다. 잠깐 정신이 아득했다.

“누가 보면 어쩔라구 이리시오? 허어 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껴져 있는 팔은 빼내지 않았다.

“누가 보는 게 대순가요? 눈은 오구 봉사님은 앞을 못 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걸 누가 이상하게 본단 말예요?”

“그 그건 그렇소만.”

과수택은 심봉사의 팔짱을 낀 채 함께 걸었다. 흙다리 위에 이르렀다.

“위험한 다리네? 눈 오는 날 미끄러운데 무슨 다리가 그래 난간도 없대요? 나아 참. 혼자 가시게 앓길 정말 잘했네요.”

청이네 집이 있는 골목 어귀에 이르렀다. 심봉사는 아쉬워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과수택 손을 잡고 눈길을 한없이 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수택!”

“네.”

“내일 또 만납시다.”

“꼭 만날 약조는 못하겠어요. 제가 어딜 다녀와야 할 데가 있거든요.”

“그럼 모래 만납시다.”

“네에. 댁이 어디지요?”

“여기가 우리 집 골목이요. 자아 인제 돌아가시오.”

심봉사는 아쉽게 과수택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는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 마냥 들떴다.

“아버지, 왜 이리세요? 젓가락을 들고 국을 떠 잡수시려고 왜 그래요?”

“내가 그러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나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었다. 청이야!”

“네 아버지.”

“기다려 봐라. 잘하면 이 애비 팔자 고치게 생겼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뭔데요? 누가 눈을 뜨시게 해 준대요?”

“누가 그러더라. 중국에 그 유명한 의원인 화타<sup>華佗</sup> 같은 분이 있다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요?”

“장님은 두 가지란다. 날 때부터 봉사인 장님, 또 하나는 멀쩡한 눈 가지고 살다가 병이 나서 갑자기 맹인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장님은 눈을 못 고치지만 병나서 갑자기 나처럼 맹인이 된 봉사는 잘만 치료하면 뜰 수가 있다고 하더라.”

“그럼 유명한 그 의원을 찾아야지요?”

“돈이 아주 비쌀 거라 하더라.”

“제가 벌어서 꼭 쓰시게 만들 거예요. 뜰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효녀 딸이 있어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간다. 말이라도 고맙다.”

심봉사는 청이에게 그 과수택 이야기를 꺼내 놓으려다 참았다. 왠지 창피스러워서였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자신이 없고 은근히 겁도 났던 것이다.

다른 말도 아니고 애비의 새장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처녀가 다 되었으니 청이도 이해를 할 만한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청이가 보일 태도가 겁났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필쩍 뛰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울면 어떻게 해결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나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하기로 하자. 지금은 아니다.’

심봉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한편 이틀 후면 만날 수 있을 거라며 헤어진 과수택은 또 나타나지 않아 심봉사의 애를 태웠다.

“과수택 만나기로 했나요? 오늘?”

주막으로 찾아온 심봉사를 보자 뺨덕어머니가 물었다.

“글쎄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뒷방에 가서서 기다려 보세요. 술 한 잔 하시구.”

심봉사가 뒷방으로 갔다. 아침나절에 왔는데 저녁 새때가 되도록 과수택은 오지 않았다. 뺨덕어머니가 들어왔다.

“안 올 모양이오. 너무 기다리지 마시오.”

“역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런가 봐요. 내색은 안 하지만 빗쟁이들한테 쫓겨나면 거지신세가 되는디 자기보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어 그게 걱정이랍니다.”

“허허, 정말 딱도 하구먼?”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거들어도 되겠지라?”

“해 보게.”

“봉사님은 과수택을 어떻게 생각하신다요? 꼭 잡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가요?”

“…….”

“싫은가 보네.”

“뭘 소리! 싫으면 내가 왜 자꾸 만나려고 하겠는가?”

“과수택도 봉사님 생각을 무던히 하더구먼. 과수택도 좋아하고 있어요.”

“뭘요? 나를?”

심봉사가 놀라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렇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과수택은 봉사님 덕에 들어가 함께

살았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보기에 빛  
이 가로막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봉사님!”

“응?”

심봉사는 자기도 모르게 들떠서 가쁜 숨까지 몰아쉬고 있었다.

“내 보기에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분은 봉사님밖에 없는 것 같  
아요.”

“내, 내가 어떻게?”

“오십 냥 갚아줘 버리면 과수택은 눈물 흘리며 심봉사님 품으로 들어  
올 거라 그 말이지요.”

“오십 냥을?”

“속히 생각해서 결단을 내세요. 일이 더 커지면 과수택은 여길 올 수  
없으니까.”

“아, 알았네.”

심봉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떨려서 휘청했다. 겨우 주막을  
나섰다.

## 말없이 사라진 과수택

심봉사는 과수택 걱정으로 입맛까지 잃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얼굴이 수척해지고 누워 있는 날이 많아졌다. 딸 청이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마음 편하게 일을 나갈 수 없었다. 그날도 아침도 드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아랫목에 누워 버렸다.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신 데 있으면 말씀해 주  
야지요.”

“기운이 좀 없어서 그럴 뿐이다. 아픈 데는 없어. 어여 일이나 나가  
봐라.”

청이는 알았다며 집에서 나와 동네 의원 댁으로 찾아갔다.

“너어 청이가 아니냐?”

의원인 이 초시가 인진쑥을 말리다가 찾아온 심청이를 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웬일로 왔지? 누가 아프냐?”

“예,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 좀 봐 주세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기운 없다며 자꾸 누우시는 날이 많아서요.”

“그래? 그럼 가 보자.”

청이는 의원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의원님 모시고 왔어요.”

“아이구 애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네? 난 정말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바쁜 양반 왜 모셔 와?”

심봉사가 엉거주춤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흔들었다. 그 손목을 잡아 맥을 보면서 의원인 이 초시가 말했다.

“기왕 왔으니 어디에 병이 났는지 알아나 보구 가야겠네.”

진맥을 마친 의원이 심봉사에게 결과를 말해 주었다.

“제때 먹지를 않아서 심신이 아주 허약해져 있구먼? 심맹인! 혹시 근심걱정 되는 일이 있소?”

“근심? 그 그런 일 있을 턱이 있소?”

“입맛 없고 맥 떨어지고 자꾸 눕고만 싶고? 안 그런가?”

“그냥 입맛만 없다구요.”

“수심병(愁心病) 같네.”

“그게 무슨 병인데요?”

청이가 물었다.

“마음에 근심이 깊어져서 생기는 병이란단다.”

“저희 아버지가 근심이 깊다구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예요? 왜 절 속이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혼자서만 속앓이를 하신 거냐구요? 네?”

“애야, 네가 벌어다 주는 따뜻한 밥 먹고 네 엄마 못지않게 철철이 옷해 입히고 남들한테 지지분하다고 흥잡힐까 보아 언제나 깨끗하게 빨아서 잘 입혀 주고 심심하면 한 잔 술도 해 가면서 부족한 것 없이 콧노래가 절로 나오게 살고 있는데 근심이라니 그런 거 없다.”

심봉사는 두 팔을 벌리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흔들었다.

“병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여. 근심 수심이 없는데 증상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보약이나 몇 첩 먹고 기를 보하면 당장 나올 것이네.”

그렇게 말하고 난 의원이 떠나갔다. 더 이상 청이가 걱정하는 걸 볼 수 없어 심봉사는 억지로 외출을 했다. 지팡이를 두드리며 안골 마을로 건너가는데 지팡이 끝에 자석이라도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주막 안으로 끌려들어 갔다.

“뺨파 기신가?”

“아이고 봉사님 오셨네. 뒷방으로 들어가 보셔. 마침 잘 왔네요. 소식도 없이 오지 않던 과수댁이 왔어요.”

심봉사는 귀가 번쩍 뜨이는지 희색만면하여 뒷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과, 과수댁 왔소?”

“아, 어르신.”

반갑게 맞이하는 목소리는 역시 과수댁이었다. 심봉사는 염치불구하고 두 손을 내밀어 과수댁 양손을 더듬어 잡았다.

“왜 왜 이제야 왔소? 얼마나 고생했소? 앓읍시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대체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요? 빗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요?”

“……네.”

과수택은 모기소리만 하게 말하며 목이 뻐다.

“어떻게 하기로 했소?”

“남편 죽고 난 그동안 혼자 지냈지요 빗쟁이들은 이 달 말까지 빚을 가리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을 잡고 내쫓는다구 했어요. 돈이 있어야 갚지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집 뺏기고 그리되면 나도 아무도 모르는 타관에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거칠 것이 없어진다면 그때 봉사어른을 찾아뵈려구 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오? 과수택 도와주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야지? 주모도 있구 나도 있지 않소?”

“마음만 받겠어요.”

“지금이라도 오십 냥 돈만 갚으면 무탈해지는 거지요?”

“그렇긴 하지만 어디서 그런 거금이 나오겠어요?”

“과수택!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오. 저어 이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그 골치 아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여 볼 테니까.”

“아니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과수택은 심봉사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내일 아침에 꼭 만나요. 또 말없이 가 버리지 말고? 약조하지요?”

“……네.”

“과수택!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뭘테요? 말씀하세요.”

“눈이 먼 것이 정말 지금처럼 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과수택인데 얼굴이며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말이오.”

“그건 그러시겠네요?”

“무례하고 불쾌한 부탁이겠지만 내 두 손으로 만져 보게 해 줄 수 없겠소? 만져만 봐도 알 것 같아 그러오.”

“그렇게 하세요.”

“고맙소.”

심봉사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참으며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았다.

“두상머리가 좋습니다. 삼단 같은 머릿결이라더니 머리술도 많고? 이마는 꼭 차서 예쁠 것 같고 두 눈은?”

과수택의 얼굴 윗부분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 갔다.

“두 눈은 쌍꺼풀이 없는 은행 눈이군요. 은행 눈은 예부터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 부부금실이 남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너그러운 성품이 없고 골반이 좁아 아이를 분만할 때 난산할 확률이 많다 했는데 과수택은 그 미간 사이 간격이 적당하고 아!”

심봉사가 손놀림을 멈추고 흠칫 놀라자 과수택도 덩달아 놀랐다.

“왜 그러세요?”

“정말 아름다운 입술을 가졌군요. 이렇게 도톰하고 앵두처럼 생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아이.”



과수택은 부끄러워하며 심봉사의 손에서 얼굴을 빼냈다.

“이제 그 얼굴이 얼마나 미인인지 머릿속에 뚜렷이 새겨졌소.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실례 그만하고 일어나겠소.”

심봉사는 과수택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왜 이렇게 밤늦게 다니세요? 어두우면 깜깜해서 더 위험한 데.”

“허, 허, 허, 장님한테는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이라는 걸 몰라 하는 소리냐? 저녁은 먹었다.”

“어디서요?”

“그저까지는 알 거 없고 청아, 여기 좀 와 앉아라.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다.”

청이가 아버지 앞에 다소곳하게 앉았다.

“말씀하세요.”

“느희 어매 간 지도 오래됐지? 벌써 17년이 됐구나. 십칠 년! 십칠 년!”

심봉사는 십칠 년이란 햇수를 자꾸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런데요?”

듣다못해 청이가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했더니 벌써 선일곱이구나. 남들은 이제라도 새장가 들어 팔자를 고쳐 보라 하더라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두 말라고 딱 잘랐다.”

“왜요?”

“너두 생각해 봐라.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 재산이 있냐

가문이 있냐? 내가 성한 눈이라도 가졌냐? 게다가 이제는 늙어빠졌다고 호랭이도 무시하며 안 물어가고 그냥 지나친다는 욕심이 널모레다. 그뿐이냐? 우리 집에 계모가 들어오면 너는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겠느냐?”

“전 안 그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앞도 못 보시는 아버지인데 그런데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셔서 새어머니로 들어오시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환영해요. 평생 아버지 두 눈이 되어 드리고 손발이 되어 주는 일은 딸인 제가 하겠지만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고적하신 아버지의 든든한 반려자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마 그런 분이 나타날 리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빌고 빌어 모셔 보겠어요.”

행여 그런 말이 나오면 싫어하며 반대할 줄 알았으나 심청이는 그러지 않았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심봉사는 그제야 과수택 얘기를 꺼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청아,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었다.”

“그게 뭔데요?”

심봉사는 과수택을 만났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에비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걸 안다마는 그 과수택도 날 싫어하지 않고 나 또한…… 싫지는 않아 몇 차례 만나 속엿말을 나누기도 했단다.”

“그분이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예요?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럼 뭘 망설이세요? 새어머니로 모셔야지요.”

“허, 고맙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네요.”

청이는 난감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뭐가 말이나?”

“그분은 나이도 아버지보다 젊고 육신도 멀쩡하시다 하고 뭐 부족한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처럼 가난하고 일가친척 하나 없고 더구나 아버지는 앞 못 보는 장님이라 살아갈 길이 막막할 텐데 재취로 들어오신다니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재산이나 뭐 돈이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해서요.”

심봉사는 딸의 그 지적을 받고 찝찝했다.

“말 되는 소릴 해라. 우리가 어디 농사지을 땅 한 뼉이 있나 밭떼기가 있나? 모아 놓은 돈이 있나? 예미 잃은 핏덩이 안은 장님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동냥짓을 얻어먹이고 나 또한 한 술 두 술 빌어먹고 산 걸 온 천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있다고 바라겠느냐?”

“그 그건 그래요. 그걸 안 따지신다면 그분은 부처님이 내신 분이네요. 어서 속히 새어머니로 모셔 와요.”

“오냐, 알았다.”

심봉사는 비로소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것을 느끼며 새장가 들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튿날 새벽. 딸 심청이가 눈을 뜨기 전에 심봉사가 먼저 일어나 뒷방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더듬더듬 걸어 나갔다. 장독대 근처까지 간 그는 그 밑 꽃밭 구석을 더듬어 묻어 둔 단지를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 손을 집어넣은 심봉사는 손가락 끝에 외닿는 엽전꾸러미의 냉기를 느끼고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쭈그리고 앉

았다. 다음 순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엽전꾸러미를 들어 올렸다. 목지했다.

백이십 냥이 들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맡겨 두었던 원금 백 냥과 승상 부인이 이자조로 붙여 준 금액이 붙어서이다. 부자라도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해졌다. 심봉사는 이윽고 꾸러미로 된 돈 중에서 50냥을 따로 떼어 냈다. 그것만 과수택을 위해 내놓는다면 과수택은 고마워하며 심봉사와 여생을 함께하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까웠다. 죽은 아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가. 그걸 제 팔자 고치겠다고 선뜻 내놓으려 하다니 잘못하면 천벌을 받을 일 같아 두려워진 것이다. 심봉사는 건들면 동티라도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동전꾸러미를 다시 단지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래, 나만 생각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접자! 지금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 복에 새 마누라라니? 말도 안 된다. 청아, 애비를 용서해라.”

심봉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지를 다시 묻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랬더니 다음 순간 울면서 자기 품에 기대던 과수택이 발목을 잡았다.

“도대체 날더러 어떡하란 거요? 들자니 무겁고 농자니 깨지겠고!”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하던 심봉사는 다음 순간 결심한 듯 큰기침을 두어 번 한 뒤에 동전꾸러미를 다시 꺼냈다.

“나도 모르겠다! 불쌍한 과수택!”

50냥에다가 20냥까지 더 보태서 꺼내 놓고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단지 뚜껑을 덮고 흙 속에 파묻었다. 심봉사는 가지고 나간 주머니에

동전꾸러미를 집어넣고 방 안으로 돌아왔다. 청이가 일어났는지 부엌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봉사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지팡이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서두르세요?”

“잠시 다녀올 테가 있다. 점심 전에는 오마.”

대충 둘러대고 사립문을 뒤로했다. 팽덕이네 주막에서 과수택을 만나기로 약조를 했기 때문이었다.

과수택은 주막 뒷방에 있었다. 어제 간밤에 와서 거기서 잔 모양이었다.

“어서 오세요. 봉사어른.”

“별써 와 있었네?”

심봉사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심봉사는 과수택의 손을 잡고 앉자마자 허리춤에서 전대 주머니를 풀어서 과수택에게 건넸다.

“이게 뭐 줄 아시나?”

“전대 주머니 같은데요?”

“어서 풀어 보게.”

주머니를 풀어 본 과수택이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웬 돈이에요? 많기두 하네.”

“난 보이지 않아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니 자네가 헤아려 보게.”

세어 보고 난 과수택이 말해 주었다.

“오십 냥 꾸러미 하나하고 스무 냥 꾸러미 하나하고 합해서 칠십 냥이 들어 있는데요?”

“그럴 거야. 날 주게나.”

심봉사가 돈을 받았다. 그러더니 50냥짜리 꾸러미를 과수택에게 내밀었다.

“받아 두게.”

“왜, 왜요?”

“지고 있는 빛이 50냥이라며? 어서 가지고 가서 그 빛 가리란 말이요.”

“봉사어른! 왜 이러세요?”

“빛만 없으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 아니요?”

“고맙습니다.”

과수택이 심봉사의 품에 쓰러지며 흐느껴 울었다.

“왜 또 우시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지요.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수택! 나머지 스무 냥도 자네가 쓰시게.”

“네?”

“우리가 함께 합쳐 살자면 소소한 것부터 준비해야 할 게 많지 않겠는가? 그 용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라우.”

“아이구, 어쩌면 그렇게 자상도 하시고 세세하기도 하세요?”

“언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내일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심봉사가 서두르자 과수택은 심봉사 가슴에 묻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장은 어려워요.”

“왜?”

“가서 빗을 가리고 살던 집도 정리해야 하고 열흘쯤 기다리셔야 해요. 그럴 수 있겠지요?”

“아이구, 길기두 하다.”

“열흘 금방 가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봉사어른 돈으로 빗 갚았다는 말 뺏덕이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야 할 이유라도 있나?”

“창피해서 그러지요. 내가 돈에 팔려가는 것 같으니까.”

“알겠네.”

“따님은 봉사어른이 돈 가지고 나온 걸 알고 있나요?”

“전연 모른다네.”

“그럼 따님도 눈치 채지 못하게 해 주세요.”

심봉사는 비밀에 부치기로 굳게 약속했다. 점심때가 되자 과수택은 모든 걸 정리하고 오겠다며 자기 집으로 떠났다. 심봉사는 딸 청이에게 과수택 맞을 채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새어머니로 들어오신다고 약조하셨어요?”

“그래.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오려면 열흘쯤 걸린다고 했다. 새사람이 들어오니까 집 안을 치우고 고칠 게 있으면 손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요.”

청이는 대답을 하고 우선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 나무를 짊어지고 들렀던 칠성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웬일루 대청소를 하나?”

“귀하신 분이 오신다 해서 부지런 좀 피워 보는 거야. 마침 잘 와 주었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그냥 두어서 바람벽이 군데군데 헐어 여기저기 흠뻑이 떨어져 나가 보기 흉하게 되었어.”

“날더러 흠뻑을 해서 뺏질을 했으면 한다, 그런 말이니?”

“해 달라구는 안 했어. 그저 틈이 나면…….”

“그게 그 말이지. 좋아, 바람벽 바르는 일은 내가 도와줄게. 헌데 귀중하신 분이라는 게 누구냐?”

“차차 알게 될 거야.”

“좋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오마. 오랜만에 흠뻑을 해 보자.”

칠성이는 이튿날이 되자 새벽같이 와서 근처 산 밑에 나가 황토 흠뻑을 마지기에 퍼다가 물을 넣어 반죽을 했다.

“부엌 부뚜막부터 새로 싸악 바르자. 그런 다음에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바람벽을 수리하기로 하자.”

“고마워요. 오빠!”

청이가 도와주고 칠성이가 황토 흠뻑을 발랐다. 일하는 것을 듣고 난 심봉사는 어련에처럼 기뻐했다.

“그렇지. 새 식구를 맞으려면 잘 고치고 청소를 해야지. 칠성이가 정말로 고맙구나.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비록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열심히 손을 보고 청소를 하니 깨끗하고 깔끔해졌다. 심봉사는 약속된 열흘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윽고 열흘이 지나갔다.

“아버지! 오늘 오신다는 날이지요?”

“그랬지. 기다려 보자.”

아침부터 부녀가 목을 늘이고 과수택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혹시 모른다면 심봉사는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꼭두새벽에 주막으로 갔다. 혹시 너무 늦게 와서 주막에서 잠을 자지 않았나 싶어서였다.

“봉사님은 잠도 없소? 이 신새벽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다니 무슨 일이지라오?”

“과수택 오지 않았던가요?”

“아이고매, 어제 온다고 약조를 했던가 보네요?”

“왔소 안 왔소?”

심봉사가 숨넘어가는 소리로 묻자 뺨덕이네는 머리채를 가로저었다.

“안 왔소.”

“허, 이상허네. 아무 연락도 없었소?”

“열흘 전에, 그것도 봉사님만 만나고 간 뒤 일자<sup>一</sup>字 무소식<sup>無消息</sup>이네요.”

자기는 모른다고 잘랐다.

“헌디 왜 그렇게 숨넘어간대요? 과수택이 안 오면 큰일 날 일이 있는 것 갑소? 왜 그러는지 나도 좀 압시다.”

“세상천지…….”

빛 값으라고 돈도 주었고 정리 다 끝내고 열흘 뒤에 오마라며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갔는데 감감 무소식이니 이렇게 쫓아온 거라고 말해 버리려다 참았다. 돈 주고받은 것과 혼사<sup>婚事</sup> 문제는 서로 비밀로 하고 꼭

지키자 했던 것이 생각나서였다.

“꼭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

약속한 날보다 하루 늦어졌다고 아단을 떤 것이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심봉사는 술 한 잔을 청해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제는 과수택이었다. 정리하고 오겠다는 것이 차질이 생겼는지 하루가 이틀로 이틀이 나흘 닷새, 옛새로 늦어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다가 안 오는 거 아냐? 아이구, 입이 방정이지. 설마 안 오기야 하겠나? 오겠지. 그저 느긋하게 기다려 보자.”

심봉사는 불길한 예감을 누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한데 심봉사는 입맛을 잃어 제대로 먹고 마시지를 못하게 되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를 기다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었다.

“봉사양반 이러다가 초상 치르겠네. 뭐래도 좀 먹어야지요. 병나면 큰일 나요.”

뺨덕이네가 걱정스러워서 심봉사에게 수저를 쥐여 주며 위로했다.

“아냐, 난 괜찮네. 주모, 과수택 사는 곳이 진도라 했지? 내가 직접 찾아가 보겠네. 사고가 난 것 같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소식을 끊을 수가 없잖은가? 진도 어디인지 알려 주게.”

심봉사는 뺨덕이네를 잡고 늘어졌다.

“나두 진도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도 어느 마을에 사는지는 몰라요.”

“안 가 봤다고?”

“예.”

“내일 아침에 가보려네.”

“눈도 성하지 못한 양반이 어떻게 찾아가신단 말ियो? 어디가 어딘 줄 알구?”

“내 딸 앞세우고 가면 되겠지.”

“정말 가려구요? 뜬구름 잡기겠지만 과수택은 진도 장터에 있는 주막에서 주모로 이삼 년 있었으께 그 주막을 찾아가면 혹시 소식을 알아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맙네.”

심봉사는 마침내 청이를 앞세우고 진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3일째 되는 날 부녀는 겨우 진도 땅에 들어설 수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장터에 이를 수 있대요. 고단하시죠? 좀 쉬어 갈까요?”

심청이의 말에 심봉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 내 염려는 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라.”

심봉사는 이제 과수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솟아나서인지 힘을 냈다. 잠시 후에 부녀는 장터 입구, 길가에 있는 주막을 발견하고 그 안을 기웃거렸다.

“뭘이당가?”

늙은 주모가 손님인 줄 알고 맞았다가 장님 하나와 처녀가 서 있어 의아해서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약주 한 잔 먹읍시다. 이 아이는 날 데리고 다니는 딸ियो.”

심봉사의 말에 주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목로에 앉으라 했다.

심봉사는 이윽고 갈증이 나던 차에 약주 한 잔을 쭈욱 마시자 살 것 같 다며 어깨를 폈다.

“주모! 우리 부녀는 곡성에 오탁말 도화동이란 데 살고 있소. 그런데 누굴 꼭 좀 찾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요.”

“누구를 찾는테요?”

“이름은 모르오만 혼자 사니 과수택이라 합니다.”

“나도 과부고 널린 것이 과부들인디 이름도 성도 모르고 과부택만 찾 는다면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소.”

“그 과수택이 진도 여자이고 여기 장터에서 이년 쯤 주모로 일을 했 답디다. 생각 안 나시오?”

“과부에 주모라……. 여그 장터 주막……. 아, 그 예쁘장한 과부 주 모?”

“아시는군요?”

심봉사가 깜짝 반가워하며 물었다.

“친하거나 잘 아는 사이는 아니오만 전에 요 앞 술집에 있었지요. 그 런디 관둔 지가 이삼 년 됐을걸요? 뭐 값야야 할 빛이 있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외지에서 사내들이 몰려와 툭하면 야료를 부리고 그래서 시 끄러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는 없어지고 딴 주모가 보 성에서 왔지요.”

“전 남편이 병을 앓다가 죽는 바람에 생긴 빚이라던데?”

“병들어 죽은 남편이 무슨 빚을 쳐요? 서로 죽고 못 살던 별교 놈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진 빚은 그놈 노름빚이랍디다.”

“뭘요? 도박빚?”

심봉사는 너무 놀라 술 대접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으, 응 그래.”

현기증이 나는지 심봉사는 휘청거렸다.

“그 과수택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해야지요?”

심청이가 주모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을걸? 여기가 원래 고향이 아니고 주모 일만 한 곳이라. 그렇게 쫓기듯이 도망친 여자이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를 게야. 빗쟁이들이 노리고 있는디 도망간 곳을 알려 줄 리 없을 테니까.”

“그래도 여기 살 땐 살던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살던 동네여. 주막에서 살았으께. 그러니 여기서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닌가 베?”

심봉사 부녀는 닭 쫓던 개처럼 멍하니 주막 밖 길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여자한테 흘려서 사기 당한 거 아닌가?’

눈앞이 깜깜해져 왔다. 이 여자 말대로라면 자기가 사기 당한 건 틀림없는 사실일 듯했다. 하지만 당했다고 내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미칠 노릇이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떠세요?”

“하 한기가 든다. 수술 한 잔 더 먹으면 풀어지겠지.”

심봉사는 겨우겨우 추스르고 그 주막을 나왔다.

“그 여자 말만 믿고 돌아갈 수 없다. 그 과수택 있던 술집을 찾아가 보자. 청아!”

“가 봤자 뻔할 것 같은데요? 도망친 게 사실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아버지, 평소 아버지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세요? 그 과수택한테 꼭 받을 거라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 아니다. 그 그럴 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친 여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래두 그러는구나.”

심봉사는 세차게 손을 흔들며 부정했다.

“그럼 그 과수택이 있다는 주막을 찾아가 볼게요.”

심청은 실의에 빠진 아버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좀 전의 주모가 해준 그 말 그대로였다. 과수택이 도주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거란 것이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은 과수택이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애인인 벌교 노름쟁이와 함께였다는 것이었다.

## 지키지 못할 부처님과 약속

도화동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는 몸져눕게 되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도깨비한테 홀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게 꿈이 아닌가? 아아 내 돈! 내 돈을 가지고 튀었던 말이나? 그게 어떤 돈인데?’

과수댁 그 여자한테 70냥이나 되는 거금을 사기당했으니 어떡하든 찾아내야 한다고 소리쳐야 하는데도 그럴 수 없다는 데 심봉사의 가슴이 찢어 가고 있었다. 그 여자 재취로 들어온다고 약속해서 빛도 가려 주고 혼사비용으로 20냥까지 더 얹어 주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병신이 풀값했다고 웃겠지. 효녀 딸 덕에 동냥질 안 해도 세끼 밥 편안하게 먹고살게 되었다더니 풀에 새 여자 들어 재미 보고 살아야겠다고 헛꿈 꾸다가 보기 좋게 당했구먼. 당해도 싸다 싸!’

온 동네 여기저기에서 손가락질하며 쭈군대는 소리가 울타리 넘어



안방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기당한 돈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아까웠다. 심봉사는 견딜 수 없어 주막으로 나가 땡덕어미를 찾았다.

“오매야! 왜 이렇게 수척해졌소? 안 본 사이에 피골이 상접해졌네? 어디 아파요? 응?”

“땡파한테도 책임이 있어. 책임을 지란 말야.”

다짜고짜 퍼붓자 땡덕어미가 급하게 심봉사를 끌고 뒷방으로 갔다.

“왜 그래요? 무슨 잘못을 했는디 책임을 지란 거요?”

“과수댁 그 여자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야? 당신 아냐?”

“소개한 거이 뭐가 잘못이라고 그런대요? 나야 참.”

“사기꾼 꽃뱀이었어.”

“뭘 소릴 하신대? 꽃뱀이라니? 그럼 뭐 당한 거라도 있소?”

그 말에 심봉사는 흠칫했다. 비밀을 털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 숨길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해 버렸다.

“저 대신 빚을 갚아 주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평생 살겠노라고 눈물 콧물바람 하는 통에 나처럼 순진한 장님이 속아 넘어가 전 재산 70냥을 그 여자 손아귀에 쥐여 주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날아가 버렸어.”

“뭘요? 70냥 그 큰돈을 주었다구요? 오매, 어째야 쓰까?”

“처음 듣는 체하지 말라고. 그 불여우하고 임자하고 짜고 친 도리 짓고땡이 아니고 무어나고? 앵?”

“말 좀 가려서 해요. 나하고 짜고 친 짓고땡이라니요? 나도 속았어요.

나도 속았는데 날 한때로 몰아요?”

땡덕어미도 화가 나는지 맞섰다.

“속다니? 임자도 나처럼 돈 뜯겨서 속았다는 건가?”

“나처럼? 아니 그럼 봉사님이 과수댁한테 돈도 뜯겼단 소리요?”

“허, 한두 푼이면 말도 않겠네. 자그마치 일흔 냥이여.”

“칠십 냥? 아이고매! 뭘 믿고 주었소? 봉사님한테 시집온다는 바람에 그냥 주신 거요?”

“그게 그렇게 되었네.”

“나도 감쪽같이 몰랐소. 그런 여자인지.”

“주모는 그 여자를 어떻게 안 사이지?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까웠잖아?”

“화류계(花柳界)에서 만난 동생이지요. 객지 벗 3년이면 형님 동생 하지 만 화류계 벗 십 년은 언니 동생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이요. 듣고 보니 그게 처음부터 봉사님을 노리고 접근해 왔구먼? 나도 까맣게 몰랐소.”

“난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오.”

심봉사는 방고래가 꺼질 만큼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저어 봉사님.”

“왜?”

“아직은 딱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생각 안 드시오?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뿐이니까.”

“더 기다려 보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인가?”

“밀져야 본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네요.”

심봉사는 그제야 너무 빨리 사기꾼으로 단정지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모 말도 일리가 있네.”

방법은 그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듯했다. 심봉사는 속상하여 마신 술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주막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다. 점차 분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장님이라는 게 철천지한이로다. 짙어서처럼 눈만 잘 보였으면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하고 산단 말인가? 눈만 잘 보였어도 과수덥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고 그랬다면 선뜻 넘어가지 않았을 것을……. 장님 된 것이 원수로다! 내가 멀쩡했다면 나한테 재취로 들어오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감격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떤 여자가 앞도 못 보는 장님한테 재취자리로 시집오겠다 하겠는가? 내가 감격하여 정신을 잃은 것은 바로 나 같은 장님에게 시집오겠다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갔던 것이다.’

장님이라는 게 정말로 원망스러웠다.

‘영험하신 관세음보살님! 지금이라도 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심봉사는 지팡이를 들어 길바닥을 내리쳐 가며 울부짖었다. 그는 아까부터 흙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비틀대며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내 죽고 처음으로 소리치며 울었다.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네. 마누라, 듣고 있는가? 듣고 있냐고! 어, 어엿! 사람 살렸!”

심봉사는 그만 다리 중간에서 발을 헛딛으며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심봉사는 언젠가처럼 물속에서 가까스로 떠올라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 주시오!”

조금 있자 누군가가 심봉사에게 소리쳤다.

“그냥 나오면 되겠구먼 뭘 살려 달라 엄살이요?”

“엄살이라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엄살 부리는 거 보았소?”

“기슴까지밖엔 물이 안 차는 곳에 서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시오? 가장자리로 나오시오.”

“답답도 하시오. 어디가 가장자리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더러 그쪽으로 나오라니. 이거 보시오. 난 장님이오. 봉사라구요.”

“어허, 몰라보았군요. 나는 스님이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걸어 나가면 강 북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요.”

심봉사가 걸음을 옮기자 스님은 들고 있던 긴 육환장을 내밀어 잡으라 했다. 냇물 기슭으로 심봉사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나왔다.

“어디 계시는 스님이신지 목숨을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는 맹인이올시다.”

“심학규, 심봉사?”

“에엿취! 절 아십니까요?”

“알다마다요. 옛날 십육칠 년 전에 우리 절에 와서 아들 얻게 해 달라고 백일기도했던 분 아니시오? 관음보살님 덕에 딸도 얻었다 들었

소만.”

“아이구 그럼 대사님은 관음사에 계신 지공스님이시군요?”

“안 되겠소. 감기 들면 큰일이니 집으로 갑시다.”

지공대사는 심봉사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심청이는 놀이를 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다. 심봉사는 그래도 익숙하게 농 속을 뒤져 새 옷을 꺼내어 바꿔 입고 대사와 마주 앉았다.

“대접해 드릴 게 없어 어떡하지요?”

“만나는 게 대접이요.”

“대사님은 어디 다녀가시는 길인가요?”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게 들어맞았소. 도화동 금천에 가면 물에 빠진 장님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귀인이다. 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관음보살님의 말씀이었소.”

“아이구 고맙기도 하셔라. 관음보살님 은덕은 항상 분에 넘치게 받는군요.”

“맹인께서는 어떤 소원이 있지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오.”

“눈뜨는 겁니다. 번쩍! 눈을 뜨는 것입나다요.”

심봉사가 간절하게 말하자 지공스님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나요?”

“아닙니다. 스물세 살 때 염병으로 열병을 앓다가 장님이 된 것입지요.”

“그럼 그 눈은 부처님께 빌면 고칠 수 있겠소.”

“정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빌어서 되는 거라면 백일기도 아니 천일기도라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부처님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몸이 가루가 되어도 해내겠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고…….”

대사는 난처한 듯 입맛을 껌뻑하며 다셨다.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하고 그러시죠?”

“시주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액수가 커서……. 맹인 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아는 소승으로서선 선뜻 권하지 못하겠군요.”

“대사님두 참! 장님이 눈뜨는 기적을 이루는데 그만한 시주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할 테니까.”

“삼백 석의 공양미(供養米)를 부처님 전에 바치고 빌어야 소원성취하게 됩니다. 장님 처지에 삼백 석이 어디 있겠소?”

심봉사가 장님 된 눈을 질끈 감더니 큰소리쳤다.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까짓 삼백 석이 대수요?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인데? 대사님, 염려 마시고 시주자 명단이 적힌 권선문(勸善文) 기록장에 적어 넣으시오. 삼백 석 바친다고!”

“어허, 눈을 뜨는 것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아시요?”

“부처님 전에 약속해서 적어 놓은 기록인데 무슨 벌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요? 어서 적어요.”

“그렇게 함부로 적는 게 아니요. 집안 형편을 생각하시고 더 좀 깊이 심사숙고한 후 적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라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어서 적거나 하시요. 권선문 시주 장부에 오탁말 도화동 맹인 심학규. 공양미 삼백 석 바침. 그렇

게 대문짝만 하게 올리시오. 적었습니까?”

“기록했소.”

“그럼 내 자필로 수결<sup>手決</sup>(서명)을 놓을까요?”

“부처님과 의 약조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소? 세상 일, 세상 사람들에나 필요한 거지. 바치는 기한은 칠월 보름 백중날까지요.”

“석 달 열흘이 남았군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백중날에 봅시다.”

지공대사가 떠났다. 심봉사는 계속해서 기쁨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sup>轉禍爲福</sup>이라 했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뉘 알았겠는가? 과부의 사기에 화를 당하게 하신 것도 부처님이시고 물에 빠뜨리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 분도 부처님이셨고 그것이 다 눈이 멀어서 당한 수난이었다는 것을 아신 분도 부처님이며 그래서 불쌍한 장님 심학규 눈을 뜨게 해 주시겠다 하신 분도 부처님이시구나. 나무관세음보살!”

심봉사는 부처님의 공력으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당장 두 눈을 뜬 것처럼 착각하여 춤을 출 듯이 기뻐했다. 심청이가 놀라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깨춤을 절로 추시고?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말하면 잔소리다. 얘야,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무엇보다 할까? 할 게 너무 많아 헛갈린다. 적어 놓아라. 맨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물어 볼 것도 없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 딸 청이 얼굴을 볼 것이다. 얼마나 기

쁘고 감사한 일이나? 그런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딸 손잡고 네 어미 무덤에 가서 이 애비가 저지른 죄 용서를 빌고 내가 다시 젊어서처럼 맑은 세상을 보게 되었노라 사랑하고……. 어흐흑.”

심봉사는 그만 격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는 것이다. 내 딸 청아!”

“계속해서 눈뜨는 얘기만 하시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청이가 물었다. 그제야 심봉사는 술에 취해 개천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떨어진 것과 자기를 구해 준 스님이 옛날에 만났던 관음사 화주승<sup>化主僧</sup>인 지공대사였다는 것을 얘기했다.

“헌데 그 스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뭐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게야. 부처님 현몽으로 물에 빠진 날 구해 주었고 거기 도화동에 맹인이 있는데 부처님께 빌어서 눈을 뜨게 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눈을 뜨신다구요?”

“그렇대두!”

“어떤 기도든 그 기도 하러 갈 때는 시주미<sup>施主米</sup> 같은 게 필요한가 보던데요?”

“…….”

심청이의 그 말에 심봉사는 흠칫 놀랐다. 눈뜨게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들떠서 공양미 삼백 석에 대한 시주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겁이 덜컥 나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시주미 말씀은 없었어요?”

“왜 없었잖나만 별로 많지는 않아. 염려할 것 없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아무튼 아버지 눈만 뜨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심청은 그제야 마음껏 기뻐했다. 그런데 심봉사는 그 반대가 되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찌자고 대문짝만 한 글자 크기로 권선문에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친다고 심봉사, 심학규의 제 이름을 올리게 하고 그 화주승 앞에서 큰소리친 것일까.

“아이구, 나같이 멍청하고 덜 떨어진 장님은 확! 죽어 마땅하다. 어린 딸 데리고 동냥으로 빌어먹고 산 주체에 뭐? 쌀 삼백 석이라고? 아이구! 쌀 한 말은 커녕 석 되도 없는 놈이 어찌자고 큰소리쳤을까?”

심봉사는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버렸다. 피로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다. 심청은 걱정이 되어 아버지 옆을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 대체 어디가 아프셔서 그러세요? 의원님 모셔 올까요?”

“으, 의원에게 보일 병은 아니다. 마음에 병이니까.”

“마음병이라구요? 아니 그럼 지금도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는 과수택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과수택? 그런 여자는 아예 이름도 꺼내지 마라. 꽤섬한!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너 아침부터 양님이네 집 일하러 간다고 했지? 늦었으니 어서 가 보아라.”

심봉사는 딸을 내보내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온종일 꿈쩍 않고 누워서 피로워하던 심봉사는 마침내 흐느껴 울

기 시작했다.

“이 일을 어찌면 좋으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부처님 전에 해 버렸으니……. 여우 같은 그 과부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했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잡아 널 생각이나 할 일이지 어찌자고 또 사고를 친단 말이나? 석 되 쌀도 없으면서 삼백 석이라고? 예구, 이놈에 주렁이! 이 주렁이가 웬 수로다!”

심봉사는 자기 입술을 쥐어뜯었다. 피가 맺힐 만큼 짓쪼였다. 그러면서 서럽게 신세자탄하며 울었다.

“마누라! 용서하게. 내가 그저 죽일 놈이야. 눈먼 병신이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걸 언감생심 재취 장가까지 들어 볼라다가 개망신까지 당했으니 무슨 낯으로 산단 말인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해, 죽어야 한다고!”

심봉사는 방바닥에 이마를 찡기 시작했다. 때마침 양님이네 집에 일 나갔던 심청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섬돌 밑에서 신을 벗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심청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방바닥을 치며 아버지가 우는 소리라는 걸 알았다. 청이는 방문을 급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심봉사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다고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냐.”

“그럼 왜 이러시는데요?”

“이 못난 애비는 죽고 싶은 데도 죽지를 못하는구나. 휘유!”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심봉사가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별일 아니니 넌 몰라도 된다. 나중에 말해 주마.”  
심봉사는 또 차마 말을 못했다.

“아버지, 시장하시죠? 얼른 나가서 저녁 진지 지어 올게요. 기다리세요.”

심청이는 부엌으로 나갔다. 얼마 후 청이는 저녁상을 보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진지 잡수세요.”

“입맛이 소태 같다. 너나 먹어라.”

그러자 심청이는 아버지 손에 수저를 쥐여 주었다.

“자꾸 숨기시는 걸 보면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있나 봐요.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우선은 먼저 입맛이 없더라도 진지부터 드세요. 양념이 어머니가 아버지 가져다 해 드리라고 육포하구 싱싱한 생선 한 마리를 주셨어요. 구워 왔으니까 드세요.”

심청이는 아버지 수저 위에 구운 생선살을 찢어 올리고 입으로 가져다 주었다.

“드세요. 떨어지겠어요. 어서요.”

딸이 먹여 주자 심봉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안에 넣고 씹었다. 그 순간 심봉사는 더 이상 씹지 못하고 소리 내어 흐느껴 울었다. 놀란 심청이 밥상을 밀어 놓고 아버지 손을 잡았다.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어여 밥 먹자.”

“얘기 안 하시면 저두 밥 먹지 않을래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시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젠 절 남 대하듯 하시니 너무 슬프네요.”

심청이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심봉사는 가슴이 미어지는지 딸의 두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너까지 죄인 만들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했다. 너 같은 효녀가 이 애비가 저지른 큰 죄를 알고 나면 너 또한 괴로워 죽겠다고 나설 것 같아 말을 못한 거다.”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을 속인 죄.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나? 죽으면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뭘 어떻게 했는데 부처님을 속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버지 눈뜨게 해 주라고 관음사 지공대사께 꿈으로 현몽하셔서 물에 빠지신 걸 건져 주시고 관음사에 오시어 일구월십 기도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다면서요?”

“그랬지. 그런데 그게, 그게 말이다. 휘유!”

심봉사는 한숨을 내쉬며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 털어놓았다.

“헌데 내가 부처님 전에 죽어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말이다. 어린 핏덩이 동냥짓 얻어먹이며 키우고 애비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하고 겨우겨우 찢어지게 가난함 속에서 살아온 주제에 어허허!”

“아버지!”

“장님인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려면 부처님께 많은 공양미를 바쳐야 한다고 대사님이 말씀했는데 이 멍청한 애비는 눈뜰 수 있다는 생각만

앞서서 공양미는 뒷전으로 제쳐 놓고 말했다.”

“제가 몰랐었잖아요? 시주미가 있어야 할 거라고. 그럼 그 공양미는 얼마나 바쳐야 하는데요?”

“백미로 석 섬도 아니고 삼십 석도 아니고.”

“그럼 삼백 석이란 말예요?”

“에비를 욕해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쌀섬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낼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앞뒤 생각 없이 쥐뿔도 없으면서 호기 있게 다 낼 터이니 권선문 장부에 기록하라고 큰소리쳤지 뭐냐?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봐도 공양미 삼백 석은 죽었다 깨난대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속인 대죄인이라 하신 거군요?”

“그렇다. 청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지? 나만 괴로워하면 됐지 너까지 함께 고통스럽게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서 말을 안 하려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수록 말해 주셔야지요.”

“청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생각해 보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딱 한 가지 살 방법은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성덕산 관음사로 화주승 지공대사를 찾아가서 공양미 삼백 석은 도저히 바칠 수 없으니 권선문에 올려놓은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통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 심청은 또렷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그건 안 돼요.”

“지공스님이 안 된다고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름을 지워 주겠다 해도 지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평생 눈을 못 뜨고 말게 되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께 광명을 찾으셔야 해요. 아버지, 염려 마세요. 공양미 삼백 석, 엄청나다면 엄청나고 그걸 해결하기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얘야, 칠월 보름 백중날까지 바치기로 했으니 석 달 열흘인데 그 안에 만들어져야 한단다.”

“해 보겠어요. 그때까진 공양미 삼백 석, 어떡하든 만들어 바치고 아버지 광명 찾으시는 거 보고야 말겠어요.”

심봉사는 자신 있게 말하는 심청이의 모습을 보고 더욱 애처로워 흐느껴 울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어디서 쌀이 나올 거라고 연약한 네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고 눈물을 거두게 만든 것은 심청이었다.

“부모님이 절 얻은 것은 마흔도 훨씬 넘어서였다고 했어요. 누구도 이제 나이가 많아 자식 얻기는 틀렸다고 했는데도 관음보살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셔서 딸자식을 점지해 주셨어요. 더구나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실 거라 하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이 소녀 효성이 부족하긴 해도 정성을 다 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관음보살님도 감복하실 거라 믿어요.”

심청은 이튿날 새벽부터 울안에 있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 놓고 관음보살님께 지성을 다하여 아버지 광명 찾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심청은 온 정성을 다하여 삼천 석의 공양미를 마

련하여 어떡하든 아버지 눈을 뜰 수 있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심청이는 불을 길러 동네우물에 가게 되었다.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물을 길고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거나 하면서 큰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딸고만네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만났단 말야?”

쟁비네 어머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두 번이나 되물었다.

“만났으니까 만났다고 하지 그럼 보지두 않고 그런 말을 할까?”

“어디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무를 씻고 있던 분이 어머니가 물었다.

“안골 싸전 골목에서 보았다니까. 한두 명도 아니었어. 네댓 명이 함께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은 바닷길을 다니며 중국하고 장사를 하는 바다 상인들이 데 열대여섯 살 된 숫치녀를 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 아녀?”

“숫치녀를 산다고 하니까 이게 정신 나간 장사꾼들 아니냐고 욕하더라고.”

“그 숫치녀를 사면 어디에 쓴다고?”

“배도 다 언제나 다니는 제 길이 있다네. 제 길로 맹겨도 위험한 곳이 많다는구만. 바닷물이 급하게 흐르고 소용돌이를 쳐서 물결이 뱅뱅 돌아 배를 뺨개치는 곳도 있고 거기만 가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데 꼭 지나다녀야 하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그렇게 언제나 위험이 있는 곳이라지 뭐야. 인당수? 인당수라고 하던데 해마다 그곳에

서 배가 난파를 당하여 뱃사람들이 수십 명씩 물귀신이 된다는구만. 그런데 그 액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숫치녀 바치는 제사가 필요하대네. 그래서 제수<sup>祭物</sup>용으로 숫치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 제사를 지내야만 아무런 사고 없이 한 해 장삿길을 다닐 수 있다는 거여.”

“아니 제사는 돼지머리 놓고 지내는 거 아녀?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치녀를 바다에 던져 제사를 지내느냐 말여? 듣는 것도 끔찍하네.”

그러자 동이에 물을 채운 심청이 머리 위에 올리면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 사람들 인제 우리 곡성을 떠났겠지요?”

“글쎄다. 반월산 쪽으로 가는 길로 가더라. 아마 옥과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 아무리 돈이 좋지만 누가 제사상에 올라 죽으러 가는 길인데 팔려 가려 하겠느냐?”

심청이는 더 이상 물어 보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물 항아리에 물을 붓고 나서 쟈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 저는 가요, 바닷속 저승길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이 오곡마을에 들어왔다면 지나갔어도 떨리는  
못 갔으리란 판단이 섰다.

‘그 사람들 꼭 만나야 한다.’

반월산이라면 곁면에 있다. 그쪽으로 갔다는 말만 믿고 심청은 뛰  
듯이 쫓아갔다. 이윽고 반월산 밑에 있던 너른 발머리에 이르러 보니  
꼭성 사는 사람들과 행색이 다른 네댓 명의 사내들이 산굽이를 돌아가  
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청은 더 걸음을 빨리하여 이윽고 그들의 쪽뒤에 다다랐다.

“저기, 말씀 좀 물어 볼게요.”

여자 목소리에 사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일제히 돌아다보았다.

“왜 그러시오? 처자! 아이구 숨차 보이는데 급히 쫓아온 모양이요. 여  
기 바위가 있구면. 잠시 앉읍시다. 우리도 다리힘을 하려던 참이었소.”

그들은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자, 뭘 물어 보려 했는지 얘기해 보시오.”

심청이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저어, 저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한데?”

그러자 심청이는 결심한 듯 또렷한 목소리로 당차게 물었다.

“혹시 처녀를 사러 다니고 계신 바다상인들 아니신가 해서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러 오신 건가 보죠?”

“네. 절 제사에 쓰실 처녀로 데려가주시라고 온 거랍니다.”

“아가씨를 아가씨가 파시겠단?”

“네, 얼마면 사실지?”

“우리도 사람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흥정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하여 하는 것이니 그 대신 원하시는 대로 값은 쳐 주겠습니다. 그보다 부모님 승낙이 필요한데 승낙받을 수 있겠죠?”

그 말에 심청이는 입을 다물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절 낳고 산고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한 분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열병을 앓다가 갑자기 맹인이 되는 바람에 장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흘 전쯤 성덕산 관음사에 계신 지공대사님이 오시어 꿈에 부처께서 아버지가 눈을 뜨고 광명을 찾도록 하려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고 정성을 다해 빌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눈을 뜨실 것이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했습니다.”

“공양미가 삼백 석? 보통 집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양이군?”

그럼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시주 장부인 권선문에 삼백 석을 바치겠다고 아버지가 성명 석 자까지 올리셨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부처님과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정 알겠소. 처자는 정말 대단한 효녀로군요. 눈먼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이제 가면 죽는다는 걸 잘 알면서 자기 몸을 팔겠다고 나서다니 그런 효녀는 처음 봅니다.”

그상인은 눈물이 나는지 손등으로 눈자위를 닦았다.

“아가씨 얘기를 듣고 보니 더욱 난감하군요. 그런 효녀를 돈 주고 사간다는 게 양심상…….”

“값은 많고 적고 간에 사시겠다 하고선 삼백 석이라니 너무 비싸서 망설이시는가요?”

“치 천만이에요. 더 달라 해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가난해서 몸을 파는 처녀를 사러 다닌 건데 천하의 효녀를 사게 되니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뿐입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삼백 석 외에 더 주시라고는 안 하겠어요. 결정하셨다면 내일이라도 성덕산 관음사로 공양미 삼백 석을 보내 주시고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행선일만 알려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전에 당부드릴 말씀 있어요. 우선 저희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 주세요. 그리고 동네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마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뱃사람들은 심청이와 약속한 대로 공양미 삼백 석을

만들어 관음사 불전에 바쳤다. 그 공양미를 바칠 때는 심청이도 따라갔다. 전날 심청이가 반월산 밑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은 장삿배 [商船]의 주인인 선주船主였다.

“선주님 제가 배를 타야 하는 행선일이 언제인지요?”

심청이 물었다.

“웁아, 그 약속을 안 했군요. 다음 달 보름날 떠나면 됩니다. 만조滿潮가 되는 볼때를 맞춰 떠나야 하니까. 아직 이십여 일 남았으니 미진한 것 없이 뒷정리나 잘하십시오.”

심청과 팻사람들은 관음사에서 함께 내려오다가 헤어졌다. 집에 도착해 보니 심봉사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딜 다녀왔는데 이제 오니? 오늘은 남의 일도 없는 날이라 면서?”

“시장하시죠? 얼른 밤 지어 올릴게요. 기다리세요.”

정성스럽게 밥을 하고 상을 보아 가져다 놓았다.

“어서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는 간 고등어도 한 토막 있어요.”

“아이구 웬일이냐?”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기뻐? 그런 날도 있냐?”

“그럼요. 저 오늘 관음사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권선문 장부에 올려 약조한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고 왔거든요.”

“뭘 바쳐?”

심봉사는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렸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말 같은 소릴 해라. 도깨비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삼백 석을 푹푹 만들어 바친단 말이냐?”

“이제 아버지는 두 눈을 뜨게 되셨어요. 기쁘지요?”

“왜 말을 돌리느냐? 어디서 구해 온 거냐니까?”

“장 승상댁 마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뭘야? 장 승상댁이 왜 내줘?”

“언젠가 그 댁 부인께서 절 양녀로 삼고 싶으시다고 불러 간 적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때 절 양녀로 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분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런데 마침 그 댁에서 절 찾고 있다고 그 집 몸종이 절 데리러 왔지 뭐예요? 영문도 모르고 급히 퇴려 갔어요. 그랬더니 전번에는 사정이 생겨서 양녀로 들이지 못했지만 이번만은 꼭 들이고 싶으니 그렇게 해 달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냐?”

“마님께 우리 집 어려운 사정을 별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권선문에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겠다고 이름을 올리신 바람에 부처님과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지금 집안은 난리가 나서 말을 꺼낼 수 없으니 용서하시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님께서 당장 삼백 석을 관음사에 올려 보내게 하시고 절더러 양녀로 들어오시라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삼백 석도 바치게 되었고 아버지는 두 눈을 활짝 뜨고 광명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다른 건 다 좋지만 네가 그 댁에 꼭 양녀로 들어간다고 마님과 약조를 했다는 것이냐?”

“집에 가서 아버지와 상의해 보고 확답을 드린다고 했어요. 저어, 아버지 승낙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공양미 때문이기도 했어요. 너무도 고마워서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 하시면 마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게요.”

그러자 심봉사는 안 된다고 펄쩍 뿔 줄 알았으나 그러지 않았다.

“청아, 양녀로 들어가거라.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 네가 양녀로 간다고 우리 부녀가 평생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잖느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석 달에 한 번도 좋고 눈을 떠서 성한 얼굴로 널 보게 될 터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허허흠,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 심청이가 효녀 중에 효녀라는 걸 관음보살님이 아시고 돌보아 주신 거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

심봉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심봉사는 계속 누워 살다가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부자리부터 개어 한쪽 구석에 밀어 놓고 좋아서 어린애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더듬어 가며 방 안을 비로 쓸어 청소를 했다.

“앞이 안 보여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빼 먹고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했지만 그것도 칠월 백중날만 되면 끝이다. 내가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낳아 놓았다. 세상천지 그런 효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효성이 지극한 걸 보고 승상택 부인께서 우리 청이를 탐내고 수양딸로 삼으려고 했잖느냐? 청아!”

심봉사가 방문을 열더니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심청이를 불러왔다.

“네.”

“그래 승상택 마님은 언제 양녀로 들어오라 하시더냐?”

“내달 보름날 아침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앞 못 보는 병신 홀애비 밑에서 자랐으니 본데없고 버릇없이 컸다고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너는 그래도 책도 읽고 반듯하게 자랐으니 누구나 칭찬할 터이지만 그래도 매사 조신하게 어른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애비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날이 올 줄 뉘 알았겠느냐?”

말을 듣고 있던 심청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참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 냈다.

“아니 청이야, 너 우는 거냐? 응?”

“기 기뻐서 그랬어요.”

“기쁘기도 하겠지. 우리 딸은 부잣집에 들어가 귀염을 받고 호강하지 나는 이제 두 눈을 활짝 뜨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으니 세상 천지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러게요.”

심청이는 왈칵 터지려는 눈물을 참고 뒤꼍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굴뚝 밑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껴 울었다.

“내가 거짓말로 속이다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난 무릉촌 승상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당수 깊은 바닷물로 가요.”

한 달 후면 배를 타러 고향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루 지나 이틀쯤 되니까 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심청이는 그제야 자기가 없더라도 아버지 혼자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 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철따라 바뀌 입어야 하는 의복도 장만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입어야 하는 한복은 목화솜을 두툼하게 깔아 새로 지어야 했고 봄에는 훌바지 저고리 한 벌, 여름옷은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는 삼베 적삼에 삼베 중이 등 각기 한 벌씩 장만하여 바느질을 끝내어 농 안에 넣어 두었다.

거기다가 그동안 맡아 두고 끝내지 못한 싹바느질감이 여러 개 있었다. 밤을 새워 가며 그것들을 마무리해 나갔다.

“바깥에 일 나가는 것 없냐?”

아버지가 물었다.

“왜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요새는 날마다 집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

“싹바느질 맡은 거 때문에 그래요. 어서 끝내 주어야지요. 그리고 아버지, 내일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으면 해요. 괜찮겠지요?”

“어이구 기특한 것! 난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정말로 불가능했던 공양미를 불전에 바치게 되었고 이제 기도만 지성껏 올리면 나도 눈을 뜨고 새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네 어미가 몰라서야 쓰겠냐? 가자.”

심봉사가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을 먹자마자 부녀는 준비를 하고 곱씨 부인이 문혀 있는 묘소로 향했다. 뒷산 골짜기 양지바른 곳에 누워 있었다. 간단한 육포와 과일을 차리고 술을 따랐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심청이는 재배를 올리다가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목이 뻐다.

“어머니, 저 떠나요.”

그 말만 하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심봉사는 떠난다는 심청이의 마지막 인사의 그 뜻은 까맣게 모른 채 서서 눈물을 흘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마누라, 고생 끝에 낙이 왔는데 임자는 너무 일찍 눈을 감아 그걸 못 보고 세상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소? 드디어 소원 성취했소. 우리 청이는 부잣집 장 승상댁 마님의 양녀로 들어가 평생 사랑을 독차지하며 호강하고 살게 되었고 나는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게 되어 이제 눈을 뜨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요? 흠이라도 날마다 추고 싶은 심정이요. 미안하오. 고생만 하다가 먼저 가 버렸으니.”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어 떠나요.”

심청이는 차마 어머니 산소 옆을 떠나지 못해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마침내 통곡을 했다. 심봉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심청이를 달랬다.

“어허, 왜 이러느냐? 네가 떠난다 해도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네 어미 성묘는 언제나 올 수 있는데 마치 지금 가면 두 번 다시 못 오는 것처럼 울고 있으니 왜 이러느냐? 아가, 그만 울어라.”

“아버지!”

심청이는 심봉사 품을 파고들며 또 울었다.

“아가, 아가! 울지 마라.”

“기뻐서 울음이 나와요.”

“그렇기도 하겠지.”

마침내 부녀는 묘소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심청

이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샅바느질한 새 옷들을 보자기에 썼다.

“아버지, 이 옷들 다 전해 주고 올게요.”

네 집 옷이었다. 그동안 심청이는 승상댁 침모에게서 여러 가지 남녀 한복에 대한 재단과 그리고 바느질 기능들을 전수받아 지금은 모두가 그 솜씨를 인정해 주고 칭찬을 하고 있었다.

옷을 다 전달하고 돌아온 심청이는 다시 농 속을 뒤져 그동안 해 놓은 아버지 옷들을 꺼내 놓았다.

“뭐하는 거냐?”

“아버지 옷 몇 벌 해 봤어요.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입어 보세요.”

심청이는 동저고리부터 입혔다.

“어떠냐? 품도 딱 맞고 무엇보다 명주 솜이불 덮은 것처럼 따뜻해서 좋구나.”

“좋아하시니 좋네요. 딱 맞고요. 다음은 봄가을에 입으실 홑 민저고리를 입어 보세요.”

옷을 다 입혀 보고 나서 심청이는 또 미리 준비한 버선들도 홑버선, 겹버선 등을 나누어 각각 두 벌을 내놓았고 새 망건도 새 접시갓과 함께 내놓았다.

“뭐야? 망건을 샀어? 낡긴 했어도 아직 쓰구 다닐 만한테 무슨 돈이 있다가 샀느냐? 이걸 또 뭐야? 새 갓 아니냐?”

“갓도 낡아서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

“이게 무슨 호사냐?”

새 갓을 써 보고 심봉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걸 처량하게 지켜본 심청이는 또 눈물을 삼켰다. 이게 마지막이니 자기 없으면 누가

있어 아버지 옷들을 챙겨 줄 것이며 조석 진지 해드린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역장이 무너져 내렸다.

노루꼬리보다 짧은 것 같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이제 날이 새면 뱃사람들과 약속한 행선일이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심청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지문 창호지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어제 입은 그대로 심청이는 울다가 지쳐 꿍어앉은 모습 그대로였다.

‘아아, 드디어 내가 떠나는 날이 된 건가? 이제 곧 날이 새면 뱃사람들이 날 데리러 오겠지.’

그 생각을 하니 새삼스럽게 서러움이 복받친다.

“내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는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실까? 어린 핏덩이만 남겨 두고 어머니가 떠나신 후 장님이신 아버지가 앞도 못 보면서 날 싸안고 동네 골목을 헤매면서 동냥짓을 얻어먹여 이만큼 키워놓으셨는데 내가 떠난다면 아버지는 아마도 실성하실 것이다. 더구나 승상댁 마님이 공양미를 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몸 팔아 그 공양미를 바쳤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날 원망하실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실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에요? 농 속에 넣어 둔 네 벌의 새 옷을 다 갈아입기 전까지 눈을 뜨셔야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닭이 홑을 치며 울었다.

“제발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는 영원히, 다시는 울 수 없는 저 바닷속 저승길로 간다.”

방문 밖은 벌써 이른 새벽이 된 듯했다. 심청이는 우선 세수부터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섬돌을 내려서서 문득 바라보니 사립문 앞에 낮은

남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사내가 심청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남자, 일어나셨군요?”

인사를 했다. 뱃사람들이었다.

“네, 일찍 오셨네요?”

“오늘 떠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다마다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아침진지라도 지어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자 사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잠시 후에 올 테니까요.”

그들은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심청은 마지막 아침밥을 지어 상을 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갔다. 심봉사는 일어나 앉아서 상투를 틀기 위해 긴 머리를 빗어 올리고 있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해 드릴게.”

심청이가 아버지 뒤로 가서 익숙한 솜씨로 상투를 틀어 매어 주었다.

“탕진은 나중에 쓰시구 어서 진지부터 드세요.”

“그러자. 배고프구나.”

심청은 곁에 앉아서 시중을 들었다. 생선가시를 발라 수저 위에 놓아 주기도 하고 김치를 찢어 놓아 주기도 했다.

“애야, 왜 이렇게 상이 푸짐하냐? 뉘 집 제사 있었어?”

“아니예요.”

“간밤 꿈이 아주 길몽이었다. 네가 오색찬란한 꽃가마를 타고 구름 속으로 가는데 네 주변에 칠색 무지개가 떠 있질 않겠느냐? 그래서 일

어나 손꼽아 보니 오늘이 승상택 마님과 약조한 보름날이더라. 아마 장 승상택에서 널 데려가려고 꽃가마를 보내올 모양이야.”

그 말에 심청은 목이 뻣다. 눈물이 터지려 했다.

간신히 참고 아버지 식사가 끝나 상을 치우고 난 심청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뒷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행세하는 양반 덕이라면 집 뒤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이 있기 마련이지만 심봉사네는 퇴락한 양반이라 초가삼간에 살기 때문에 사당이 따로 없었다. 뒷방에 조상 위패(位牌)를 모셨으니 그곳이 사당인 셈이었다.

심청은 재배를 올린 뒤 무릎을 꿇고 나지막한 소리로 조상님께 고했다.

“불효 여식 심청이 조상님 전에 비나이다. 남아로 태어나지 못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여아로 태어나 대를 잇지도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 장님으로 살아오시는 것이 여한이 되던 차 바다상인들이 바다 제사에 쓸 숫치녀를 구한다기에 제가 아버지께는 알리지 않고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았나이다. 공양미를 바쳐야 아버지가 눈을 뜨신다고 관음사 지공대사님이 말씀하셔서입니다. 제발 아버님이 광명을 찾으셔서 새어머니를 맞아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대를 이을 아들을 두실 수 있도록 비오니 꼭 이루어 주옵소서. 불효 여식은 오늘 인당수로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절을 하다가 심청은 북받치는 설움에 통곡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안방에서 심봉사가 급히 다가와 심청이를 일으켰다.

“애야! 너 지금 뭐라고 고했느냐? 뱃사람은 뭐고 인당수는 뭐냐? 숫치녀를 사고판다고?”

“아버지! 용서하세요.”

심청은 아버지 무릎에 쓰러져 울었다.

“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공양미는 승상댁에서 보낸 게 아니라 뱃사람 상인 선주가 보낸 것이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눈을 뜨셔야겠기에 삼백 석에 그 사람들에게 바다 제사에 필요한 제수로 제 몸을 팔았어요.”

“네가 팔려가는 거라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두 마라. 아버지 놀래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정말이에요. 지금 절 데려가려고 뱃사람들이 사립문 밖에 와 있어요.”

“뭘이 가 어찌구 어찌? 애비 눈뜨게 하려고 네 몸을 팔았다 그 말이나? 그게 말이 되냐? 영? 그놈들 어디 있냐? 마당에 와 있다가? 가자!”

심봉사는 심청이를 끌고 마루로 나가 외쳤다.

“어떤 놈들이 순진한 내 딸을 공양미 삼백 석 준다고 꼬여낸 것이냐? 딸을 팔아 제 눈을 뜨겠다는 애비가 세상천지 어디 있단 말이냐? 쥐면 오그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금자동이 은자동으로 키워 낸 내 딸은 금은보화를 가져다 영겨도 내 눈 뜨겠다고 안 내놓는다. 아무리 무지한 뱃놈들이기로서니 너희들 무사하겠다고 사람 잡아 제사 지내고 바다귀신 만든다고? 안 된다! 이놈들아, 차라리 날 데려가라. 생사람을 제수로 꼭 써야 한다면 날 데려다 쓰거라. 내 고명딸 바다 제물로 죽이고 내가 두 눈 뜨면 뭘하겠느냐? 안 된다. 안 되고말고, 날 데려가라!”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왜 저분들 탓을 하세요?”

“네가 가면 나도 따라서 인당수로 가마. 함께 빠져 죽자!”

몸부림을 치며 울던 심봉사는 그만 실신하여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뱃사람들도 당장 가자고 하지 못하고 점심때 지나서 출발하겠다고 했다. 심청은 아버지를 안방에 뉘어 놓고 간호했다. 그렇게 되자 윗집에서 딸고만네가 달려오고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심청이 인당수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문이 재빠르게 퍼져 나갔다.

뒷골에서 양님이네 어머니까지 쫓아왔다. 얼마가 지나자 심봉사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뱃사람들 갔느냐?”

“다시 올 거예요.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마당 안이 떠들썩했다. 심청이 밖으로 나가 보니 선주가 오류명의 뱃사람들을 데리고 마당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버님은 깨나셨소?”

선주가 물었다.

“네.”

“다행이군요. 예, 다름이 아니고 동네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다 모이셨군요. 마침 잘되었습니다. 이 댁 따님이 우릴 따라가고 나면 맹인인 신 아버님만 남게 되지않습니까? 혼자 사셔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상론한 결과 따님께서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가는 게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3백 냥이구요. 쌀 백 섬입니다. 이 돈을 드리는데 그걸 맡아 주실 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일가친척이 없다니 보호자 되실 분이 없을까요?”



동네사람들이 놀라면서 서로 바라보았지만 내가 하겠다 나서지 못했다. 그러자 딸고만네가 나섰다.

“청이 어머니가 살아생전부터 친자매처럼 지냈고 죽고 나서도 어머니 노릇을 한 이는 뒷골 양님이네입니다. 그 집 내외분에게 맡기시는 게 어떤가요?”

양님이네가 손을 흔들었지만 심청이 나서서 맡아 달라 청했다.

“어머님이 해 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 돈과 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한 것은 여기 흘기에 적어 놔습니다. 쌀 중에 열닷 섬은 한 해 양식으로 하고 나머지 여든닷 섬은 장리를 놓아 해마다 이자를 받아 생활하시게 하고 돈 삼백냥은 논을 사서 땅이 없는 사람에게 도지를 주고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은 여기 모인 동네 어른 모두가 증인이 되셨으니 잘되어 갈 길로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뱃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에 모두 고마워했다. 심청이를 데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급히 가마 한 채가 심청이네 집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마님, 내리시지요.”

가마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귀티 나는 부인네가 가마 속에서 나왔다.

“마님!”

심청이가 놀라며 맞이했다. 무릉촌 장 승상댁 부인이었다. 부인은 심청이 손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나? 네가 삼백 석에 아버지 눈뜨게 해주려

고 뱃사람 상인들에게 팔려 간다니 그게 사실이나?”

“네, 죄송해요.”

“그런 일이라면 너는 내 양녀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오지 않고 뱃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했느냐? 여러 소리 하고 싶지 않다. 누가 선주냐?”

“제가 선줍니다만.”

“공양미조로 내놓은 백미 삼백 석은 당장 내가 물어드릴 테니 이 아이는 데려가지 마세요.”

승상댁 부인은 간절하게 사정했다. 그러자 사정이 딱하게 되었다는 듯 선주가 심청이에게 물었다.

“남자 하기에 달렸소이다. 처음 우리와 약조한 대로 우리를 따라 배를 타겠소 아니면 이 노부인 청에 따르겠소? 정하시오. 남자 하지는 대로 하겠소.”

심청이에게 결정하라 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나면 승복하시는 겁니까? 노부인 마님?”

“예, 그러지요.”

양쪽 모두 심청이만 주목하게 되었다. 심청이가 노부인의 두 손을 잡더니 흐느껴 울었다.

“내가 하지는 대로 하겠니?”

“어머님, 용서하세요. 전 저분들과의 약조를 지키겠어요. 어머님, 그동안 이모저모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청아!”

노부인은 망연히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자아, 이제 떠납시다.”

심청은 노부인 앞에서 맨땅에 앉으며 하직 절을 했다. 그걸 본 동네사람들은 모두 오열을 터뜨렸다. 일행이 골목 밖으로 나가자 심봉사가 심청이를 부르며 비틀거리며 다가가서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네 어른 두서너 명이 심봉사를 부축하고 심청이한테서 떼어냈다.

“진정하세요. 이렇다고 달라지는 거 없지 않소? 보내 주세요.”

“나도 함께 가자. 심청아, 너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너 죽고 내 눈 떠서 뭘 하겠느냐? 나도 널 따라가 인당수 깊은 물에 빠져 죽을란다! 청아!”

몸부림치던 심봉사가 온몸에 힘이 빠지는지 심청이 손을 놓고 마당에 주저앉았다. 뱃사람 일행이 심청이를 데리고 골목을 내려가 홀다리 쪽으로 가고 있었다. 심봉사는 목이 쉰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걸 보는 모든 동네사람들도 애처로운 듯 눈물을 흘리며 심청이 일행을 배웅했다.

양님이네 어머니가 심청이를 데리고 뱃사람과 함께 걸었다.

“어머니, 죽곡에 왔네요.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댁으로 돌아가세요.”

심청이의 간곡한 말에 양님이네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배가 별교에 있다니까 거기까지 너와 함께 갔다가 되짚어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양님이네 어머니는 그러면서 계속 따라왔다. 쌍암이란 곳에 이르자

오른쪽에 드높은 조계산이 버티고 있었다. 일행은 산을 돌아 남쪽으로 내려가 낙안을 지나 별교에 이르렀다.

포구에는 쌍돛을 달고 크고 호사스런 상선이 정박한 채 심청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아, 어머니는 이쯤해서 돌아가시지요. 승선해야 하니까요.”

뱃사람들의 말에 양님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심청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대신 혼자 되신 아버지와 어린 절 돌봐주신 은혜 죽어서도 갚지 못할 거예요.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부디 혼자 남은 저희 아버지, 땃국 전 옷 남루하게 입고 다니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어머니만 믿고 떠나겠어요.”

“오냐, 염려하지 마라. 어여 배에 올라가라. 다 기다리시지 않나?”

“네, 안녕히 계세요.”

가까스로 헤어지고 갑판 위로 올라간 심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고 목까지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실신한 그녀는 이윽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선실로 옮겨져 누워졌다.

순풍에 쌍돛을 올린 상선은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한려수도(韓水道)를 나와 남해에서 서해로 나아갔다. 중국 동쪽에 새부리처럼 나와 있는 산둥반도 끝의 등주(登州)로 가기 위해서였다. 선실에 누워 있는 심청은 그때까지도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 인당수에 떨어진 한송이 꽃

“아아!”

심청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올렸다. 눈앞이 환해지며 저녁놀이 펼쳐진 바다가 나타났던 것이다. 금빛 물결이 반짝이는데 선녀인 듯 차려입은 여인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너울을 나부끼면서 그 선녀는 심청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심청이 앞까지 온 선녀는 두 팔을 벌리고 미소를 띠었다.

“네가 청이구나. 그렇지?”

선녀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선녀님은 누구세요?”

“아아 우리 딸! 이리 오너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선녀는 심청이를 끌어안았다. 그 품이 그렇게 따스하고 포근할 수 없었다.

“정말로 어머니세요?”

“널 낳자마자 내가 죽었으니 네가 내 얼굴을 알 리 없지.”

“어머니!”

심청은 몇 번이고 불렀다. 그래도 그리움과 한이 풀리는 이름이 아니었다.

“이젠 떠나지 마시고 소녀 곁에 머물러 계셔 주세요. 소원이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단다. 이 에미가 있는 곳은 구천의 저승이지만 너는 저 인당수 밑 바다의 용궁에 있게 되었기에 서로 사는 곳이 다르니 그런 것이란다. 우리 딸 심청이가 천하의 효녀라는 게 자랑스럽다. 어느 집 딸인들 제 목숨 팔아 소경 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느냐? 우리 딸이니 나섰지? 장하다. 자아, 그럼 또 만나자.”

“어머니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어머니!”

심청은 잡고 있던 어머니 손을 더 꼬옥 쥐고서 놓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손에 가득 쥐었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듯스르르 어머니 손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심청은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다가 눈을 떴다. 혼절했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순간에 꾸었던 꿈이었다.

“심청 남자! 이제 정신이 좀 나시나요? 벌써 행선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벧사람이었다.

“어머 벌써요?”

“인당수가 가까워졌습니다. 제사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곳은 항상 돌풍이 불고 소용돌이치는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돌풍이 일어나기

전에 제사 준비를 해야 하지요. 남자께서는 두 번째 선실로 옮기셔서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깨끗한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심청은 지금 지나고 있는 바다의 주변이 궁금하여 뱃전으로 올라갔다.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검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하늘은 온통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비라도 쏟아질 기세였다.

이상한 것은 바람이었다. 분명 갑판에 막 올라왔을 때는 전연 바람이 일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자 이상한 바람이 북서쪽에서 일어나 점점 세지고 있었다. 거기에 맞추기라도 하려는 듯 파도가 높아지며 포말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에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갑판에 계시면 안 됩니다. 선실로 내려가 계세요. 여기는 예고 없는 돌풍이 일어나 밀어닥치는 곳이라 그 바람에 휩쓸리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서 내려가세요.”

선원들이 심청에게 재촉했다. 심청은 급히 선실로 내려갔다. 다른 한 방에 목욕할 수 있도록 커다란 나무욕조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득 채워 놓고 있었다. 제물이 되려면 몸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심청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의 같은 시각.

별교 포구 해안 기슭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제주는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이었다. 제사가 차려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제상 뒤쪽에 걸개그림이 한 폭 걸려 있었다. 그건 심청이 모습을 그린 화상이었다.

부인은 취미가 그림 그리고 서예를 즐기는 것이었다. 부인은 심청이를 사랑하여 평소에 그녀의 얼굴을 그려 자기 방에 걸어 놓고 있었다. 그 그림을 떼어 가지고 이곳 별교 포구에까지 가지고 온 것은 인당수에 몸을 던져 수중고혼이 될 심청의 혼을 달래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제사를 지내려 온 것이다.

“아아, 이럴 수가!”

제사를 지내려던 부인이 놀라서 외쳤다.

“무슨 일이세요? 마님!”

몸종이 물었다.

“저 그림, 청이의 얼굴 그림을 보아라. 갑자기 얼굴과 그 모습에 검은 그림자가 덮고 있구나.”

“그러게요. 웬일일까요?”

“지금쯤 우리 심청이한테 큰 변고가 있다는 조짐이다. 청아, 내가 왔다. 밤낮으로 널 그리워하다가 네가 떠난 이곳에 왔다. 진혼굿도 해 주고 너의 효심을 기리는 비석도 세우려 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해용왕님이시여, 우리 심청이를 돌보아 주소서.”

부인은 간절하게 빌었다.

인당수에 몰아닥친 돌풍, 그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다. 파도 또 한 더 높아져서 배가 요동을 쳤다.

“먼저 닻을 내려라! 그리고 돛을 내려라. 큰 돛, 작은 돛 모두 내리란 말야. 잘못하면 역풍으로 펼쳐진 돛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다. 좀 더 빨리 움직여라!”

선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하고 있었다. 쌍돛이 다 내려지자 배의 요동은 좀 가라앉았지만 뱃전을 부של 듯 밀어닥치는 집채만 한 파도의 위력은 대단해서 파도가 때릴 때마다 배는 가랑잎처럼 맥을 잃고 좌우로 기울었다.

“모든 하물은 완전히 잘 묶여 있는지 점검하라. 매듭이 풀어지면 짐들이 뒹굴며 서로 부딪쳐 배가 파손될 수도 있다.”

갑판장이 다른 선원들을 독려했다.

“배의 기둥에 몸을 묶어라. 안 그러면 파도칠 때 배 밖으로 내팽개쳐진다.”

강풍과 성난 파도 때문에 배는 선실이나 갑판에 앉거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한 번씩 좌우로 요동을 칠 때면 한쪽으로 몸이 굴러 배 벽에 부딪치고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 기둥에 몸을 묶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그 위험 속에서도 선주는 선원들을 독촉해서 제사 올릴 준비를 시켰다.

모든 제사 준비는 진작부터 다 준비해 둔 터라 떡은 찌기만 하면 되고 고기 역시 삶아 내기만 하면 되었다.

“고수는 북을 울려 고사<sup>作祀</sup> 용왕제<sup>龍王祭</sup> 드린다는 뜻을 사해용왕님들께 전하라.”

선장의 외침소리에 고수가 동동동 북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계면조<sup>界調</sup>의 해금<sup>絃琴</sup> 소리가 울려 나와 바람 속에 퍼져 나갔다. 북을 치는 고수나 해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모두 선원 중의 하나였다. 그때 선주가 배의 고물 쪽에 나가 꿇어앉으며 고사 축문을 올렸다.

“인당수를 관장하시는 서해용왕님께 고하나이다. 저희 성덕호 선원

32명은 용왕님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나이다. 제사에 앞서 고하나니 부디 응감(應感)하시어 저희들의 소원을 성취케 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잦고 파도가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토록 불어 대던 강풍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용돌이를 치며 거칠게 요동을 치던 파도가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어서 제상을 차리고 제 지낼 채비를 하라.”

한 섬 쌀로 밥을 짓고 작은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오색탕수, 삼색 실과를 방위 찾아 진설하고 산 돛을 잡아 큰칼 꽃아 바치고 동서남북 방위마다 커다란 솔통을 열어 세워 놓았다. 선장이 심청이 기다리고 있던 선실로 찾아와 제사 시각이 되었으니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기다리라 했다.

하얀 소복을 한 심청이는 제상 앞, 배의 가장 앞머리에 홀로 앉혀졌다. 이윽고 북소리 뚝뚝 울리며 제사가 열렸다. 선주가 꿇어앉으며 하늘을 우러러본 다음 축문을 읽었다.

“유세차 정유 칠월 백중일에 현관 유학 모종권 감소고우 상하원신 구축사마 청정기계 흠격 상 찬. 조선 해동국 서해 앞바다 인당수 깊은 물에 당하여 서해용왕님께 고하고 용왕제를 지내오니 가납하시고 응감하시옵소서. 오늘 용왕제를 지냄에 용왕신께 삼가 이 숫치녀 심청이를 바칩니다. 이 심청이는 조선의 해동국 산자수명한 곡성 오곡말 도화동에서 청렴한 군자 맹인 심학규의 딸로 태어나 앞 못 보는 아버를 지성으로 모시고 산 효녀로 인근에 칭찬이 자자했던 처자이옵니다. 그런 효녀 심청이를 드리오니 심기를 푸시고 바닷길을 다니며 살아가는 저희

성덕호 선원 32명, 순풍에 돛 달고 조창에 떠다닐 때 언제나 인당수 앞 바다 잠잠하게 해 주시고 온갖 뱃길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장사하는 곳마다 잘되어 천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북소리와 해금소리가 일어났다. 인당수는 언제 풍랑이 쳤느냐는 듯 잔잔해지고 있었다. 순서에 맞춰서 용왕제는 끝나 가고 있다. 눈을 감고 체념한 채 뱃머리에 앉아 있는 심청이는 언제 도사공이 투신하라고 외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지시하는 소리에 따르라고 이미 선실에서 말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북소리가 휘모리장단으로 더욱 빨라지고 더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불효 여식 심청이는 부모님 슬하를 하직하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공양미는 바쳤으니 기도 후에 꼭 눈을 뜨시어 광명천지 보시고 새로운 배필 만나시어 남은 여생 행복을 누리시고 득남하여 대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갑니다.”

먹구름 가득한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몇 차례 울리더니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떠나는 심청을 보고 하늘도 함께 울어 주는 듯했다. 심청이 부모님께 간절히 하직인사 올리고 나자 북소리가 더 커지고 선장의 목소리가 바다에서 솟아나듯 크게 들렸다.

“투우신!”

심청이가 일어섰다.

뱃머리에 하얀 치맛자락이 너울거렸다. 순간적으로 치마폭을 뒤집어 쓰며 심청은 배에서 몸을 던졌다.

서해용왕은 수정궁 편전에 누워 설핏 낮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

자기 들려오는 해금소리와 북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 일어났다.

“여봐라. 이게 도대체 웬 소란이냐 누가 북을 치고 해금을 타느냐?”

용왕의 소리에 승지가 급히 들어와 부복하며 아뢰었다.

“용왕저하! 지금 들려오는 저 북소리는 인당수 바다 위입니다.”

“인당수에서?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냐?”

“어부가 아니라 바다상인들입니다. 이번에는 처녀로 제물을 삼아 용왕 공신제(供身祭)를 드리고 있다 하옵니다.”

“처녀를? 어디 사는 누구라더냐?”

“예, 알아본 바로는 조선의 해동국 남쪽 곡성에 있는 오곡말 도화촌에 사는 가난한 맹인의 딸 심청이라 하옵니다.”

“그러면 가난해서 공신녀 제물로 팔려 온 거라더냐?”

“그게 아니옵고 그 처자는 어려서부터 앞 못 보는 아버를 구걸해서 지성껏 봉양하여 근동에 효녀 중의 효녀로 알려져 있사온데 관음사 화주승이 지나다가 심봉사에게 눈을 뜨고 싶으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고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광명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공신녀로 팔려 왔다 하옵니다.”

“제 몸을 팔아서 아버 눈을 뜨게 해 주겠다? 허허, 효녀로다. 그런 효녀가 있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다. 여봐라!”

“예이.”

“근위장군을 불러라.”

용왕이 거처하는 수정궁을 경비하는 근위군 대장이 달려왔다.

“근위대장 등대했나이다.”

용왕은 감탄한 듯 승지에게서 들은 심청이의 얘기를 하고 명을 내렸다.

“지금 당장 인당수로 가면 북소리가 끝날 때 투신하는 처녀가 있을 테니 죽기 전에 터럭 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구하여 대궐로 데려오도록 하라.”

“예, 분부 거행하겠나이다.”

근위대장이 나갔다. 한편 인당수 깊은 물에 뛰어든 심청은 바닷물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렸다.

“아아, 이렇게 죽는구나.”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물을 켜고 의식을 잃으면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가자 심청은 살기를 체념했다. 바로 그때였다.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뒷동산 잔디밭을 걷고 있는 듯 편안하고 쾌적해졌다.

“이게 웬일이지? 아아, 저건 뭐야?”

심청은 놀라서 앞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져 있는데 화려한 오색 꽃으로 장식한 꽃가마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심청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마 뒤에는 이십여 명의 선녀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꽃가마는 심청이 바로 앞에 와서 멎었다.

근위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심청에게 인사를 했다.

“소장은 서해용궁의 근위대장 구갑(龜甲)입니다. 용왕저하의 명으로 모시러 왔으니 어서 꽃가마에 오르시지요.”

“장군님, 저는 꽃가마에 타고 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저 바다상인들의 용왕제에 제물이 되었던 소녀에 불과합니다.”

“용왕님의 어명이오니 어서 타십시오.”

심청이는 시녀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가마에 올랐다.

“어서 출발하라.”

꽃가마 행렬은 서해용궁의 수정궁으로 향했다.

“마님! 저 그림 좀 보세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장 승상댁 몸종이 제주를 따르고 있던 부인에게 소리쳤다. 놀란 부인이 심청이 화상을 바라보았다.

“저, 저럴 수가! 용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으로 변했던 심청이의 화상이 다시 환해지며 미소 띤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던 것이다.

“역시 용왕님도 심청이의 효도정신에 감동하셨나 보다. 우리 심청이는 죽지 않고 살았나 보다. 살려 주신 용왕님, 감사합니다!”

승상댁 부인은 바다를 향하여 합장하며 고마워하고 기뻐했다.

서해용왕이 사는 수정궁은 맑고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궁전이라 마치 얼음으로 만들어진 대궐 같았다. 왕궁은 엄청나게 넓은데 갖가지 이상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동산을 이루며 다투어 피어 있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 또한 수정으로 깔아놓아 빛나고 있어 으리으리했다.

이윽고 꽃가마에서 내린 심청이가 궁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용왕이 있는 편전으로 들어갔다.

“조선의 효녀 심청 남자 대령이요.”

제조상궁이 고했다. 용왕은 화려한 산호색깔의 용상에 앉아 있다가 심청을 맞았다.

“으음, 네가 심청이냐?”

“네.”

심청이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고개를 들어 보아라.”

심청이 겨우 고개를 들자 용왕은 감탄했다.

“아버지 눈을 위해 제 몸을 판 효녀로만 알았더니 정말 미인이로구나. 심청이!”

“네.”

“이 용궁의 한 달은 저 육지의 일 년과 같다. 너 같은 효녀는 이곳 바닷속에서 살기보다는 육지 세상에 나가야 효행<sup>孝行</sup>이 뭇지 인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니 너를 인간세상에 다시 내보내려 한다.”

“대왕마마, 감사하옵니다.”

심청이 엎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인간세상에는 불효막심한 자들이 차고 넘친다고 들었다. 그런 자들이 너를 보고 잘못을 느끼고 효자 효녀로 감화되어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감사하옵니다.”

“이곳 용궁에서 한 달만 잘 쉬었다가 인간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심청은 피곤에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더 아름다워졌다. 용왕이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심청은 용궁을 떠나도 된다는 분부를 받았다.



청초하게 단장을 한 심청은 떠날 준비를 하고 용왕을 알현했다.

“더 오래 잡고 싶지만 심청이 네가 이곳 바닷속에서는 할 일이 없기에 일찍 내보내는 것이다. 나가면 너의 그 바른 행실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보여 주고 효도가 뭔지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미천하고 무지한 소녀를 그토록 과대평을 하여 주시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 주신 대왕마마의 은공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도록 하여라.”

심청은 마지막 절을 올리고 수정궁 궐문 밖으로 나왔다. 역시 온갖 꽃으로 뒤덮인 꽃가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님, 타시지요.”

선녀 같은 시녀들이 구름자락 같은 치마를 끌며 심청을 가마에 태웠다. 가마가 어디론가 움직여 나갔다. 신기하게도 꽃가마가 원을 그리다가 점점 작아지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오그라드는 나팔꽃처럼 오므라들었다. 그러더니 한 송이 옥련화(玉蓮花)가 되어 심청이가 빠졌던 인당수 바다 위로 두둥실 떠올랐다.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기에 맞추어 해금 가락이 구슬프게 들려오고 있었다. 징소리도 들려왔다. 제법 큰 배 한 척이 대해 위에 떠 있는데 풍악소리는 그 배에서 나고 있었다. 그 배는 상선 성덕호였다. 성덕호는 작년 이맘때 이곳 인당수 위에서 공신 용왕제를 지내며 제물로 심청이를 바다에 바쳤던 그 배였다.

상선 갑판 위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선원들은 서해용왕께 제

사를 드리고 있었다. 심청이를 제물로 바친 후 이들은 소원성취를 했다. 일 년 동안 단 한 번도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던 적도 없었고 한양에서 중국 각지로 장사를 다녔는데 손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돈을 벌어들여 모두 주머니가 든든해져 있었다.

이들은 중국 산동의 등주 장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인당수를 지나게 되었다. 항상 돌풍이 불고 풍랑이 거센 곳이 인당수인데 심청이 제물로 바쳐진 다음부터는 언제나 잔잔했다. 고향으로 가는 성덕호는 마치 만선되어 돌아오는 어선처럼 뱃전에 오색 깃발을 내걸고 춤을 추며 귀향하는 길이었다.

바로 그때 선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돌쇠란 청년이 제안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무사히 항해하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작년에 이곳에서 용왕제를 지낼 때 심청 남자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수중고혼이 된 그 처녀를 위해 제를 지내 주고 바닷속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 같은데요? 여러 선배님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 말에 선주는 물론 선장 이하 모든 선원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를 올려 주고 가기로 했던 것이다. 이윽고 선주가 제사상 앞에 꿇어앉아 축문을 고했다.

“조선 해동국 성덕호 선원 일동은 삼가 고하나이다. 작년 칠월 백중일에 조선 제일의 효녀 심청 남자를 이곳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 수중고혼이 되게 하였으니 얼마나 슬프고 애달픈지 모르겠나이다. 그 이후 저희들이 가는 곳에 장사가 잘되어 많은 돈을 벌었고 바닷길을 항해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순풍만 불어 평안하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해용왕님이시여, 효녀 심청이시여! 고맙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전라도 땅 곡성 오곡마을 도화동으로 가서 남자가 잊지 못하는 장님 아버지 심학규님께 안부나 전하려 합니다. 삼가 위로 하오니 남자의 고향은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다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징을 치며 제를 마쳤다. 그때 고물 담당 선원이 놀란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저건 뭐지요? 이상한 게 바다에 떠 있어요.”

“뭐야? 어디에?”

모든 선원들이 그가 가리키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뭔가 화려한 색깔의 둥근 바구니 같은 것이 파도에 밀려 떠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꽃바구니 같은데요?”

“바구니가 아니라 그냥 한 송이 연꽃 꽃봉오리다.”

“아, 그렇군요.”

모두 탄성을 발하는데 하늘에 떠 있던 하얀 뭉게구름이 오색찬란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선인<sup>仙人</sup>이 나타났다.

“나는 서해용왕님의 사자이다. 그 옥련화는 심청 효녀의 넋이다. 넋으로 피어나는 그 꽃은 반드시 조선의 임금에게 진상해야 할 것이다. 잘 건져 모셔다가 진상하라. 내 명을 거역하면 다시 인당수는 사나워질 것이다.”

“예, 삼가 명 받들겠나이다.”

선장은 고물 선원에게 건져 내오라 했다. 그 선원은 즉시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옥련화 봉오리를 소중하게 건져 배 위로 올라왔다.

“독실<sup>獨室</sup>로 모시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선장이 명했다. 독실은 독립된 작은 선실이었다. 방 밖은 청라 비단으로 포장막을 만들어 둘러쳤다.

며칠 후 성덕호는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입항했다. 선장은 선상회의를 열었다.

“원래 우리는 부산포항이 기착지였지만 용왕께서 옥련화를 구중궁궐에 계신 우리 상감마마께 진상해야 한다 명하시어 그 꽃봉오리를 드리려고 제물포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한양 경복궁까지는 일백오십여 리 떨어져 있다. 옥련화는 가마에 소중하게 태워서 보낼 것이며 우리 32명 선원 전부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표자로 선장님, 선주님, 그리고 도사공님, 그 세 분이 배행하시고 가마채를 메고 갈 선원 두 사람이면 어떨까요?”

선원 중 한 명이 의견을 말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대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닷새 정도는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배에 남아 쉬고 있으면 될 것이다. 어서 하선하여 가마부터 차리자.”

선원들은 서둘렀고 가마가 준비되자 옥련화 꽃봉오리를 모셔 태웠다. 선원 중 젊은 사람 둘에게 가마를 메게 하고 선장 등 일행 세 명은 한양으로 향했다.

도중에 오류동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에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송래문을 지나 광화문 육조거리 앞에 이르렀다. 드넓은 육조거리 양편에는 조정의 관공서 건물이 짙게 늘어서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광화문에 들어가 승정원이 어디인가를 묻고 거기 가서 대궐에 온 사  
연이 뭘지 아뢰라고 어떤 관원이 알려 주었다.

승정원은 임금의 정무政務와 일과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승지에게 온  
뜻을 밝히자 일행에게 승정원 뒤에 있는 객관에서 기다려 보라 했다.  
얼마를 기다린 뒤에야 승지가 와서 알려 주었다.

“그 옥련화를 가지고 날 따라 들어오도록 하시오.”

승지가 앞장서서 대궐 대전으로 들어갔다.

“상감마마, 그 남경상인들이라는 뱃사람들이 등대했나이다.”

보좌에 앉아서 장계문을 읽고 있던 임금이 계하를 내려다보았다.

“너희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예, 소인들은 멀리 중국, 왜국 등 바다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해상海  
商들이옵니다. 하온데 바다를 다니자면 언제나 돌풍이 일어나고 소용  
돌이 파도가 몰아치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중국을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그 최악의 바다가 인당수라는 곳입니다. 해마다 백여 척의 상선  
과 어선들이 전복 파선이 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곤 합니다. 용왕제  
를 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공신 용왕제를  
지내면 무사해진다는 전설에 따라 제물이 될 처녀를 찾고 엄청난 몸값  
을 준다고 했지만 다 싫어하며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며 저희  
들을 욕했습니다. 헌데 전라도 땅 곡성 오곡마을 도화동에 사는 심봉사  
는 인근의 절인 관음사 화주승으로부터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  
고 기도를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도 가난하여 공양미  
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절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장님의 딸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제

몸을 삼백 석에 판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위해 제 몸을 팔았다고? 하늘이 낸 효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효녀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나자 그 이후부  
터는 언제나 인당수가 잔잔해져서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  
국 장사를 끝내고 귀국하며 인당수를 지나게 되어 심청 처녀가 너무도  
고마워서 수증고훈이 된 그 효녀의 넋을 위로해 주는 제를 올렸습니다.  
제를 마치고 보니 바다 위에 이런 꽃봉오리가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 그것이 너무 신기하였는데 마침 하늘에 선  
인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서해용왕님의 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꽃은 옥련화인데 귀국하면 즉시 궁궐에 계신 상감마마께 전하라 하셨  
다 하여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그래? 청라비단으로 덮인 그것이 옥련화란 말이나?”

“예.”

선장은 덮여 있던 비단자락을 벗겨 냈다. 놀라운 것은 옥련화의 연꽃  
봉오리가 절반쯤 열리고 피어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였다.

“오오, 이 향내음!”

임금은 옥련화의 자태를 보자마자 그 앞에 다가서서 돌이라도 된 것  
처럼 일순간 서 있었다. 잠시 후 임금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걱정스러운지 승지가 물었다.

“괜찮다. 여봐라! 저 옥련화는 바로 침전 앞에 있는 작은 연못에 심도  
록 하라. 그리고 저 옥련화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선원들에게

상금을 내리고 효녀 심청을 표창하여 효녀문을 세워 주도록 하여라.”

“예이!”

“침은 피곤하여 쉬도록 하마.”

임금은 한낮인데도 피곤하다며 병색을 보이고 침전에 들었다. 비몽사몽,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이 든 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었다.

“아, 이게 무슨 향기냐? 아니 이 향기는 사랑하는 왕후의 체취가 아닌가?”

임금은 팔을 뻗어 뭔가를 찾았다. 옆에 있어야 할 왕비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왕비! 왕비!”

임금은 아직도 왕비의 향기가 방 안 가득 풍겨오는지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일어나 앉았다.

“당신이 내 곁에 다시 와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임금은 왕비를 보려고 눈을 떴다. 둘러보았으나 왕비는 곁에 없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지?”

침전 밖은 벌써 황혼이 내려와 치자빛깔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연못 물 위까지 반짝이며 물들이고 있었다.

“이 냄새, 이 냄새는 분명 왕비의 체취인데? 어디 있는 거야?”

임금의 용안이 슬픈 빛으로 이지러졌다. 찾고 있는 왕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왕비의 체취는 강한 꽃향기로 풍겨오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임금은 침상에서 몽유병자 처럼 내려왔다.

“아, 아.”

임금은 강한 향기에 이끌려 연못가로 나왔다. 향기의 진원지는 연못이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임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연못 위에 피어 있는 한 송이 옥련화, 연꽃 봉오리였다. 그 연꽃에서 강한 향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았다. 임금은 홀린 듯 연못가에 앉았다. 그 옥련화 봉오리가 물결 따라 임금이 앉아 있는 바로 앞까지 떠 왔다. 은은한 향기에 임금의 가슴은 부풀어 올라 뛰었다.

왕비를 처음 만났을 때 느껴 본 연정이었다.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난 것이다.

“왕비, 소원이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발 보여 주오.”

그 왕비는 일 년 전에 임금 곁을 떠났다. 지병을 앓다가 눈을 감은 것이다. 젊고 아까운 나이였다. 스무 살이었다. 임금이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랑하던 왕비를 잃은 임금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워하다가 몸져누운 채 6개월 동안이나 국정을 보살피지 못했을 정도였다.

## 국모가 된 심청 왕후

일 년이 지나면서 겨우 왕비를 잇는 듯 보였는데 다시 왕비를 부르며 연꽃가로 나온 것이었다. 마침내 그 연꽃 봉오리는 임금의 발밑까지 떠 밀려 왔다.

“왕비! 그 모습을 보여 달란 말이오. 왜 내 가슴을 애타게 하는 거요?”

꽃봉오리를 만지며 임금이 하소연하자 마치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향기를 더욱 발하며 봉오리가 벌어지고 그 속에서 상아같이 희고 붉은 꽃잎이 부채를 펴는 것처럼 열리는 것이었다.

“오, 오.”

순간 임금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활짝 핀 옥련화 속에서 한 선녀가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이 아닌가. 임금은 황홀해서 그 선녀를 바라보았다. 죽은 왕비의 향기를 내고 있던 여인은 바로 그녀였다. 옥련화 연꽃 속에서 나온 그 선녀가 사뿐히 연꽃가에 오르더니 임금 앞에 와서 날아갈 듯이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불효 소녀 심청이 삼가 상감마마께 인사 올리옵니다. 이 불효녀는 작년 칠월 백중날에 인당수 깊은 물에 용왕제 제물로 바쳐져 죽을 몸이 온데 서해용왕 저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속 세상에 살 게 아니라 인간세상에 다시 나아가 인륜의 근본인 효도의 덕을 만인들에게 전하옵시는 명을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여 이 조선국에 왔나이다. 소녀를 받아 주시옵소서.”

“잘 왔도다. 그대는 하늘이 내주신 효녀다. 그런 효녀가 우리나라 전라도 땅 곡성현에서 나왔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다. 여봐라! 이런 경사가 어딴느냐? 효녀 심청이 환생했으니 각별히 맞이들이도록 예조에 명하노라.”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심청은 임금의 환대를 받고 특별히 그녀를 위해 마련된 효녀전(孝女殿)에서 공주처럼 살게 되었다. 심청의 환생은 나라 안의 화젯거리였다. 그러자 어전회의에까지 화제가 되어 홀로 계신 임금의 혼사문제로까지 커졌다. 며칠 후 대전에서 아침 조회가 열리게 되었다. 각부의 중신들이 다 모여서 임금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임금이 용상 위에 앉자 조회가 열렸다.

“오늘 특별하게 의논해야 할 국사가 있소? 있다면 무엇이오?”

임금이 계하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영의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씀드렸다.

“더 이상 전하의 혼사(가례) 문제를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중신들의 하나 같은 의견에 따라 새 왕후 간택(왕비나 왕자비를 선택하기 위해 실시한 일종의 면접시험)의 결과가 나왔기로 상감마마께 고하나이다.”

“간택 결정의 결과가 나왔다?”

“예.”

“세 분의 규수가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조판서 김정세 대감의 여식. 둘째로 한성판윤 이두호의 여식. 그리고 효녀 심청 등 세 분이었습니다. 이중 심청 효녀가 새로운 황후가 되시는 게 백성들의 모범을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고 전하의 흥복이라 생각되어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흐흠.”

모처럼 임금의 용안이 활짝 펴지고 웃음이 떠올랐다.

“경들의 신중한 결정이니 과인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간택이 정해졌으니 국혼 가례를 서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다. 심청은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어 비어 있던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대궐 안은 임금의 혼사 채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례 날이 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은 임금을 따로 만나게 되었다.

“혼사 채비는 잘 되어 가고 있소?”

임금이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웃으며 물었다.

“네.”

“무슨 할 말이라도?”

“상감마마, 가례 예식 때는 당연히 일가친척 가족 모두 참석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헌데 송구하옵게도 소첩에게는 친가 외가 통틀어 친척이 없으니 어

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소. 하지만 맹인이신 아버님 한 분이 있다 하지 않았소?”

“그렇사옵습니다. 사람을 놓아 이번 혼사에 제 아버지를 부르시어 참예케 해 주신다면 영광이겠나이다.”

“허허허, 따지고 보면 왕비의 친정아버지는 과인에겐 장인 아니오? 장인도 부모인데 당연히 불러 모셔야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당장 전라도 곡성현에 어명을 내려 맹인 심학규 어른을 모셔 오도록 할 테니 염려치 마시오.”

왕은 약속을 지켰다. 전라도 곡성으로 급사가 내려가 심봉사를 수배하여 찾아서 대궐로 모시라고 현감에게 전했다. 일주일 만에 곡성현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임금은 심청을 불러 도화촌에 가서 심봉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음을 전해 주었다.

“아버님은 도화동에서 이미 여섯 달 전에 어디론가 이사를 하여 찾지 못했다니 어쩌면 좋소? 거참 안타깝구려?”

“이사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도화동 그 집을 떠나실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사신 집이고 바다상인들이 거금을 내놓아 장리를 받아 넉넉하게 생활하시게 하였고 논을 사서 소작인들에게 농토를 내주어 소작료도 받아 사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듣자하니 뒤늦게 과부댁 하나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요?”

“네에? 과부댁하고 살림을 차려요?”

“술집 주모 출신이라던데? 이름은 거 뭐라더라? 뺨파라든가?”

“뺨파! 뺨덕이네! 맏소사. 그 교활한 여인에게 넘어가셨군요?”

“그래도 찾아내라 했는데도 어디로 두 사람이 종적을 감췄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소.”

“송구하옵니다.”

자기 죄인 것처럼 심청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모인 뺨덕이네한테 걸린 심봉사가 살림까지 차리고 살다가 도화동에서 타관으로 떠나 버렸는데 행방을 모른다는 말이었다.

“저희 부친은 눈을 뜨셨다고 그러시던가요?”

“그냥 소경 맹인이었다 했소.”

관음보살님이 아속했다.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바치고 지성으로 기도를 하면 눈을 뜨고 광명천지를 볼 수 있다고 했잖은가. 그런데 지금도 장님 그대로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가례를 치르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으니 제 아버님 행방을 더 자세히 찾아보라 하면 안 될까요?”

심청의 간절한 말에 임금도 그러자 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심봉사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가례를 치르는 날까지 행방이 묘연하여 심청이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윽고 만조백관과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임금의 가례가 경복궁에서 치러졌다.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심청이었지만 얼굴에는 수심의 그림자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왕비 죽은 후 그토록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던 그 왕비와 닮은 심청이를 새 왕비로 맞았으니 임금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임금은

가례 이후 상을 내렸다.

“전국 각처를 조사해서 효부, 효자, 효녀를 가려내어 상을 내리고 그 조부모, 부모 된 자들까지 큰 상을 내려 표창하도록 하고 특사령을 내려 생계 때문에 작은 죄를 저지르고 옥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풀어 주도록 하라.”

백성들은 어진 임금이라며 모두 칭송했다. 대전에서 정무를 마치고 편전으로 돌아온 임금은 심청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왜 그러는지 알고 위로했다.

“너무 슬퍼 마시오. 아버님은 어떡하든 찾아낼 테니까.”

“마마.”

“말씀하십시오.”

“이곳 왕성으로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건 어떠신지요?”

“전국 맹인잔치를 하자? 허,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되면 행방을 모르고 있는 장인어른도 찾을 수 있겠구먼? 잔치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지? 상경할 맹인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한 달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는 언제쯤이 좋을까?”

“이제 곧 팔월 한가위이니 추석 후에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시다. 그럼 곧 명을 내리겠소.”

조정에서는 얼마 안 되어 전국 각지의 지방 관아에 명을 내려 전국 맹인잔치를 한다는 포고 방문을 써 붙이도록 했다. 방문이 나붙자 잔치

중에 장님잔치를 그것도 나라에서 해 준다 하니 가는 데마다 화제 만발이었다.

“정말 어진 임금님이야. 효부 효자 효녀를 가려 상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남들한테 눈병신이라고 손가락질만 당하던 소경들을 불러 위안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니 성군<sup>聖君</sup>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편, 심봉사가 곡성 오곡마을 도화촌을 떠나 남원에 와 살게 된 연유는 팽덕이네의 꼬드김에 넘어가 그 여자의 치마폭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심봉사는 심청이가 떠난 이후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아이고 아직도 자나 깨나 딸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다간 폐인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요.”

“딸 팔아먹은 애비가 혼자만 살면 뭐 한대요? 나도 그때 따라가서 인당수에 푹 빠져 죽었어야 했어요.”

딸은 자기 때문에 죽고 자기는 혼자 살아 있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죄책감이었던 것이다.

이웃에 사는 딸고만네를 비롯하여 동네사람들이 번갈아 찾아와 딸도 없이 홀몸이 되어 의지할 데 없이 살고 있는 심봉사를 위로하고 말동무도 되어 주곤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다.

심청이네 집을 찾아와 가장 고생해 준 사람은 양님이네 내외였다. 떠날 때 심청이가 눈물로 부탁한 대로 때 절까 봐 빨래도 게을리 하지 않고 늘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심청이가 해 놓고 간 바지저고리를 철 따라 번갈아 갈아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상선 뱃사람들이 모아서 주고



간 돈으로 장리 빚을 놓아 주고 농토를 사서 소작인들에게 빌려 주는 등 그 모든 것들은 양님이네가 맡아서 해 주고 있었다.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던 심봉사는 언제부터인가 흙다리 건너 주막을 찾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다. 팔을 잃은 괴로움과 슬픔을 술로 잊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주막에 가면 주모인 뺨덕이네가 누구보다도 살갑게 챙겨 주고 동정해 주고 심봉사의 외로운 사정을 알아 주니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만 있으면 뺨덕이네는 심봉사 마음을 흔들었다.

“심청이마저 없어졌으니 봉사님은 의지가 없는데 비 오는 날 초상집 개신세가 되었네요. 생각해 봐요. 주인집에 초상이 나서 온 식구가 거기 매달려 있으니 집에 있는 개라고 제때에 누가 먹을 걸 챙겨 주겠어요? 그러니 굶어야지. 게다가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으니 사립문 밖으로만 도네요? 아이구, 비까지 추근추근 내리면 쫓딱 맞고 길거리를 헤매는 불쌍한 신세가 되지 별수 있어요.”

“아니 주모!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 초상집 개가 나 같단 말여?”

“말이 그렇다 그거지. 왜 내가 봉사님을 거기에 비하겠소? 처지가 그렇다 그거지. 봉사님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사실 수 있겠소? 날마다 조석으로 밥을 누가 지어 주며 입성 더러워졌다고 누가 있어 빨래해 주며 그보다 감기 고열에 몸살이라도 나서 누워 있어 보쇼. 얼마나 외롭고 서럽겠소? 곁에 아무도 없으니 아파 누워 있다가 죽어도 모르지요. 봉사님이 맹인이 아니고 함께 사는 মানুষ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혼자 몸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네요.”

“그러니 새 মানুষ을 얻어라?”

“바루 그거지요. 봉사님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남은 여생은 그래도 남 사는 것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심봉사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내 말이 틀렸어요?”

“말인바 옳은 말이지.”

“봉사님, 봉사님은 아직도 그 과수택을 못 잊고 있지라?”

“그런 사기꾼을 못 잊다니? 말이나 되는 소릴 하쇼.”

심봉사가 화를 뱃다.

“그 돈 가지고 튀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요. 봉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의지했는데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왜 안 나타나나?”

“그래서 말인데요. 잘하면 그 과수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 찾아? 찾는다고?”

심봉사는 한편으로는 분노를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다는 애정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구례 어디에 있는 것 같애요. 구례라면 이웃이니 날 잡아서 나하구 함께 가서 찾아보십시다.”

“흐흠, 꼭 잡아 내고 내 돈 찾아야 하네.”

뺨덕이네가 주막을 하루 쉬고 구례를 가자고 나선 것은 며칠 후였다. 뺨덕이네는 가발로 된 트레머리를 올리고 옥색 저고리에 감사 치마를 입고 자주색 허리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맨 채 잔뜩 멧을 부리고 심봉사의 지팡이 끝을 잡은 채 구례 땅으로 향했다.

구례 땅에 당도해서 과수택이 있었다는 주막을 물어 물어 찾아가 보

았지만 허사였다. 잠시 두 달 정도만 그 주막에 있었을 뿐 그 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주모는 심봉사에게 주막에서 기다리라 했다.

“여기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과수택이 가 있을 만한 주막들을 다 찾아볼 테니까요.”

과수택이 가 있다면 다른 주막일 테니 구레 고을 안의 주막을 다 찾아다니며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네.”

“지루하더라도 기다리세요.”

팽덕이네는 심봉사를 앉혀 두고 서둘러 나갔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데도 나갔던 팽덕이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술잔만 비워 내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을 때 그녀가 돌아왔다.

“죄송해요. 허탕 쳤네요. 종적이 묘연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구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심봉사는 낙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초저녁이 되었어요. 여기 주막집 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가기로 해요.”

“내일 새벽?”

심봉사가 놀랐다.

“밤길을 내가 어떻게 봉사님을 인도하고 간단 말이요?”

마침내 심봉사도 어쩔 수 없는지 그러자 했다.

“이 주막에 방은 있을까?”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주무시면 되겠어요.”

팽덕이네는 빈 방을 얻어 술상을 봐 오게 했다.

“자네는 어디서 자지? 빈 방이 하나면?”

“제 걱정은 마시고 술이나 한 잔 주시오. 잠 오면 이 술집 주모 방에 가서 자도 되겠.”

심봉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술잔을 채웠다. 연거푸 서너 잔을 마신 심봉사가 약간 혀 꼬부라진 소리로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거 너무 마시는 거 아닐까? 취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봉사님이나 나나 기다리는 식구 하나 없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곳인데 뭘 그리 걱정하시우? 오늘 저녁만 좀 취해 봅시다.”

“그러지. 자빠진 김에 쉬어 간다고 마셔 보세.”

두 사람은 권커니 잣거나 술잔을 주고받았다.

“봉사님이 일찍 취하시는구면, 심들면 나한테 기대시우. 그렇지요.”

“팽파! 한 잔만 더 마시겠네.”

심봉사는 어깨동무를 하고 흐뭇한 표정이 되었다.

“자네 품은 정말 푸근하고 좋구면.”

“과수택하고 자면서 그런 소리 하셨지요?”

“에헤이, 자다니! 따약, 손목 한 번 잡아 본 것밖에 없다네. 이 이런 기분은 자네가 처음이여. 마누라 죽고.”

“취하셨구면, 자, 자리 봐드릴 테니 주무세요.”

팽덕이네는 능숙하게 술상을 윗목에 밀어 놓고 이부자리를 깔았다.

“자아, 누우세요.”

팽덕이네가 심봉사의 망건도 벗겨 주고 버선도 벗겨 준 뒤에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심봉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나 혼자 자란 말인가?”

“아이구 망측혀라. 그럼 남녀가 유별헌디 봉사님 혼자 자지 어떤 여자가 함께 잔다요? 딴 생각일랑 마시고 얌전하게 잘 주무시우.”

“아 알겠네.”

심봉사는 잡았던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런 뒤에 달그락거리며 술상 치우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는 기억하지 못했다.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술도 깨고 잠도 깬 심봉사가 일어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전신이 허전한 것 같아 심봉사는 누운 채 자신의 가슴패기부터 더듬었다. 아무 것도 걸리는 게 없었다.

“아니, 히! 이게 웬일이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온몸은 다 벗은 채 누워 있던 것이다. 망건과 버선만 벗고 다 입은 채로 잔 것이 분명한데 언제, 왜 옷들을 다 벗었을까. 게다가 자기 옆에 누군가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심봉사가 손을 뻗어 만져 보았다.

“허허, 맏소사! 이견.”

분명 여자의 몸뚱이였다. 한테 여자 또한 벗은 몸이었다.

“다 당신은 누구요?”

심봉사가 기어드는 소리로 물었다.

“으흐훅!”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다. 울고 있었다. 심봉사는 그 여자가 팽덕이네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아니 자넨 팽덕이네 아닌가? 내 옆에서 잔 건 뭐이고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뭐가?”

“.....”

울음소리만 더 커지고 있었다.

“뭘 어쨌는데 우는 거여? 앵?”

심봉사가 역정을 냈다.

그러자 팽덕이네가 역시 화를 내며 대꾸했다.

“뭘 잘했다고 큰소리쳐요?”

심봉사는 갑자기 달리진 그녀의 태도에 아연실색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지?”

“취하셨으면 그냥 잠이나 잘 잘 것이지.....”

“왜 그러냐? 대체 무슨 소리야?”

심봉사가 답답해서 되물었다.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애초 믿은 내가 바보지.”

팽덕이네는 더 서럽게 울었다. 심봉사는 더 애가 달았다.

“내가 실수라도 했단 말인가? 응? 했다면 무슨 실수여?”

“술 취한 봉사가 무슨 힘이 그렇게 쎄요? 나가지도 못하게 꼭 잡아 놓았으니 난 팔뚝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의몽 떨지 말고 헛소리는 하지 말어요. 당신허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심봉사가 신음소리같이 뇌까렸다. 봉사님에서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었던 것이다. 그 뒤부터 땡덕이네는 입을 아예 닫아 버렸다.

“아침도 먹었으니 집으로 떠나세.”

심봉사가 눈치를 보며 말하자 그녀는 응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길 나서는 심봉사의 지팡이를 잡아 주지도 않고 앞서서 걸어 나갔다. 불안해진 심봉사는 부지런하게 지팡이를 두들기며 뒤따라갔다.

이 일이 있고부터 심봉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땡덕이네 손에 잡히게 되었다. 술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처럼 그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심봉사는 전혀 기억에도 없는 일이라 수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수의 모든 책임을 심봉사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런 땡덕이네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심봉사는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마침내 그녀는 살림을 합치겠다고 나섰다.

“합치다니?”

“역시 봉사님한테는 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님의 눈이 되어드릴 테니 여생을 함께해요.”

그렇게 되어 땡덕이네는 주모를 그만두고 심봉사의 집에 아예 들어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다. 땡덕이네는 동네사람들 시선쯤은 아랑곳 없이 제 마음대로 휘젓고 살았다. 쓰지 않고 먹지 않고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가난했던 집 실림 늘려 나간 심봉사의 죽은 아내와는 달리 그녀가 벌고 모아 두었던 돈과 재물은 땡덕이네가 다 탕진하기 시작했다.

쌀 퍼 주고 고기 사 먹고 보리쌀 퍼 주고 떡 사 먹고 벼섬 팔아서 술

사 먹고 콩 팔아서 담배 사 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다 팔아 물 쓰듯이 써 버렸다. 심봉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을 못 보니 무슨 짓을 앞전 뒷전에서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심봉사도 몇 달 뒤엔 눈치를 채고 자루에 쌀 퍼 담아 가지고 나가려던 현장을 잡고 야단을 쳤다.

“왜 그렇게 쌀이 자꾸 구는가 했더니 바로 네년 짓이었구나?”

그러자 땡덕이네는 짹짹 빌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건구역질을 계속 해 대는 것이었다.

“꺾어! 꺾어!”

야단치던 심봉사가 놀라서 황급히 땡덕이네 손을 찾아 잡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야? 앵?”

땡덕이네는 심봉사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뒷방 문을 열고 뒷마루로 나가며 토했다. 잠시 후에야 긴 숨을 몰아쉬며 진정이 되었다는 듯이 안방으로 돌아왔다.

“급체라도 한 거야? 이 의원을 부를까?”

“됐어요 이 병은 나밖에 모르는 병이요.”

“무슨 병인데?”

“음식만 보면 토할 것처럼 구역질이 나요. 그래도 짐작이 안 가요?”

“건구역질?”

“나 애 가졌다고요. 어찌자고 그렇게 무심하요?”

땡덕이네가 심봉사를 원망했다. 심봉사도 그제서야 뭔가 짙힌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애 가졌는가?”

“그래요! 애 가진 게 틀림없는 것 같소. 그래선지 온갖 것이 다 땡겨서 옛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 것이었소. 허지만 당신 같은 노랭이가 용돈 두둑이 쥐야지? 돈은 없고 어찌겠소? 곡식이라도 팔아 사 먹어야지.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다 주지는 못할지언정 곡식 좀 축냈다고 눈에다가 쌍심지를 키고 나무라니 나 섭섭해서 죽고 싶소.”

“늦발에 자식을 얻게 되었다고? 이 무슨 경사인가?”

심봉사는 뿔 듯이 기뻐했다.

“삼시랑님, 고맙습니다. 하나 있던 우리 딸 심청이를 데려가시어 소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죽고만 싶었는데 그걸 불쌍히 아시고 이번에는 또 자식 하나를 점지해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하나만 안겨 주옵소서. 땡파! 미안허이. 그래도 자네밖에 없네.”

거짓으로 애까지 가졌다고 둘러대는 여인이 땡덕이네였다. 마침내 그녀는 도화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심봉사를 조르기 시작했다.

“수십 년 살아온 내 집을 팔고 이사를 하자고? 왜 그래야 하는데?”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동네사람 모두가 나만 보면 속덕거리고 화류계 퇴물이라느니 술집 작부라느니 손가락질하고 날 상대를 안 해 준단 말이요. 기가 막혀서! 날 따돌리니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언제나 외톨이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감시다.”

“누구든지 맘대로 어디든 가고 올 수 있는데 임자는 왜 못 간다는 거여? 사람 시켜서 못 오게 지키나?”

“날 보면 소 닭 보드끼 허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허고 따돌리니 허는 말 아니요?”

날마다 졸라대니 심봉사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사 문제는 땡덕이네한테 맡겨 버렸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남원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이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땡덕이네가 들볶은 것은 물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였다.

지금까지 땡덕이네는 제 맘대로 온갖 걸 뒷손질로 다 빼내고 있는데 이웃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타지로 떠나 살아야 하고 그래야 제 맘대로 심봉사 재물을 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전국 맹인잔치를 열라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거리에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곡성 장날이었다. 방불장수들이 제 물건 사라고 외치며 지나가고 싸전, 생물(생선)전, 난전이 열리고 새벽부터 해장을 찾는 손님들로 국밥집이 바쁘다. 오정 때가 되어 가자 인근 근동에서 장보러 오는 촌민들로 넘쳐났다.

“비키시오! 비켜!”

그때 흰옷 입은 인파를 헤치며 병거지를 쓰고 방망이를 흔들며 포졸 두 명이 앞장서고 뒤에는 두 명의 관원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포졸이 날뛰는 걸 봉께 도적놈이 나왔나 보네?”

그걸 바라보는 행인 하나가 친구에게 말했다.

“아닌 것 같은디? 방망 붙이러 왔구먼.”

“무슨 방문이지?”

관원 두 사람이 장터 네거리 제일 잘 보이는 벽에 포고 방문을 붙이

고 있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다. 포고문이 붙었다.

“뭐라고 써어 있는 거여?”

“무식한 놈, 그러니 내가 뭐라 했냐? 배워서 남 주느냐고 했잖애? 너처럼 촌놈들 무식하다고 진문眞文(한자)이 아니고 언문諺文(한글)으로 써 놔구먼?”

“그놈 말도 많네. 그렇게 뭐라 했나남께.”

“읽어 보마. 예에 전국 맹인잔치를 열게 되었노라. 금번 국혼 가례를 온 백성들의 경축 속에 치른 것을 기념하고 병들고 악한 백성들을 위로 해 주기 위하여 우선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져 소경들을 불러 모아 한양 대궐 밖에서 맹인잔치를 베풀고자 한다. 맹인들은 자기 사는 고을 현청에 신청하고 현청관아의 지시를 따라 상경하여 잔치에 참여하라. 관아에서는 여비도 내주고 가는 데 편의도 보아 줄 것이다.”

“장님은 공짜로 대궐에 불러서 잔치까지 혀 준다는 거였구먼? 허면 언제까지 오라는 건디?”

“이 달 스무닷새부터 내 달 스무닷새까지 한 달 동안 잔치를 하니까 그기간 내에만 가면 된다는구먼?”

“어허, 장님 살판났네.”

“아무튼 우리 임금님은 성군聖君이시다. 새 왕비 얻으니 혼자만 행복을 누리는데 같아 마음에 걸려 병든 백성들부터 챙기시다니.”

그때 포졸 하나가 소리쳤다.

“방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맹인이 있으면 즉시 잔치 내용을 알려 주고 현청관아로 신청하라 전해 주기 바란다.”

포고문이 나간 지 하루 만에 곡성 안의 맹인들이 앞을 다투어 잔치

참에 신청을 하느라 북적거렸다. 그런데 맨 먼저 신청하러 와야 할 심청 아비, 심학규 맹인이 보이지 않았다.

“청이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도대체 알고나 있을까?”

동네 우물가에 모인 부인네들이 한마디씩 했다.

“그 불여시 같은 팽덕이네가 데리고 어디론지 잠적만 안 했어도 젤 먼저 신청하러 갔을 텐데.”

“어디 숨어 있든지 거기서도 잔치 소식은 알려지겠지.”

한편 그 달 스무 날부터는 전국에서 삼삼오오 맹인들이 한양 대궐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잔치마당은 대궐 동쪽에 있는 영추문迎秋門 문 안 넓은 잔디밭 광장에서 열렸다.

그곳에 누대를 설치하고 임금을 비롯한 왕비가 참관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누대 밑에는 삼현육각三絃六角의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삼십여 명의 자리가 있고 그 앞에는 한꺼번에 백여 명 맹인들이 잔치음식을 먹으며 즐기게 되어 있었다.

이윽고 맹인잔치 첫 날이 되었다. 임금은 조회를 하고 나자 왕비전에 들러서 잔치 첫날이니 영추문에 나가자 했다. 임금 내외 행차가 잔치마당에 당도했다. 악사들이 일제히 아악을 연주했다. 임금과 백성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는 여민락輿民樂이었다.

“상감마마 행차시오!”

벽제 소리에 첫 날 참여한 백이십 명 맹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부복했다. 영의정 이하 각부 대신들도 예를 갖추었다.

“일어나라.”

맹인들이 모두 일어나 명석 위에 앉았다.

“오늘 맹인잔치 첫 날 전국에서 올라온 맹인 122명의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면 큰소리로 대답하라!”

승지가 명부를 들고 참석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나갔다.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은 맹인 중에 심화규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이름이 불리는 동안 왕비인 심청이는 긴장한 채 아버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없었다.

“중전, 아버지가 아직 못 오신 모양이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요. 기간 내에는 꼭 올라오실 거요.”

“그렇게 빌어야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선포했다.

“맹인잔치를 연 것은 병자와 신체장애자 등 평소 주변에서 소외되고 불우하게 지내던 약자들을 불러 그들도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다는 걸 보여 주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잔치를 연 것이다. 첫날에 많은 맹인들이 와 주니 과인 기쁘기 이를 데 없노라.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잔치를 계속할 것이다.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 바라노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일제히 외치며 임금을 칭송했다. 이튿날이 되자 둘째 날 잔치가 열렸는데 맹인 참석자 명단을 동부승지가 중궁전으로 가지고 와서 중전인 심청 앞에 내놓았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심청이 급히 명단을 확인했다. 아버지 이름은 없었다.

“중전마마, 찾으시는 성함이라도 있으십니까?”

“오시는 이들 중에 심자 학자 규자 쓰시는 심화규란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 등재되는지 지켜다가 바로 알려 주기 바라요.”

“예, 마마.”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심화규란 이름은 방명록에 오르지 않아 심청이를 슬프게 만들었다.

“아프신 거 아닌가?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 다쳐서 누워 계신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심한 병이 나서 누워 있다면 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곡성 도화동에 사람을 보내어 당장 알아보고 싶어도 이미 아버지는 뺨덕이네와 함께 이사가 버려서 지금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하잖는가.

“너무 상심 마시오. 이제 보름이 지났소.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소. 꼭 오시겠지.”

임금이 위로했다.

한편, 남원 윗골에 숨어 살듯 살고 있던 뺨덕이네는 아침을 먹자 심봉사더러는 집에 있으라 하고 저는 볼일이 있어 나갔다 오겠다며 저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주모를 찾아 삼전리 주막이란 곳에 마실을 갔다.

“어서 와. 신세 퍼져서인지 뺨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졌어. 열 살은 젊어진 것 같다구.”

“그려? 소식 없던가?”

“누구? 손씨?”



“어제 자네 집으로 올 거라고 약조하고 갔거든.”

“아직 안 왔어. 그 손가가 그렇게 좋아? 허기사 사지 멀쩡하고 코크고 인물 흰하고 자네보다 다섯 살이 어리니 눈면 심봉사보다야 좋고도 남겠지.”

“흐음, 다 좋은데 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일도 싫어하고 화투만 잡으면 세월 가는 줄 모르니.”

“노름도 아편하고 갈다잖아? 한번 빠지면?”

“술이나 한 잔 쥐 봐.”

“그러지. 그보다 말여.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뭘 소문?”

“한양 대궐에서 전국 맹인잔치를 하고 있다는고만? 사방팔방 봉사들이 한양 가느라 난리도 아니라던데?”

“하다하다 이젠 눈면 봉사 불러 잔치한다고? 돈 들어서 그런 다를 왜가? 눈면 봉사가 뭘 볼 게 있다고?”

“모르고 있고만? 관아에 신청하면 관아에서 갔다 오는 여비 일체를 다 내준다던디?”

“여비 일체를?”

술을 마시려다 뺨덕이네가 잔을 놓았다. 그녀의 눈이 빛을 발했다. 술을 마시다 말고 그녀는 남원부 관아를 찾아갔다.

“우리 서방이 봉사인데 맹인잔치에 가도 되나 해서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을 말해 주면 됩니다.”

“왔다 갔다 여비 일체는 준다면서요? 얼마나 주시는지요?”

“오십 냡을 드립니다.”

“오 오십 냡이요?”

액수가 너무 많았던지 뺨덕이네가 놀랐다.

“아직 잔치 다 끝날라면 보름 남았습니다. 짝수 날에 신청한 맹인들이 모여 여기에서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님께 한 집에 백 냡을 주는 거구면요.”

“왜 곱으로 줘요?”

“봉사잖아요? 어떻게 혼자 가요? 옆에서 보호자가 잡고 따라가야지요? 그러니 보호자도 오십 냡을 주는 거 아닌가요?”

“허허허, 그건 염려 마세요. 관원 하나가 보호자로 인솔하고 갔다가 오니까요.”

“그럼 우리는 안 갈라요. 실례했네요.”

뺨덕이네는 뺨, 하며 돌아서서 나왔다. 뒤편쪽에 관원의 목소리가 쫓겼다.

“안 가시면 아마 벌금 낼걸요? 의무적으루다가 무조건 장님은 다 잔치에 참석시키란 나라의 명이 내려왔으니까요.”

“나라의 명령이라고요? 안 간다는 건 아니고 널 아침에 다시 오게요.”

집으로 돌아온 뺨덕이네는 심봉사에게 전국 맹인잔치가 대궐에서 있는데 맹인은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도 가자고 했다.

“그럼 다녀옵시다. 임자 대궐 구경도 좀 하구.”

“그러는데 여비를 내야 한대요. 나도 모시고 가야 하니 두 사람이잖아요? 한 명당 오십 냡이라니 백 냡을 내야 된대요. 양님이네한테 얘기해

서 옛날부터 청이 어미가 맡겨 둔 돈 백냥 찾아오세요.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

행덕이네는 그런 식으로 심봉사네가 맡겨 두었거나 장리 빚을 준 것까지 다 찾아다 쓰곤 해서 실제로는 빈털터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양님이네 집에 다녀온 심봉사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성질을 부렸다.

“그냥 오면 어떡하라는 거지요?”

“당장 현금이 없대네. 며칠만 기다리면 해 준다 했으니 기다려 보세.”

“잔치 끝날라던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 안에 가야 한다구요. 한양 서울이 이웃동네도 아니고 곡성에서 걸어가자면 닳새, 옛새 걸리는 거예요. 어붙어붙하다가는 종치고 닭 울어요. 기간 안에 못 갔다? 그러면 그 백냥, 벌금으로 바쳐야 할걸요?”

어쨌거나 그 백냥하고 다녀오는 동안 써야 할 용돈 오십 냥이 더 필요하다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심봉사는 일주일 만에 겨우 마련해 왔다.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인제 떠나세.”

심봉사가 달래면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침내 짝수 날에 맞춰 한 양으로 다른 맹인들과 함께 떠나게 된 것은 잔치 마감 열흘 전이었다. 어쨌면 마지막 행보라고 관원이 말했다.

“서둘러 가면 나흘이나 닳새 전에는 당도할 겁니다요.”

일행은 네 명이였다. 맹인 모두 혼자 가는데 심봉사만 부인이라 하는 여인이 따라가고 있었다. 행덕이네였다. 그녀는 심봉사가 마련해 온 백오십 냥을 챙긴 채 온갖 멧을 다 부리며 분단장을 요란하게 하고 앞장

서 걸었다. 관아에서 여비조로 준 오십 냥은 심봉사에게 직접 주는 바람에 제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그걸 내놓으라고 심통을 부렸다.

“이건 비상금으로 생각하게. 자네한테 다 맡기면 언제 다 녹여 버릴지 모르니까.”

심봉사는 끝내 주지 않았다. 터덜거리며 한양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심봉사는 그 화려한 행덕이네와는 대조적으로 땀국에 전 저고리바지에 짧은 중치막을 걸치고 피나리붓짐을 짊어진 채 따라가고 있었다.

장님들이라 빨리 걷지를 못하고 있어 느리기만 했다. 전주, 삼례를 거쳐 충청도 강경, 공주까지 오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

“여기서 한양까지는 맹인들 걸음으로 3일은 걸린다고 치면 잔치 마감 이삼 일 전에는 당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가는 관원의 계산이었다. 그런데 가면서 곤란한 일은 날이 저물어 객주에 묵고 가야만 할 때였다. 맹인 네 명에 관원까지 남자이니 큰방 한 칸이면 남자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행덕이네는 여자이니 판 곳에 가서 자겠다고 우기기 때문이었다.

“여긴 방도 없으니 다른 객주에 가 자고 오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행덕이네가 가까운 곳, 먼 곳 가리지 않고 일행과 떨어져서 자려고 하는 이유는 판 데 있었다. 그녀가 일행이 묵는 객주를 나오자 어둠 속에서 웬 사내 하나가 그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묵을 방은 알아봤어?”

그녀의 물음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객주야. 그건 그렇구 돈은 빼냈겠지?”

“틈을 내주지 않아. 못 빼냈어. 한양 당도하기 전까지는 빈틈이 생기겠지.”

“몰래몰래 뒤따라오자니 심심 짜증만 나고 죽겠어.”

사내는 팽덕이네가 숨겨 놓은 셋서방 손가였다.

“그래도 이렇게 밤이면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누잖아?”

지금까지 심봉사한테 빼돌린 재물과 돈은 모두 이 손가라는 작자에 게 흘러들어 갔다.

같은 시각에 왕비인 심청은 중궁전에 돌아와 있었다. 아침나절에는 영추문 맹인잔치 현장에 나갔었다. 상경하여 잔치에 참여한 맹인의 이름을 어김없이 조사해 보았지만 어디에도 심학규란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의에 빠지게 했다.

‘아, 잔치를 시작한 지도 오늘로써 벌써 25일이 되었구나. 이제 끝나는 날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는 오셔야 할 텐데 대체 왜 못 오시는 걸까?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제발 어서 오세요.’

심청 왕후는 자기가 살아 있으니 하루속히 잔치에 올라오시라는 편지를 직접 써서 심부름꾼을 시켜 꼭성으로 보내려 했지만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편지는 쓰다가 만 상태였다. 심청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다가 휘영청 밝은 달이 뜬 침전 밖 난간으로 나가 사설을 슬프게 읊조렸다.

추월이 만정하여 산호주렴에 비쳐들 때

청천의 외기러기는 달빛에 높이 떠서 푸르르르 킁킁  
날아가는 저 기러기야 소중량 북해상에 편지 전든 기러기냐  
도화동에 가져들랑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자 전하여라.  
한 자 쓰고 눈물짓고 두 자 쓰고 한숨 쉬니 눈물이 떨어져서  
글자들이 범벅되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심청은 상궁을 불러 외출 채비를 명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마마.”

“탑골에 승방이 있단 말을 들었다. 그곳으로 가겠다.”

그곳에는 여승들이 수도하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다. 도착한 중전 심청은 관음상이 안치되어 있는 법당에 들어가 꿇어앉았다.

“간곡하게 비읍니다. 관음보살님, 도대체 저희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종적조차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잔치마당에 안 오시는 것은 분명 신상에 큰 문제가 있어 못 오시는 것으로 보읍니다. 보살님, 저희 아버지 무사하게 해 주시고 꼭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불효 심청 이렇게 죽어서 다시 환생한 것도 오직 아버지 눈을 뜨시는 것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였나이다. 지금은 눈을 뜨시는 것보다 만나 뵙는 것이 시급합니다.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 소원 들어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심청은 남은 기간 동안 금식하며 관음보살께 기도를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원을 떠난 맹인 일행은 공주에서 천안 쪽으로 가지 않고 청원을 거쳐 보은, 충주로 향했다. 그 길이 더 가깝다는 것이었다. 월악산 긴 계곡 속으로 들어오자니 추석이 막 지났는데도 한낮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땀이 흘러 바짓가랑이가 휘감길 지경이었다.

“잠시 쉬어 갑시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 싶으신 분은 여기 길가에 개천이 있으니 윗도리만 벗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관원의 말에 맹인들이 환성을 올렸다.

“여자 분은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실까요?”

“알겠어요.”

팽덕이네는 선선히 물러나 뒤편에 있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장님들이 윗도리를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채 개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팽덕이네가 엿보고 있자니 심봉사도 윗옷을 벗고 짚신도 벗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며 연신 시원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한동안 장님들이 목욕하는 것을 엿보던 팽덕이네가 먹잇감을 본 여우처럼 몸을 최대한 낮추고 풀숲 속으로 기어갔다. 먹잇감은 심봉사가 벗어 놓은 윗저고리였다. 팽덕이네가 엿드린 채 그 저고리와 그 옆에 벗어 둔 피나리봇짐을 잡고 슬슬 뒤편으로 끌어냈다. 완전히 끌려 나오자 그녀는 옷과 봇짐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큰 바위 뒤로 도망쳤다.

“여기야 여기!”

역시 여러 개의 바위가 서 있는 뒤편에 숨어 있던 사내가 손을 흔들었다. 손가였다. 팽덕이네가 가쁜 숨을 내쉬며 옷가지와 짐보따리를 사내에게 넘겼다. 사내가 그걸 받아 들고 살살이 뒤졌다. 피나리봇짐 구석

에 팽덕이네가 만들어 준 비상 주머니가 있었는데 돈 오십 냥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자아, 어서 가요.”

“옷은 던져 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사내의 말에 그녀는 사내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사라지라 했다.

“벌거벗을 텐데?”

“옷하구 피나리봇짐을 내가 다시 들고 냇가로 가라고? 옷을 빼들리고 돈을 던 사람이 나라고 알려 주란 말야? 그냥 여기다 내버리고 어서 튀라고! 과천에 가면 지네고개 주막이 있어. 거기서 기다리면 돼. 어서 가!”

팽덕이네는 다시 개천가로 오고 사내는 근처에 옷과 짐을 버리고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개천가에서는 난리판이 벌어졌다. 다른 사람 옷은 다 있는데 심봉사 옷하고 짐만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심봉사 것만 없어지냐구.”

다른 맹인들은 젖은 바지를 짜서 다시 입고 윗옷까지 찾아 입고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데 심봉사만 개천가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심봉사는 물에 젖은 바지만 입고 상체는 벗은 채 떨고 있었다.

“내 저고리하고 내 짐이 없어졌어. 이보게! 뺨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팽덕이네를 찾았다. 그때서야 그녀가 뛰어왔다.

“아니 옷하고 짐이 없어졌다고요? 내가 찾아볼게요.”

팽덕이네는 근처 모든 곳을 다 뒤지고 다니더니 정말 없어졌다며 인솔자인 관원에게 따졌다.

“어떡할 거요? 우리 집 양반만 옷하고 짐이 없어졌는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세상에 가져갈 게 없어서 벗어 놓은 저 고리를 가져가지요? 그보다 짐보따리 속에는 뭐가 있었지요?”

“돈 백 냥이 들어 있었지요. 용돈 한다구 해서 내가 챙겨 준 거니까. 어떡하실 거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 변상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시간이 없어 빨리 떠나야 하는데 누가 짐 속에 남아 있는 저고리하고.”

“중치막 짧은 두루마기하고.”

팽덕이네가 끼워 넣자 인솔자가 둘러보며 물었다.

“예비로 가져온 것 없나요?”

“하룻밤 자면 되잖아 내려온다 해서 모두 다 입은 옷만 걸치고 왔을 텐데 무겁게 뭘 넣어가지고 와?”

장님들이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난감해진 것은 인솔자였다.

“이거 큰일이네. 한시가 급한데 여기서 옷 때문에 꾸물럭거리면 잔치 끝난 뒤에나 당도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느 장님이 말했다.

“뭐가 걱정이야? 마누라 따라온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디? 마누라 헌티 맡기고 우린 그냥 어서 떠납시다.”

그렇게 되자 늦으면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되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다고 심봉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여기서 가까운 읍내는 충주입니다. 이십 리쯤 되지요. 심봉사님이 저기 양지바른 곳에 앉아 기다리시면 부인께서는 우리와 함께 충주에

가셔서 제가 옷을 구해 드릴 테니 바로 가져다 입히시고 다시 모시고 충주관아에 오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맹인들이 있을 테니 합류해서 상경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심봉사가 뭐라고 더 항의하기 전에 인솔자는 양 때를 몰고 가듯 맹인들을 앞세우고 급히 떠나 버렸다.

“빨리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맹인 일행에 섞여서 떠나고 있던 팽덕이네가 돌아다보며 외친 말이였다. 하지만 해가 누엣누엣 지고 월악산 산그림자가 어둠에 덮여 오는 데도 옷을 빌리러 충주관아에 간 팽덕이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해가 지자 으슬으슬 추위가 맨살에 파고들었다. 심봉사는 바위 밑에 앉아서 연달아 재채기만 쏟아 냈다.

“빨리 오지 왜 못 오는 걸까?”

산골짜기라 지나다니는 행인도 없고 나무꾼도 없는 듯했다.

“누구 없으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심봉사는 도와 달라고 외쳤다. 팽덕이네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돈 챙기고 날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닐까?”

능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심봉사가 피를 토하듯 외쳤다.

“아이구, 내가 당했구나. 과수택한테 당하고 또 팽파한테 당하다니. 이 천하에 의리 없고 사정없는 팽파! 요년아. 당초에 니가 날 버릴 테면 있던 곳에서 마다하지 수백 리 타향에 와서 날 버리다니 천하에 못된

늙은 여시 같은 년. 땡덕! 땡덕! 땡파! 천하에 독한 년아. 니가 그러구도 잘살 것 같으나? 벼락을 맞아 죽을 거다. 에이, 그런 년은 당장 잊어버려 자. 암, 현철하신 우리 마누라도 잊고 살고 출천대효 우리 심청이와 생이별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았더냐? 아이구 그러나저러나 이게 무슨 꼴이냐? 흘랑 벗었으니 길복판에 나갈 수도 없고. 아이고, 봉사 살려 주시오!”

땅을 치고 우는데 한참 후에야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아니 이 양반 윗도리를 흘랑 벗었잖아? 어찌다이 꼴이 됐소?”

“고맙습니다. 도와주시오. 강도를 만나 털리고 옷도 벗겨 갔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올시다.”

“저런 뉘저서도 부자가 못 될 놈 보았나? 그래 털 사람이 없어서 장님이여? 안 되겠소.”

지나던 사람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그걸 쫓던 보자기를 풀어 심봉사 상체를 가려 주었다.

“추우니까 이저라도 덮고 따라오시오. 난 요 근처 수원말이란 곳에 사는 사람시오. 우리 집으로 일단 갑시다.”

심봉사는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이좌수라 하는 그는 자초지종 심봉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자 동정을 하면서 일단 자기 집에 하룻밤 묵고 가라 했다.

“얘기를 들어 보니 딱도 하시오. 이렇게 합시다. 내가 현웃 한 벌을 줄 테니 그걸 입고 가시면 되겠소.”

“고맙습니다. 헌데 여기에서 맹인잔치가 벌어진 한양성 왕궁까지 나 혼자 간다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를 않습시다요. 일행은 늦었다며 날 놔

두고 이미 먼저 떠나 버렸거든요.”

“내가 내일 충주 읍내에 볼일이 있어 나가야 하니까 나와 함께 충주 관아에 갑시다. 아마 거기서 모여 떠나는 맹인 일행도 있을지 모르니까. 있으면 함께 동행하면 될 거 아니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좌수의 집에서 하룻밤 묵은 심봉사는 이튿날 아침 그와 함께 충주 읍내로 나가게 되었다.

“관아부터 들릅시다.”

충주 목사<sup>牧使</sup> 관아에 들어간 이좌수가 맹인잔치 도움 주는 부서로 찾아가 심봉사의 처지를 대신 설명해 주었다.

“허, 안타깝게 되었군요. 사정은 참 딱하게 되었소만.”

“여기서는 한양에 뉘시고 가는 게 어렵겠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엇그제 충주 지역 마지막 맹인단 열 명이 떠났기 때문이요. 더 이상 맹인이 안 계시니 다시 모여 떠날 행보는 없는 겁니다.”

“허 그럼 이 양반은 못 가고 마는 걸까요?”

“그런 셈이지요.”

“어떻게 좀 해 봐 주시오.”

이좌수가 자기 일도 아닌데 통사정했다.

“헤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좌수 어른! 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잔치 음식 별거 있겠소? 술 한 잔 얻어먹으려 대궐까지 간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 우습다 싶습시다요. 난 다시 내 고향 곡성으로 돌아가면 되니 너무 쾌념치 마십시오. 은공은 잊지 않겠습니다.”

심봉사는 머리 숙여 감사해했다. 그때 또 다른 관원 하나가 옆에서

이들의 얘기를 듣더니 담당자에게 혼수했다.

“듣고 보니 봉사 양반 처지가 딱하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마침 내가 지금 목개나루로 징수한 세금 받으러 나가는데 봉사 양반 데리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웁아. 배로 가면 되겠구먼. 한양 마포나루로 가는 장삿배는 많으니 까 자네가 가서 선주나 배의 도사공에게 태워다 주라고 부탁해 보겠대 그말 아닌가?”

“바로 그걸세.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야. 봉사양반, 나하구 갑시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소.”

의외에도 심봉사는 이좌수와 헤어져서 그 관원을 따라 충주 인근에 있는 목개나루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 어디 보자 내 딸, 눈을 뜬 심봉사

목개나루는 남한강 줄기에서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나루터였다. 당 시만 해도 나라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 이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대부분 곡식이었다. 곡식 섬을 한양으로 옮기려면 소달구지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 길이 나쁜데다가 힘이 들어 운송시간이 길었다. 강물은 그 어려운 난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세미[穉]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한양까지 곧장 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한강 같은 큰 강이 운송을 맡고 있어 도중에 큰 나루터가 여러 곳이 있었다. 영월나루, 목개나루, 여주 이포나루, 한양 광나루, 강남 새팽이 나루, 노들나루, 마포 삼개나루 등이었다. 이 나루에는 세미를 저장하는 엄청나게 큰 세미창고가 들어서 있고 객주와 술집들이 흥청거리는 곳이기도 하여 유명했다.

그 관원은 거두어진 운송세금을 받아 내고 심봉사를 제법 큰 장삿배

선주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맹인은 전국 맹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한양 대궐에 가는 길ियो. 조정에서는 이웃에 맹인이 있는데도 맹인잔치에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지 않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고 지방관아에 명령서를 하달해 놓은 상태요. 그러니 이분을 배에 태우고 한양 마포나루까지만 모시고 가 주었으면 고맙겠소.”

“어느 분 부탁인데 거절하겠습니까? 모시고 가지요.”

심봉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충주에서도 수백 리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게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젠 배에 타고 앉아 그냥 간다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이제 잔치는 3일 후면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토록 기다리는 심봉사는 잔치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왕비인 중전은 애가 달아 탐골 승방 불전에 엎드려 금식을 한 채 관음보살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임금 또한 중전이 슬퍼하고 초조해하니 몹시 괴로워했다.

“여봐라, 승지!”

“예, 전하.”

“남쪽에서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모두 몇 개인고?”

“크게 두 군데이옵니다.”

“어디어디를 말하는가?”

“그 하나는 호남에서 올라오는 자들의 길입니다. 천안 수원을 지나 과천에 당도하여 남태령고개를 넘으면 노들나루이고 승례문(남대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문경새재를 넘어오거나 추풍령고개를 넘어오거나

하는 영남 쪽 사람들의 길목이지요. 이들은 강남의 말죽거리 양재를 지나거나 동작나루를 건너 승례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얘기한 지점에 영접사들을 배치하고 잔치에 오는 맹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심학규 어른이 오고 있는지 알아내어 호위, 인도 하도록 하라.”

“예.”

언제 어디에서 심봉사가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모셔 오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심봉사는 그 길로 오지 않고 목개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임금인들 꿈에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배가 강물을 헤치고 오기 때문에 빠르게 오는 건 좋은데 장삿배라 나루마다 들르는 것이 흠이었다. 상품을 내리고 또 신는 작업을 계속하며 운항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세월아 가거라였다. 청풍나루에 정박하더니 하역작업을 반나절이나 하고 나서 출발하여 다음에는 여주 이포나루를 들르는 것이었다.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뱃사람들은 주막에 몰려 나가 술판을 벌였다.

심봉사는 배를 지키는 선원 두 명과 함께 그들이 끓여 낸 찌개로 밥 한술 얻어먹고 선실 귀퉁이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그 하루가 지나가니 이제 잔치 끝나는 날은 이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탐골 승방에서 금식기도를 계속하던 심청 왕후는 탈진상태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다.

어의들이 달려 들어와 심 왕후를 겨우 소생시키고 미음을 들게 했다. 심 왕후가 깨어나면서 묻는 말이 아버지가 오셨느냐는 물음이었다.

“죄송하옵니다.”



“그럼 아직도 안 오셨단 말이나? 아아, 아버지.”

심 왕후가 다시 정신을 잃을 것처럼 경련을 일으켰다.

“중전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중전마마!”

그때 임금이 승방에 임어하셨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심청은 애써 정신을 가누며 자리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상감마마.”

“오, 중전. 이리다가 큰일 나겠소. 그냥 누워 계시오.”

“황송하옵니다. 아버님은 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전,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오. 이틀밖에가 아니라 이틀이나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이 관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오. 아버님은 오실 거요.”

임금은 이제 남은 이틀, 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이 승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라며 격려하고 환궁했다.

드디어 잔치 마감 하루 전날이 되었다. 심봉사가 탄 배는 여주 이포 나루에서 물건을 내리고 다른 것을 또 받아 쌓느라 시각을 지체하고 있었다.

심봉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끼며 선주에게 물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팔월 스무나흘이오.”

“뭘요? 스무나흘?”

심봉사가 불에 덴 듯이 놀랐다.

“왜 그렇게 놀랍니까?”

“대궐에서 하는 전국 맹인잔치 끝나는 날이 스무닷새라 하였소. 그럼 오늘이 끝나기 하루 전날이란 말 아니오?”

“장사일이 바빠서 그만 깜빡했지 뭐니까? 너무 염려 마시오. 내일 끝나기 전까지는 맹인잔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리다. 여기서 반나절이면 왕성에 당도할 수 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불안했다. 불안은 그뿐이 아니었다. 막상 왕성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도성을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대궐을 찾아갈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했던 것이다. 누가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요 앞도 못 보는 소경인데 혼자서 찾아가야 한다는 데 문제가 심각했다.

하루 전날까지 심청 왕후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봉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아 애간장을 태웠다.

드디어 잔치 마지막 날이 밝아 왔다. 해가 지면 끝나게 되어 있었다. 참여하는 장님의 숫자도 자꾸만 줄어 지금은 이삼십 명이 고작이었다.

“상감마마 행차시오!”

오전이 되자 임금과 심청 왕후가 중신들을 거느리고 누대의 자리에 임어하여 앉았다. 잔치 마지막 날을 빛내기 위해 누대 밑 공터에서는 축하 놀이마당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희들이 모란꽃송이를 흔들며 태평무를 추었다. 태평무가 끝나자 북춤꾼들이 달려 나와 북장단을 놓고 만년가(萬年歌)를 불러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천년이나 누리세  
만년이나 누리세  
앞으로 보면 만석궁  
뒤로 보면 천석궁  
해야 솟아라 달아 솟아라.  
조선팔도 금수강산에  
영원히 빛나라.  
천세, 천세, 천만세.  
길이길이 누리세.

잔치마당은 점점 흥겨워지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는가 싶더니 벌써 해 그림자가 길어졌다.

“어찌 되었느냐?”

임금이 초조한지 심봉사 상경 길목을 지키고 있던 영접사의 동정을 물었다.

“수시로 보고가 옵니다만 아직도 오신 흔적이 없다 하옵니다.”

“뭇 오시나 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무리하잖아요? 마마, 이제 환궁하시지요.”

심청 왕후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아버지 만나는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임금에게 환궁하자고 거듭 말했다.

“그래도 오실지 모르잖소? 아니 중전! 정신 차리시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심청 왕후가 현기증이 나는지 비틀거리다가 임

금의 부축을 받았다.

“중전, 괜찮소? 응?”

“네, 잠시 숨을 돌리면 괜찮아질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심봉사가 거지꼴을 하고 혼자 비틀거리며 승례문 앞에 도착했다. 심봉사를 본 포졸 두 명이 뛰어왔다.

“봉사님, 이름이 무엇이지요?”

포졸이 물었다.

“이름이고 뭐고 배고파 죽었으니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글쎄 이름만 알려 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마누라 없는 맹인은 마누라까지 짬매 줄 테니까 얼른 얘기하시오.”

“아따 그 실없이 온갖 걸 다 준다는구면. 나가 누구냐 하면?”

“해 떨어져요. 속히 말하시오.”

“나로 말할 작시면 저 전라도땅 곡성에 오곡말 도회촌에서 온 심봉사, 심학규란 맹인이오.”

포졸이 기다리고 있던 영접사에게 외쳐 보고했다.

“정언나리! 찾고 계신 심학규 맹인이 나타났습니다.”

승례문 담당 영접사가 놀라고 반가워하며 뛰어왔다.

“속히 입궐하시지요.”

“난 잔치 얻어먹으러 왔는데 입궐이라니요?”

“지금 맹인잔치 마당에서 중전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헤! 완전히 다 잔치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서둘러라. 여봐라, 이분을 어서 모셔라.”

그들은 심봉사를 들어 안듯이 하고 경북궁 광화문을 돌아 영추문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모든 절차가 다 끝나기 직전입니다요.”

잔치는 끝이 난 상태이고 마무리를 위해서 맹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악을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추문 안으로 내려놓자 심봉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몸을 떨었다.

“왜 이러시오?”

“내 죄는 내가 압니다요. 난 딸을 팔아먹은 중죄인이요. 날 처벌하려고 들어가자는 거 아니오?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건 잘 압니다요. 딸 팔아 먹으면 눈을 뜬다 했는데도 눈을 뜨기는커녕 아직도 그대로 장님이니 아이고 내 팔자도 기박하지…….”

“염려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심봉사 팔짱을 끼고 영접사 정언이 잔치마당으로 들어가며 들보가 찌렁 울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전라도 곡성땅 도화동에서 상경한 심학규 맹인 입장ियो!”

소란스럽던 잔치마당이 순간 조용해지고 악사들도 음악을 멈추었다. 누대에 앉아 있던 임금이 심청 왕후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오신 듯싶소.”

“네에, 아아 아버지가…….”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대를 내려갔다. 바로 눈앞까지 온 심봉사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주저앉았다.

“부축해 드려라.”

임금의 명에 내시들이 일으켜 세웠다.

“중전, 아버지 같지만 일단 확인은 해 봅시다. 이 맹인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도록 하라!”

그러자 죄송지가 심봉사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 소상하게 밝히려 명했다.

그러자 심봉사는 보이지도 않는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예, 소맹<sup>小盲</sup>이 아뢰리다. 아뢰고말고요.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살기는 전라도 땅 곡성 도화동이읍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달에 딸자식 심청이를 낳았는데 즈그 에미는 산후병으로 산후 이레 만에 죽어붙고 에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짓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질러내어 열다섯이 되얏는디 딸 이름은 심청이라 효행이 출천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근근이 살아갈 제 하루는 관음사 화주승이 절을 중창하는 데 시주가 필요하다며 공양미 삼백 석을 관음사 불전에 바치면 내가 눈을 떠 광명을 찾는다 하여 이 소리를 들은 우리 딸이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삼백 석을 받고 제 몸을 제물로 팔아 인당수에서 죽은 지가 이자 삼 년이 되었소. 자식 팔아먹고도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 이 죄인 중벌을 내려주소서.”(주: 이 대목부터는 전라도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에서 뽑아 이은 것임)

심봉사의 말을 들은 심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우르르 달려 나가 부친의 목을 끌어안고,

“아이고 아버지!”

하며 울부짖으니 심봉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되묻는다.

“날더러 아버지라니, 지금 아버지라 했소? 도대체 처자는 누구관대

날더러 아버지라 하는 거요? 나는 아들도 딸내미도 없소.”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그래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인당수 깊은 물에 제물로 던져져 죽어야 했던 아버지 딸 심청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서 눈을 떠서 아버지 딸 심청이를 보세요.”

심봉사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모르는구나.

“내 딸, 내 딸이라고? 죽은 내 딸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단 말이나?”

“분명 아버지 딸 청이가 살아서 돌아와 앞에 있어요.”

“오매! 청아, 내가 지끔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아니예요. 생시예요.”

“내가 지금 인당수 깊은 바닷속 서해용왕님이 사시는 수정궁에 와 있는 거냐? 거기서 널 만나는 거냐?”

“여기는 맹인잔치가 열리는 조선 땅 경복궁 대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시면 절 만져 보세요. 젓먹이 때부터 만져 보셨으니 만져 보면 아실 거 아니예요?”

“그건 그렇고나. 내 딸이면 어디 만져 보자. 아이구, 오똑한 이 코! 영두 같은 이 조그만 입술! 동글동글한 이 얼굴, 속눈꺼풀 진 이 시원스런 눈. 아이고 분명 내 속으로 난 내 딸 청이, 심청이가 맞긴 하다만. 아이고, 답답혀 내 죽겠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내 딸이 어떻게 생겼는가 딱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부처님!”

“아버지! 눈 안에서 비늘이 비듬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깨진다. 봄이 되어 우수 경칩 지나가자 살얼음판이 산산이 깨지는 것처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금이 가고 깨지고 있구나. 아아, 눈

이 부서다.”

심봉사는 갑자기 두 눈을 손바닥으로 가린다.

“아버지, 손바닥을 치워 보세요.”

심봉사는 조심스럽게 덜덜 떨면서 눈을 가리고 있던 손바닥을 치우는구나.

“아아, 청아!”

“보이세요? 제가? 아버지!”

“우리 딸이 보인다. 청아! 우리 딸 어디 좀 보자!”

심봉사는 심청이를 끌어안다가 갑자기 멍하며 바라본다. 분명 심청이라는 데 낯설게 느껴진다. 오색찬란한 왕비의 비단 대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칠보금관을 쓴 여인이 자기 딸 심청이라 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딸하고는 초면이었겠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갑자기 사월 초파일 밤, 꿈속에서 보았던 심청이와 같아 보이고 더구나 더 자세히 보니 죽은 지 어미 얼굴과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심봉사 그제야 진심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며 심청이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 평평 흘린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절씨구. 아까까지 나 봉사했을 때는 너 지팽이를 의지하여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새 세상이 되었으니 고생 많았던 지팽이 너와도 이별이다. 지팽이 또르르 내던지고 춤을 추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조화였겠다.

심봉사가 눈을 뜨니 수백 명 봉사들도 개평으로 눈을 뜬다. 만자맹인 눈을 뜬다. 전라도 곡성, 순창, 담양 세갈모 따는 소리로 짹, 짹, 짹 하더니만 일시에 눈을 떠 버리는구나.

맹인잔치 참여하고 즈그 집 내려간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

처 도착 못 한 봉사들은 노상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누워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졸다 뜨고 자다 뜨고 지  
맘대로도 뜨고 일시에 모다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왕성궁궐이 웬일이며  
창해만리 먼먼 바다 인당수 죽은 딸이 환생하여 왕후 되니  
천천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구  
어두침침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의 자통 본 듯 반갑네.  
흥진비래 고진감래 나를 두고 이름이로구나  
태곳적 시절 이래 봉사 눈 찢단 말은 처음이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우리 임금 만만세 심청 왕후 천천세.  
심학규 부원군도 만만세  
얼씨구나 절씨구. 어허 좋네 얼씨구 좋을씨구.

눈뜬 봉사들이 대왕마마와 심청 왕후 그리고 심봉사, 그리고 거기 잔  
치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읍<sup>感泣</sup>의 춤을 춘다.

대왕마마께서는 심봉사가 눈뜨기 전까지 고생하며 사는 동안 두 부녀  
를 지성으로 돌보아 준 은인들을 일일이 대궐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두  
부녀를 못되게 괴롭혔던 자들도 끌어와 상과 벌을 공평하게 내리셨다.

“심학규는 심왕후의 친부로서 이제 곡성부원군에 봉하며 작고한 심  
학규의 처 곽씨는 부원군 대부인으로 봉하노라. 그리고 무릉촌 장 승상  
부인 김씨는 별급상사로 표창하고 그 아들은 예조참판에 봉하노라. 또  
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심봉사 부녀를 내 식구처럼 보살피 준 양님이  
네와 딸고만이네, 그리고 월악산에서 맨몸이 되어 떨고 있던 심봉사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 충주관아에 인계해 준 이좌수와 목개나루 상선  
에 소개해 준 관원 이정우, 이들에게는 특별히 큰 상을 내리노라.”

그런 다음 임금은 줄줄이 오라에 묶인 채 계하에 꿰어앉은 자들에게  
도 형벌을 내렸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주모 뺨덕이네. 너는 교활한 악녀 짓을 다 저  
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다. 혼자 된 심봉사가 장님이라는 걸 기화로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셋서방 손가와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을 쳐 버렸다. 하  
늘이 두렵지도 않더라 말이나. 그리고 너 과수댁 주모, 순진한 척 심봉  
사에게 접근하여 뺨덕이년과 짜고 돈 빼가지고 둘이 나누고 종적을 감  
춰? 뺨덕이네 셋서방 손가 이놈, 어떻게 사내놈이 할 짓이 없어 셋서방,  
기동서방질로 밥 먹고 살 생각을 했느냐. 너희들은 개과천선할 때까지  
각각 옥살이 십 년을 명하노라. 그리고 오늘은 수중고혼이 되어 죽었던  
심 왕후가 다시 인도 환생해 과인과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고 게다가 앞  
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곡성부원군께서 눈을 뜬 날이며 꿈에도 그리던  
따님과 상봉한 날이다. 이 아니 기쁜 날인가? 오늘을 축일로 정하고 만  
백성은 이 경사를 봉축하도록 하라.”

이에 온 나라 안이 잔치마당이 되었고 만백성이 효녀 심청을 자손만  
대 기리게 되었더라.

## 심청전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0일

지은이 | 유현중

펴낸이 | 고광운

펴낸곳 | 곡성문화원

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전화 | 061) 362-0890

제작처 | 도서출판 문예바다

전화 | 02)744-2208

메일 | qmyes@naver.com

© 유현중, 2017.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9-11-6115-025-3

\* 이 책의 판권은 지은이와 곡성문화원에 있습니다.

\* 이 책은 2017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